

서지학개론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Contents

1주차

제1교시	서지학의 개념과 발달	05
제2교시	서지학의 체계	11

2주차

제1교시	종이 이전의 기록매체	19
제2교시	종이의 발명과 전파	27

3주차

제1교시	책의 기원	34
제2교시	책의 명칭	40

4주차

제1교시	도서의 장정	47
제2교시	도서의 형식	56

5주차

제1교시	사본의 종류와 성격	67
제2교시	간인본의 개념과 종류	74

6주차

제1교시	목판의 인쇄와 목판본의 성격	84
제2교시	신라시대 목판본	91

7주차 중간고사

8주차

제1교시	고려시대 목판본		98
제2교시	조선시대 목판본		104

9주차

제1교시	활자본 1 - 금속활자의 구조와 인쇄		111
제2교시	활자본 2 - 목활자의 제작과 인쇄		117

10주차

제1교시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123
제2교시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129

11주차

제1교시	조선시대 목활자본		138
제2교시	기타 간인본의 종류와 특징		144

12주차

제1교시	인쇄방법에 의한 감정		148
제2교시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154

13주차

제1교시	책의 판식		159
제2교시	서지 용어		166

14주차

제1교시	문헌의 관리		173
제2교시	문헌의 보존		180

15주차 기말고사

1주차 1차시



서지학의 개념과 발달

학습목표

1. 서지학의 정의를 설명하고 관련 용어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2. 서지학 연구방법을 주제와 범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 학문 연구에 있어서 서지학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서지학의 정의
2. 서지학의 필요성

핵심 keyword

- 서지
- 치학섭경
- 정전

학습하기 1

서지학의 정의

1) 용어

- 서지학 : 영어 단어 'Bibliography'에서 유래한 용어임. 'Bibliography'는 그리스어로 책을 뜻하는 'Biblio'와 글쓰기를 뜻하는 'graphy'가 결합된 단어로, 책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의미함.
- 초기 의미 : 18세기 중반까지는 '책을 필사하다'(a writing of books)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음. 이후에는 '책을 대상으로 기술하는 학문'으로 의미가 확장됨. 이는 단순한 책의 필사를 넘어서, 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을 의미하는 학문적 활동으로 발전했음.
- '서사학'에서 '서지학'으로 변천 : 19세기 말 서양학문이 한국과 일본에 도입되면서 'Bibliography'가 '서사학'으로 번역되었음. 하지만 '서사학'은 도서의 역사만을 연구하는 의미로 제한될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서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 용어 구성 : '서(書)'는 책을 의미하고, '지(誌)'는 기록 또는 기술을 나타내며, '학(學)'은 학문을 의미함. 이를 결합해 '서지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음.
- 국가별 채택 : 한국과 일본에서는 '서지학'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함. 반면, 중국에서는 '서지학'을 교수학, 목록학, 판본학으로 나누어 학문적 체계를 형성해 연구 활동을 펼침.

2) 서지학의 정의

(1)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 서지학을 도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비평, 연구하여 기술하는 학문으로 정의함. 이는 책의 단순한 목록 작성이나 기록을 넘어서, 책의 가치를 평가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적 활동을 포함함.

(2) 일본 와타나베 마사이 『도서 · 도서관용어집성』

- 서지학을 도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의함. 일본에서는 도서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내용적 가치, 역사적 배경,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로 서지학이 발전해왔음.

(3) 해로드(Harrod)와 프리처크(Prytherch) 『Librarian's Glossary』

- 서지학을 복합적 의미의 용어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지학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고 언급함. 서지목록이 서지적 기술이나 배열을 통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서지학을 비평 서지학과 체계 서지학으로 나누어 설명함.

(4) 프랑스 라루스(Larousse)

- 서지학을 특정 주제와 관련된 출판된 도서와 그 판본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함. 주제에 맞는 도서 목록을 구성하고, 출판된 저술물들을 분석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학문으로 인식됨.

(5) 천혜봉 『한국서지학』

- 서지학을 문자를 통해 표현된 본문, 그 안에 담긴 지적 소산의 내용, 그리고 이를 담고 있는 물리적 형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비평, 연구, 기술하는 학문으로 설명함. 한국 서지학은 문자와 책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의 지적 가치까지 연구하는 포괄적 의미를 강조함.

3) 서지학의 연구 방법

(1) 주제와 범위 선정

- 서지학 연구의 핵심 요소는 주제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음. 연구할 주제는 학문적 유용성과 참신성, 경제성, 자료 접근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예를 들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나 사회적 영향을 미친 저작물 등이 연구 가치가 높은 주제로 선정될 수 있음.

(2) 자료 수집, 정리, 기술, 분석 과정

- 자료 수집 : 연구에 필요한 원본과 이본을 포함해 자료를 확보함. 이를 통해 다양한 판본과 변형된 자료를 비교하며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자료 정리 : 수집된 자료는 시대, 인명, 지역, 판종, 활자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자모순으로 정리함.
- 자료 기술 : 자료의 표제지, 판권지, 판식, 장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함. 출판 배경과 당시의 문화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기술함으로써 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함.
- 자료 분석 : 간행연도, 판본의 선후, 우열, 내용의 오탈자와 위작 여부 등을 평가하여 도서의 신뢰성을 판단함.
- 결론 도출 : 각 연구 단계를 통해 자료를 체계화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연구의 최종 결론을 도출함.

학습하기 2

서지학의 필요성

1) 학문 연구에 지름길이 되는 역할 (治學涉徑)

- 서지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임. 이는 학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책의 가치와 평가를 함께 다루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함.
- 학문 연구에 있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전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기존 연구와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문제를 연구할 때, 서지학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서지학이 없었다면 연구자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알기 어려워, 비효율적인 연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큼.

2) 고전의 진위를 가려내는 역할 (正典)

- 고전은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서지학은 이 고전의 진위를 판별하고 진짜와 위작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는 특히 동양학이나 한국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고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학문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 서지학적 분석은 고전의 판본과 판각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원래의 본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후대에 추가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함. 이러한 작업은 고전의 원래 의미와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학문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3) 책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함

- 서지학은 국내외 책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책의 학문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함. 이는 도서관이나 학술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데 필수적임.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특정 저작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할 때, 해당 저작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지학적 지식이 큰 역할을 함.
- 특히 희구본(稀求本)이나 귀중서와 같은 드문 책들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고 학문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취급됨. 서지학을 통해 이러한 희귀 서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는 학문적 자산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음.

4) 서명의 이동을 파악하는 역할 (異名同書)

- 같은 내용의 책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명이 다르게 사용되기도 함. 예를 들어 『춘향전』은 『옥중화』 또는 『성춘향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택리지』는 『팔역지』, 『동국산수록』으로도 불림. 이러한 서명의 이동은 각 지역과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며, 서지학은 이를 파악하여 해당 책의 전파 경로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서지학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어떤 서명이 어떤 시대와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해당 도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이는 도서가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5) 편명의 분합과 권질의 증감을 파악하는 역할

- 서지학에서는 책의 권(卷)과 편(篇)의 구성, 즉 권질(卷帙)의 증감이나 분합에 대해 연구함. 이는 서적의 물리적 형태와 내용 구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예를 들어 10권을 5책으로 묶은 경우, 2권씩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여 총 5책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권은 서지학적으로 고정된 개념으로, 하나의 권이 가진 학문적 구조나 내용이 쉽게 변경되지 않는 특성을 가짐. 반면 책은 물리적 형태에 따라 편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출판자나 소장자에 의해 여러 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거나 분리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지학 연구자는 고전 문헌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6) 책의 훼손 여부를 파악함

- 서지학은 책이 처음 제작될 당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예를 들어 표지가 손상되었거나 본문의 일부가 손실되었는지 여부, 혹은 페이지의 질감이나 색상이 변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함.
-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책의 물리적 상태와 함께 해당 책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추정할 수 있음. 훼손된 흔적은 책이 시간 속에서 겪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의 출판 기술, 보존 방식, 책이 겪은 환경 등을 추적할 수 있음.

7) 인쇄의 원류와 판본의 우열을 파악하는 역할

- 서지학은 인쇄의 원류를 찾아 각 판본의 우열과 차이를 분석함. 판각의 원류를 밝히는 것은 책의 역사적 가치와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초간본, 중간본, 번각본, 초쇄본, 후쇄본 등 다양한 판본을 분류할 수 있음.
- 초간본 : 어떤 저작을 처음 출간한 판본으로, 이 책이 이후의 판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 중간본 : 초간 이후 추가 간행된 판본으로, 추가된 내용이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함.
- 번각본 : 중간본의 내용을 그대로 목판에 다시 새긴 판본으로, 당시의 출판 및 인쇄 기술 수준을 보여줌.
- 초쇄본 : 초간 혹은 중간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인출한 책으로, 원본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판본임.
- 후쇄본 : 같은 목판을 사용해 후대에 찍어낸 것으로, 시간이 흐르며 목판이 닳거나 변경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판본 구분을 통해 서지학 연구자는 특정 책이 어떤 경로로 출간되고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판본이 학문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학습정리

1. 서지학의 정의

- 서지학은 책과 출판 자료를 조사, 분석, 비평, 연구, 기술하는 학문
- 영어 'Bibliography'에서 유래된 용어로, 책과 기록을 의미
- 초기에는 단순한 책 필사를 뜻했으나, 현재는 포괄적 연구로 발전
- 책의 물리적 형태, 내용,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 학문
- 한국에서는 책의 지적 가치와 물리적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

2. 서지학의 필요성

- 학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며 선행 연구를 파악하는 도구
- 고전 문헌의 진위를 검증하고 학문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 희귀 서적의 존재와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
- 책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수단
- 판본의 우열을 가려내고 학문적 자산을 활용하는 학문

1주차 2차시

■ 서지학의 체계

학습목표

1. 원문서지학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시대별 사례를 통해 원문서지학의 전개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3. 체계서지학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4. 판각목록, 장서목록, 문헌목록에 따른 문헌별 사례를 통해 체계서지학의 전개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5. 형태서지학의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
6. 시대별 흐름에 따른 형태서지학의 전개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원문서지학(교수학)
2. 체계서지학(목록학)
3. 형태서지학(판본학)

핵심 keyword

- 대교
- 판중
- 간사

학습하기 1

원문서지학(교수학)

1) 정의

- 대교(對校)는 고문헌에서 본문에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존재하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어, 이를 원본 또는 정본과 비교하여 차이를 바로잡고,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복원하는 학문임. 이 과정에서 만약 편권(篇卷)의 차이가 있거나 본문에 증감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고증하고 그 경위와 전래 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역할을 함.
- 중국에서 발전된 교수학과 교감학과도 연결되는 전통적 학문 분야로, 본문의 정확성과 역사적 전승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특히, 문헌의 원래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2) 전개

(1) 신라 경덕왕 10년(751) 간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 신라 시대 경덕왕 10년, 간행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당시의 뛰어난 간행 기술과 철저한 교감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본문을 분석해보면, 무주신자(武周新字)와 이체자(異體字)를 제외하고는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는 매우 정교한 상태로 전해짐.
- 무주신자 : 당나라 측천무후 시기에 새롭게 제정된 글자들로, 예를 들어 "證(증)", "地(지)", "授(수)", "初(초)"와 같은 글자가 해당됨.
- 이체자 : 당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형태가 다른 글자들로 "京(경)", "冊(책)", "采(채)" 등이 있음.
- 이는 신라의 간행 기술과 문헌의 교감 수준이 이미 정밀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이후 고려 및 조선 시대 교감학 발전의 기초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고려 목종 10년(1001) 개성 총지사 간인 『보협인다라니경(寶篋印陀羅尼經)』

- 고려 목종 시대, 개성 총지사에서 간행한 『보협인다라니경』은 당시 고려의 문헌 간행 및 교감 수준이 독자적인 체계를 확립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이 판본은 중국의 오월판(吳越版)과 비교했을 때, 본문에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으며 판각의 정교함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는 고려가 단순히 외국의 판본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교감 기준과 체계를 적용해 본문을 정확하게 교정하고 간행했음을 나타냄.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고려의 불교 경전 간행 기술과 문화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됨.

(3) 고려 선종 8년(1091)~숙종 6년(1101) 간인 『속장경(續藏經)』

- 고려 시대 의천(義天)은 송(宋), 요(遼), 일본 및 국내에서 약 4천여 권의 장소(章疏)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장경(續藏經)』을 간행함.
- 특히 『속장경』의 본문 교감 과정은 당대의 고승들이 참여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본문에 나타난 오자와 탈자를 최대한 바로잡아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제작함.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경전을 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대 전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고려 시대 교감학의 노력임. 『속장경』 간행은 고려 불교 문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불교 경전 교감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됨.

(4)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

- 고려 시대 교감 작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이 있음. 이 문헌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을 교감한 결과를 30권에 걸쳐 집대성한 기록임.

- ① 교감 작업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인 수기법사(守其法師)가 주도했으며,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국전본(國前本), 국후본(國後本), 북송본(北宋本), 거란본(契丹本) 등 다양한 판본들과 본문을 대교하여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본문 전래 과정에서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함.
- ②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경전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판본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당시 문헌 전승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는 데 기여함. 이로써 고려 시대 교감학의 수준을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입증하는 중요한 학문적 업적으로 남음.

(5) 조선 시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벌칙 조항

- 조선 시대에는 서책을 편찬하거나 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자와 탈자에 대해 엄격한 벌칙 조항이 적용됨.
- 감인관(監印官), 창준(唱準), 수장(守藏), 균자장(均字匠) 등 책의 제작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매 한 권 당 1자의 오자가 발견될 경우 태형 30대를 가했으며, 오자가 한 자 더 추가될 때마다 처벌의 강도가 올라갔음.

인관	인쇄 작업의 감독을 맡은 교서관원
창준	원고 또는 책의 본문을 차례로 부르는 사람으로 글자를 아는 사람이 담당
수장	활자를 보관, 활자를 찾아 해당 원고나 책의 본문 글자위에 올려놓는 사람
균자장	활자를 균형 있게 판을 짜는 사람, 조판담당

- 인출장(印出匠)의 경우에도 먹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희미한 상태로 인쇄되면 동일한 벌칙이 적용됨.
- 만약 관원(官員)이 서책에서 5자 이상의 오류를 범했을 경우 즉시 파직되었으며, 창준, 수장, 균자장은 태형과 함께 50일의 근무 일수를 감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율을 따랐음.
- 조선 시대에는 문헌 간행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존재했으며, 이는 당시 학문적 전통과 국가 차원의 문헌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줌.

(6) 현대의 원문서지

- 현대에도 고문헌의 교정과 교감 작업은 학문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최남선 : 『삼국유사』를 교정하여 원문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헌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기여함.
- 한국고전번역원 :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교정하며, 전통적인 교감학의 현대적 적용을 통해 문헌의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
- 천혜봉 : 『새로 발견된 고판본 삼국사기』를 교감하며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 문헌의 정확성을 검증함.
- 이흥직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해인사 대장경 본문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문헌의 전승 과정을 밝히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함.
- 천혜봉 : 『고려 초기 간행의 보협인다라니경』 연구를 통해 중국 오월판과 고려 총지사판 및 해인사 대장경판, 대정신수대장경판을 비교, 문헌 교감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 현대의 원문서지 연구는 과거의 교감학 전통을 계승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문헌의 복원과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학습하기 2

체계서지학

1) 정의

- 문헌학 및 서지학의 한 분과로, 고금의 지적 소산인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성하는 학문임. 국가별, 시대별, 학술 주제별로 문헌을 구분하여, 학술의 기원과 흐름, 발전 과정을 기술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여러 목록과 서지에 대해 연구하는 역할을 함.
- 특히 특정 주제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에게 입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관련 문헌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줌.
- 이 학문은 중국의 목록학과 서양의 체계서지학, 열거서지학, 지적서지학, 주제서지학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동서양에서 모두 중요한 학문적 기틀로 자리 잡음.

2) 전개

(1) 판각목록

- 판각목록은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 간행된 책판(책의 목판)을 기록한 목록으로, 당시 문헌의 출판 상황과 간행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임.

① 재조대장경의 판각목록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

- 고려 고종 24년(1237)부터 동왕 38년(1251)까지 제작된 재조대장경의 판각목록으로, 불교 경전의 체계적 교감 및 검토 작업의 결과물임.
- 수기법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판각을 교정 및 검토함으로써, 오자와 탈자를 철저히 배제한 완성도 높은 불교 경전 목록이 탄생함.

② 교장의 판각목록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 고려 의천(義天, 1055~1101)이 선종 7년(1090)에 편찬한 불교 교장의 체계적 목록임.
- 이 목록은 일명 『의천록(義天錄)』 또는 『해동유본견행록(海東有本見行錄)』이라고 불리며, 총 1,010부 4,857권을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 기록함.
- 불교 문헌의 방대함과 정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동아시아 불교 서지학의 기초를 이루는 작업 중 하나로 평가됨.

③ 『고사촬요(攷事撮要)』

- 조선 명종 9년(1554),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문헌으로, 팔도 각지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을 조사하고 정리한 서지 목록임.
- 특히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지방 판본들을 고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당시 출판된 지방 문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

④ 『누판고(鑪版考)』

- 정조 20년(1796), 규장각의 서유구(徐有渠)가 편찬한 전국적인 규모의 책판목록임.
- 중앙 및 지방 관서를 비롯해 서원, 사찰, 사가 등 사사 기관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기록 작업을 통해 편찬됨.
- 다른 책판목록들에 비해 권위와 신빙성이 높으며, 편성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문헌 목록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됨.

(2) 장서목록

- 장서목록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도서와 문헌의 목록으로,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의 학술적 성격과 지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① 『규장각서목(奎章閣書目)』

- 총 3책으로 구성된 목록으로, 제1책은 이문원서목(摛文院書目), 제2책은 서서서목(西序書目), 제3책은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을 포함함.
- 규장각이 소장한 문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조선 후기의 학문적 성과와 장서의 풍부함을 보여줌.

② 『장서각도서한국판서목(藏書閣圖書韓國版書目)』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1972년에 간행한 목록으로, 한국 전통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활용 자료를 제공함.

③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81년에 출간한 목록으로, 규장각 소장 한국본 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문헌의 체계적 분류와 연구 기반을 마련함.

④ 『고서목록(古書目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간행한 1~6책의 목록으로, 한국 고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자료임.

⑤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

- 보문각에서 1968년에 간행한 문헌으로, 청분실의 장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임.

(3) 문헌목록

- 문헌목록은 특정 주제나 지역, 시대를 대상으로 간행된 문헌들의 목록으로, 문헌의 계통과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

① 『조선서지(朝鮮書誌)』

- 프랑스의 모리스 쿠랑(Mourice Courant, 1865-1935)이 1894~1896년 파리에서 간행한 3권의 『Bibliographie Coreenne』과 보충판 1권으로 구성된 목록임.
- 조선 시대 문헌의 서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서양 학자에 의한 작업으로, 서양에서 한국학 연구가 시작된 기초 자료로 평가됨.

② 『한국서지』

- 모리스 쿠랑의 원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1994년에 서울의 일조각에서 간행한 문헌임.
-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며 서양에서 한국 문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③ 『고선책보(古鮮冊譜)』

- 일본의 전간공작(前間恭作)이 1944~1958년 동경 동양문고에서 간행한 13권의 문헌임.
- 한국 고문헌에 대한 연구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한 자료로, 한국 문헌의 국제적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학습하기 3

형태서지학

1) 정의

- 형태서지학은 책이라는 물리적 매체가 지닌 외형적, 구조적 특징과 이를 둘러싼 제작 및 유통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임.
- 책의 판본, 인쇄 방식, 제본, 용지, 활자 등의 세부적인 물리적 속성과 변천 과정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간행 시기와 제작 기술을 고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밝혀냄.
- 책의 제작 방식과 유통 맥락을 연구함으로써 특정 책의 간사(刊寫)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동일한 문헌 간의 판본 차이와 우열을 식별하는 데 기여함.
- 형태서지학은 동양에서는 판본학으로, 서양에서는 서지학의 한 분과로 체계화되어 발전해왔으며, 책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연구를 지향함.

2) 전개

(1) 1938년 서지동호회(書物同好會) 결성

- 1938년, 서지동호회라는 단체가 결성되며 "서지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서지동호회는 1938년부터 1943년 12월까지 총 20호의 발간물을 출판하며 활동함.
- 이 발간물에는 활자와 인쇄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자본, 목판본, 판화본, 고본, 장서, 인보, 지질 등 책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다뤄짐.
- 이러한 연구들은 서지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후 서지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함.
- 특히, 이 시기의 연구는 서지학이 단순히 책의 물리적 형태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기술적 변천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2) 1944년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

- 『청분실서목』은 1944년 편찬된 가장목록으로, 한국 서지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이 목록은 활자본, 목판본, 초본 등을 임진왜란 전후로 구분하여 판종(版種)을 구체적으로 고증함.
- 책의 간행 시기와 필사 시기를 정밀하게 추정하며, 형태 서지학적 기술 또한 상세하게 기록함.
- 이를 통해 당시의 인쇄술과 서적 제작 기술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한국 고전 문헌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특히, 『청분실서목』은 한국 전통 서지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출발점 중 하나로 평가받음.

(3)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 한국의학문화대연표』 (1966)

- 김두종이 1966년에 집필한 『한국의학사 · 한국의학문화대연표』는 한의서 간인본의 고증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 이 책은 한국 전통 의학 문헌의 서지학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한의학 문헌의 간행 형태와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함.
- 서지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의학 문헌의 간행 시기를 추정하고, 당시의 학술적, 기술적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의학사 연구의 기초를 다짐.

(4) 1968년 한국서지학연구회 조직

- 1968년, 한국서지학연구회가 조직되며 서지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함.

- 연구회는 『서지학(書誌學)』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총 7호를 발간함.
- 이후 발간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 시기의 활동은 한국 서지학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고 학술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연구회는 한국 문헌의 물리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며 서지학을 독립된 학문 분야로 확립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5) 1986년 『서지학연구(書誌學研究)』

- 1986년, 서지학 연구의 학술지가 새롭게 창간되며, 이후 서지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함.
- 『서지학연구』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77집까지 발간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학문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음.
- 이 학술지는 서지학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서지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이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은 서지학이 단순히 책의 물리적 특징을 다루는 학문에서, 책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6) 전국 대학의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 전국 대학의 대학원에서 서지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등장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이 활발히 출간됨.
- 이 논문들 중 대부분이 형태서지학 분야를 다루며, 책의 물리적 특성과 간행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이러한 학위 논문들은 서지학의 전문적 연구가 확대되고, 학문적 깊이가 더해지는 데 기여함.
- 특히, 서지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이 연구를 이어가는 기반이 됨.

학습정리

1. 원문서지학(교수학)

- 원문서지학은 고문헌의 오자나 탈자를 바로잡아 원본을 복원하는 학문
- 중국에서 발전된 교수학과 연결되며,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철저한 교정과 간행 작업의 전통이 존재
- 대표 사례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보협인다라니경』, 『속장경』 등이 있음
- 현대에는 기술을 활용해 문헌 복원과 연구 범위를 확장

2. 체계서지학(목록학)

- 체계서지학은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성하는 학문
- 국가별, 시대별, 주제별 문헌을 정리해 학문적 발전의 흐름을 기술
- 판각목록과 장서목록을 포함하며, 문헌의 전승과 출판 상황을 연구
- 대표 목록으로 『대장경목록』, 『규장각서목』, 『조선서지』 등이 있음
- 동서양 서지학의 기틀로 자리 잡으며 학문적 기여를 지속

3. 형태서지학(판본학)

- 형태서지학은 책의 외형적 특징과 제작·유통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 판본, 인쇄 방식, 제본, 용지 등을 분석해 간행 시기와 기술을 고증
- 동서양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발전하며, 책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
- 한국에서는 『청분실서목』, 『서지학연구』 등의 연구가 중요한 기반
- 현대에는 학술지와 논문을 통해 연구가 확장되고 심화됨

2주차 1차시

■ 종이 이전의 기록매체

학습목표

1. 귀갑, 수골의 기록매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죽간과 목독의 기록매체적 특징을 알고 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3. 비단의 기록매체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4. 점토판의 기록매체로서의 장단점을 알고 제조방법을 서술할 수 있다.
5. 파피루스의 기록매체로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종이화 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6. 양피지의 기록매체로서의 장단점을 알고 제작방법을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동양의 기록매체(귀갑, 수골, 죽간목독, 비단)
2. 서양의 기록매체(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핵심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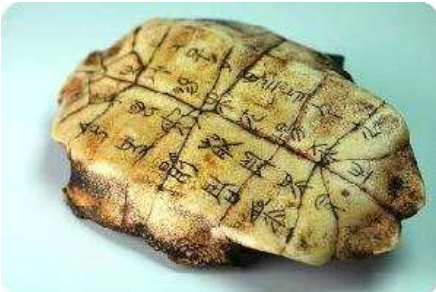
- 횡련식
- 중적식
- 정본

학습하기 1

동양의 기록매체(귀갑, 수골, 죽간목독, 비단)

1) 귀갑(龜甲), 수골(獸骨)

- 귀갑과 수골은 고대 중국에서 거북의 등 껍데기와 짐승의 뼈를 이용하여 기록된 자료를 말함.
- 이들은 주로 중국 은나라 시대에 점복(占卜), 즉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새겨진 문자를 "귀갑수골문자(龜甲獸骨文字)" 또는 줄여서 "갑골문(甲骨文)"이라 부름.
- 이 갑골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음.
- 거북이 등 껍데기에 새긴 갑골문 : 거북의 등 껍데기는 내구성이 강하고 평평하여 글자를 새기기에 적합했음. 이 껍데기에는 왕실의 중요한 점복 결과나 국가적 사건이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체계를 엿볼 수 있음.
- 짐승의 뼈에 새긴 갑골문 :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뼈, 특히 대퇴골이나 견갑골과 같은 부위를 이용하여 문자를 새겼음. 짐승의 뼈는 크기가 다양하여 점복 목적에 따라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음.

	
거북이 등 껍질에 새긴 갑골문	짐승의 뼈에 새긴 갑골문

- 이와 같은 귀갑과 수골은 초기 기록 문화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지만, 이들을 현대적 의미의 책의 기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는 이들이 일회적이고 의례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임.

2) 죽간목독(竹簡木牘)

- 죽간목독은 고대 중국에서 뗏조각과 나무조각을 이용하여 문자를 기록한 문헌 형태를 말함. 이들은 간독(簡牘), 목간(木簡), 죽목서(竹木書) 등의 동의어로 불림.
- 죽간과 목독은 당시의 기록 매체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음.

(1) 죽간(竹簡)

- 죽간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재질이 치밀하고 내구성이 강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내구성과 경제성 : 대나무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재료였으며, 내구성이 강해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했음. 또한 경제적이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음.
- 휴대와 관리 : 죽간은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했고, 보관과 관리 또한 용이했음.

- 제한점 : 그러나 폭이 좁고 길이가 일정하여 지도나 그림과 같이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기록에는 부적합했음.

(2) 목독(木牘)

- 목독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죽간과는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짐.
- 크기와 용도 : 목독은 죽간보다 폭과 길이가 넓어 지도나 그림과 같은 넓은 면적의 기록에 적합했음.
- 경제성 : 목재는 널리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경제성이 뛰어났음.
- 단점 : 그러나 재질이 부드러워 글씨가 쉽게 번지고, 무겁고 크기가 커 휴대와 관리가 불편했음.

(3) 죽간과 목독의 편철(編綴)

- 죽간과 목독은 여러 개의 조각을 연결하여 긴 문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음. 이를 편철(編綴)이라 함.
 - 횡련식(橫連式) : 주로 죽간에 사용되었으며, 가로로 이어 붙이는 방식임.
 - 중적식(重積式) : 목독에 사용되었으며, 여러 조각을 쌓아 올리는 방식임.
 - 편철 재료 : 죽간과 목독을 묶는 데에는 가죽, 삼, 명주 등이 사용되었음. 이를 통해 문서가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함.
- 예) 견편(絹編), 위편(韋編), 위편삼절(韋編三絶) 등이 있음.
- 죽간과 목독은 고대 문헌 기록의 중요한 매체로, 이후 더 발전된 기록 매체가 등장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함.



3) 비단

- 비단은 죽간과 목독에 이어 등장한 기록 매체로, 고대 중국에서 중요한 문서 기록의 용도로 사용되었음.
- 특징: 비단은 죽간이나 목독보다 부드럽고 가벼워 필사와 휴대가 매우 용이했음. 또한 글의 길고 짧음에 따라 적절히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보관 방식: 비단은 권자본(卷子本) 형태로 보관이 가능했으며, 이는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음.
- 가격: 그러나 비단은 당시 매우 고가의 재료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일반적인 기록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웠음.
- 의미와 용도: 비단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최종적인 정본(定本)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음. 또한 "책을 헤아리는 단위로 卷(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 작용함.
- 비단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고대 중국에서 문서 제작과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후 기록 문화의 중요한 발전 단계로 이어졌음.



학습하기 2

서양의 기록매체(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1) 점토판

- 점토판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2~3세기까지 사용된 기록 매체로,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음.
- 이 점토판은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당시 사람들이 정보나 기록을 보관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음.
- 점토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쐐기문자(설형문자)를 기록한 매체로, 초기 문명의 기록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임.

(1) 장단점

- ① 보존성 : 점토판은 충해(蟲害), 습기, 화기에 강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었음. 화재로 인해 일부 점토판이 구워지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존된 경우도 있음.
- ② 재료의 저렴함 : 점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음.
- ③ 문자 새김의 어려움 : 점토판에 문자를 새기는 작업은 정교하고 많은 노력을 요함. 이는 효율성이 낮은 단점으로 작용했음.
- ④ 무겁고 부피가 큼 : 점토판은 크기와 무게가 다양했으나,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휴대와 사용이 불편했음.
- ⑤ 보관 공간 필요 : 다량의 점토판을 보관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했으며, 관리가 어려웠음.

(2) 제조방법

- ① 빚기 : 부드럽고 유연한 진흙을 사용해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빚음.
- ② 문자 새기기 : 나무, 뼈, 쇠붙이로 만든 철폭을 이용해 점토판에 문자를 새겼음.
- ③ 건조 및 굽기 : 새겨진 점토판은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거나 태양 빛에 자연 건조시켰음.
- ④ 재사용 :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천으로 싸서 다시 반죽해 재사용하기도 했음.



기원전 3000년 전 바빌로니아 점토판



BC 2600 수메르의 쐐기문자판

2) 파피루스

-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기록 매체로,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제작되었음.
- 이 매체는 두루마리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책의 기원 중 하나로 평가됨. 파피루스는 경량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널리 쓰였으나, 습기에 약하고 보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음.

(1) 장단점

- ① 가볍고 휴대성 우수 : 파피루스는 무게가 가볍고 휴대가 용이했음.
- ② 보관 공간 절약 :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 적은 공간을 차지함.
- ③ 경제적 제작 : 파피루스는 식물을 활용해 쉽게 제작할 수 있어 경제적이었음.
- ④ 기록 면적 : 한쪽 면만 사용하더라도 넓은 기록 공간을 제공했음.
- ⑤ 보존성 약함 : 습기에 약해 장기간 보존이 어려웠으며, 관리가 까다로웠음.
- ⑥ 두루마리의 불편함 : 책자형과 달리 두루마리 형태는 사용과 읽기에 불편했음.
- ⑦ 양면 필사 불가 : 한쪽 면만 필사 가능하여 효율성이 떨어졌음.

(2) 종이화 과정

- ① 파피루스 줄기 준비 :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외피를 제거한 후 세로로 얇게 저며 자름.
- ② 줄기 배열 : 얇게 자른 줄기를 물에 담가 수분을 유지하며,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다른 줄기를 직각으로 배열함.
- ③ 압축 : 딱딱한 받침 위에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밀착시킴.
- ④ 접착 : 파피루스 줄기의 수액이 자연 접착제로 작용하여 조각들을 이어 붙임.



출처 : <https://blog.naver.com/1210092a/221369456453>

3) 양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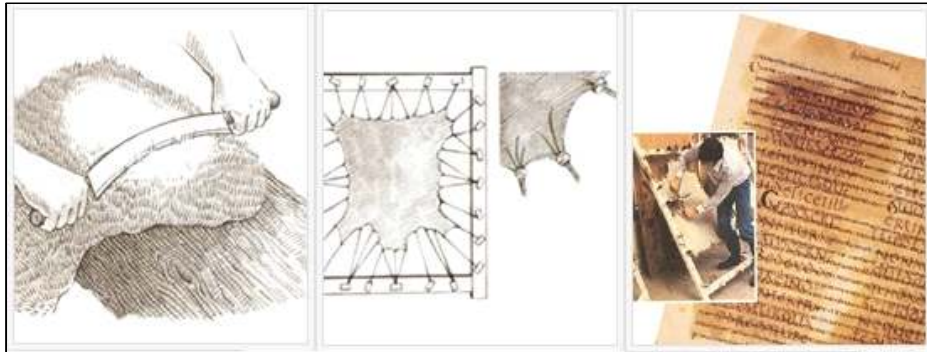
- 양피지는 양, 염소, 소 등의 가죽을 사용해 만든 기록 매체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이 매체는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왕국에서 왕 에우메네스 2세가 개발하였으며, 권자본(卷子本)에서 책자형으로의 전환을 이끈 주요 기록 매체임.

(1) 장단점

- ① 내구성 : 양피지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물리적 손상에 강하고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었음.
- ② 양면 필사 가능 : 양피지는 양면 모두 필사가 가능하여 효율성이 높았음.
- ③ 이중 필사 가능 : 기존의 기록을 지우고 다시 필사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했음.
- ④ 책자형 전환 : 권자본에서 책자형으로 전환되며,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 ⑤ 비경제성 : 양피지는 제작 비용이 높고 대량 제작이 어려웠음.
- ⑥ 크기와 무게 : 부피가 크고 무거워 보관과 이동이 불편했음.

(2) 제작방법

- ① 세척 : 가죽을 물에 세척한 후 털과 먼지를 제거함.
- ② 석회수 처리 : 가죽을 석회수에 담가 부드럽게 만들고 소독 효과를 얻음.
- ③ 건조 : 가죽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틀 위에 바짝 당겨 말림.
- ④ 가공 : 건조된 가죽을 잘라 장방형 낱장으로 제작하고, 필사에 적합하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함.



출처 : <https://waterholic.tistory.com/m/233>

학습정리

1. 동양의 기록매체

- 귀갑(龜甲)·수골(獸骨): 은나라 시대 점복용으로 사용된 거북껍데기와 짐승뼈에 새겨진 갑골문은 종교적·정치적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됨
- 죽간(竹簡)·목牍(木牘): 대나무와 나무 조각을 기록 매체로 사용. 죽간은 가볍고 경제적이었으나 폭이 좁았고, 목牍은 넓은 면적 기록에 적합했으나 무겁고 휴대가 어려웠음
- 비단: 가볍고 부드러워 고급 문서 작성에 사용되었으나, 비싼 가격으로 대중적 사용은 어려웠음. 권자본 형태로 보관 가능해 장기 보존이 용이했음
- 이 기록 매체들은 고대 중국의 문화적 발전과 문서 관리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함

2. 서양의 기록매체

- 점토판: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된 기록 매체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제작 비용이 저렴했으나 무겁고 휴대가 불편했음. 쐬기문자 기록의 중요한 유물로 남아 있음
-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기록 매체로, 가볍고 경제적이었으나 습기에 약해 장기 보존이 어려웠음. 두루마리 형태로 저장되었으나 사용이 불편했음
- 양피지: 내구성이 뛰어나고 양면 필사가 가능해 효율적이었으나, 제작 비용이 높고 부피가 커 경제성이 떨어졌음. 책자형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들 매체는 초기 문명의 기록 문화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며, 책의 기원과 기록 매체의 진화를 이끌었음

2주차 2차시

■ 종이의 발명과 전파

학습목표

1. 과거 기록을 통해 105년 종이가 발명되었다는 학설을 제기할 수 있다.
2. 다양한 유적지의 흔적을 통해 종이가 기원전 2세기에 발명되었다는 학설을 제기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 종이가 전파된 과거 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지술이 서양에 전파된 기원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5. 제지술의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종이의 발명설
2. 제지술의 전파

핵심 keyword

- 수피
- 마두
- 폐포

학습하기 1

종이의 발명설

1) 105년 설

(1) 『후한서』 권108 「채륜전」

- 『후한서(後漢書)』의 채륜전(蔡倫傳)에 따르면, 채륜이 당시 널리 사용되던 비단과 죽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이를 제작했다고 전해짐.
- 비단은 가격이 비싸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죽간은 무겁고 관리가 어려워 불편했음.
- 채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했음. 그는 나무껍질(수피), 삼껍질(마두), 낡은 천(폐포), 사용하지 않는 어망(漁網) 등을 재활용하여 가볍고 경제적인 종이를 만들었음.
- 이 종이는 원흥 8년(105년) 채륜이 왕에게 바친 후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채후지(蔡侯紙)'라 불렸음.
- 이 기록은 종이의 발명 연대와 채륜의 업적을 강조하며, 종이의 발전 과정을 알리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됨.

(2) 채륜의 역할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 최근 연구에서는 채륜이 종이 발명자가 아니라 기존의 제지 기술을 정리하고 개량한 인물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
- 기원전 시기의 다양한 고고학적 발굴 사례는 종이가 채륜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채륜은 단순히 제지법을 체계화하고 종이의 대중화를 촉진한 개량자로 보는 관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종이가 단기간에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결과임을 시사함.

2) 기원전 2세기 설

(1) 섬서성의 파교지

- 발굴지와 연대 : 섬서성 파교에서 발굴된 이 종이는 기원전 140~187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됨.
- 용도 : 동경(銅鏡)을 싸는 포장지로 사용되었음. 이는 종이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포장 용도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줌.
- 특징 : 원료는 대마와 약간의 저마 섬유로 구성되었으며, 길고 꼬여 있는 실의 형태를 지님. 이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제지 공정이 아닌 섬유의 자연 퇴적에 의한 산물로 판단됨.
- 제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종이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종이 발전의 원형적 형태로 평가됨.

(2) 남월왕묘의 서한지

- 발굴지와 연대 : 기원전 195~188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의 남월왕 묘에서 발견됨.
- 특징 : 모시 섬유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종이와 유사한 제작 과정을 거쳤음.
- 이는 당시 섬유 재료를 활용한 기록 매체 제작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줌.
- 의미 : 남월왕묘에서 발견된 이 자료는 종이가 단순히 중국 중심부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술이 확산되었음을 시사함.

(3) 면양의 서한지

- 발굴지와 연대 : 사천성 면양시의 영흥진 2호 고분에서 발굴된 이 종이는 기원전 186~118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됨.

- 특징 : 마섬유를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제지 기술이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줌.
- 중요성 : 면양의 서한지는 서한(西漢) 시대에 이미 제지 기술이 상당히 진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됨.

(4) 방마탄의 종이

- 발굴지와 연대 : 감숙성 천수시 방마탄에서 발견된 이 종이는 기원전 187~141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됨.
- 특징 : 종이지도가 함께 발굴되어, 기원전 시기에 이미 종이가 지도 제작과 같은 기록 매체로 활용되었음을 확인시켜줌.
- 의의 : 이는 단순한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시각적 정보 전달에도 종이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줌.

(5) 거연의 금관지

- 발굴지와 연대 : 감숙성 거연 유적지에서 발굴된 이 자료는 기원전 54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됨.
- 특징 : 대마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종이의 원료와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중요성 : 이 자료는 종이가 점차 기록 매체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

(6) 부풍의 중안지

- 발굴지와 연대 : 섬서성 부풍현 중안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73~49년으로 추정됨.
- 특징 : 도기 속에서 발견된 이 종이는 당시 종이의 보관과 활용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

(7) 돈황의 마권만지

- 발굴지와 연대 : 감숙성 돈황 마권만에서 출토된 이 종이는 기원전 65~21년으로 추정됨.
- 특징 : 죽간, 목간과 함께 종이 5건 8편이 출토되었으며, 종이 제조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종이가 점차 기록 매체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줌.

(8) 돈황 현천지 출토지

- 발굴지와 연대 : 1992년~1993년 돈황 감숙성 돈황 현천치에서 발굴된 자료로, 기원전 94년~위진시대에 걸친 종지와 종이 형태의 잔편이 출토됨.
- 특징 : 글자가 쓰여 있는 종이 4건을 포함해, 종이형 잔편 20여 건이 발견됨.
- 종이지도 발견이후 가장 많은 수량 발견
- 특히 이 자료는 기록 매체로서 종이가 점차 널리 사용되었음을 입증함.

학습하기 2

제지술의 전파

1) 우리나라

(1) 7세기 설

- 『일본서기』에는 610년 담징(曇徵)이 일본에 종이, 먹, 채색 및 맷돌 기술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 담징은 고구려의 승려로, 당시 일본에 유학하며 다양한 문화적, 기술적 요소를 전파한 인물로 평가됨.
- 그의 종이와 먹 제작 기술은 일본에서 초기 문헌 기록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초를 마련했다고 봄.
- 같은 시기, 왕인박사(王仁博士)가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파했다는 기록도 존재함.
- 왕인은 백제의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활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식과 기술 교류를 증명하는 사례로 여겨짐.
- 종이와 관련된 기술뿐 아니라, 유교 경전과 학문적 전통을 일본에 소개하여 문화적 토대를 제공함.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

-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한국 종이는 754~755년(경덕왕 1314)에 제작된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임.
- 이 문서는 백지(白紙)에 묵서(墨書)로 작성된 경전으로, 신라 시대의 제지 기술과 서사 문화의 발달을 보여줌.
- 신라의 제지 기술은 당시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자랑하며, 종교적, 학문적 기록을 중심으로 발전했음.
- 또한, 751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목판 인쇄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됨.
- 이 경전은 당시 신라에서 종이와 인쇄 기술이 결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줌.
-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이는 동아시아 인쇄 문화의 시초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서양

(1) 제지술의 전파

- 종이와 제지술은 동양에서 시작되어 서양으로 전파된 기술로, 그 중심에는 8세기 사라센 제국의 활동이 있음.
- 751~757년, 사라센 제국과 당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제지공들이 사라센 제국의 사마르칸트(Samarkand)로 끌려가 제지술을 전파함.
- 사마르칸트는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제지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지 기술이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었음.
- 이 과정에서 동양의 제지술은 서양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지식과 정보 전파를 가속화함.
- 초기에는 여전히 수공업 방식으로 종이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대량 생산과는 거리가 있었음.
- 그러나 종이가 가진 경제성과 보편성은 이후 서양에서도 기록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됨.

(2) 종이의 특징

- 서양의 종이는 주로 마섬유와 면섬유를 원료로 제작되었음.
- 이로 인해 종이가 두껍고 광택이 부족하며, 동양의 종이에 비해 거친 질감을 가졌음.
- 그러나 크기가 작고 불투명해 양면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음.
- 종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양 종이는 점차 품질이 개선되었고,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이후 동양의 제지 기술을 개선한 서양 종이는 다시 동양으로 역수출되며, 글로벌 기술 교류의 사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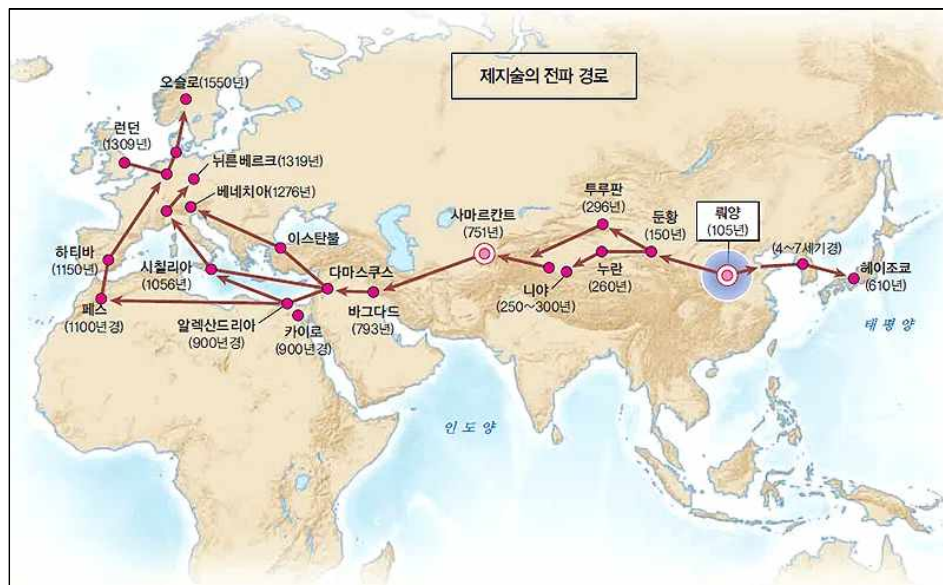
(3) 초지기(抄紙機)

- 1798년, 프랑스의 루이 로베르(Louis Robert)가 장망식 초지기를 발명하며 제지 공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장망식 초지기는 초기 형태의 기계식 종이 제작 설비로, 수공업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함.
- 1808년, 포드리아(Fourdrinier) 형제가 이를 개량해 실용적인 초지기를 완성함. 초지기는 이후 제지 공장의 필수 설비로 자리 잡으며, 대량 생산과 품질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됨.
- 1840년, 독일에서 목재 펄프 제조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종이 생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이는 기존의 마와 면섬유 대신 목재를 활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 19세기 중엽, 화학펄프 제조법이 발명되면서 염색과 표백 기술이 가능해졌고, 현대적 종이의 형태를 갖추게 됨.

(4) 서양 제지공장의 발전

- 종이와 제지술이 서양으로 전파된 이후, 주요 지역에 제지공장이 설립되며 종이 생산이 본격화됨.
- 793년 : 이라크 바그다드에 제지공장이 설립되며, 이슬람 세계의 학문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함.
- 900년 : 이집트 카이로에 제지공장이 세워지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제지술이 확산됨.
- 1100년 : 모로코 페즈에서 제지공장이 설립되어, 이슬람 세계의 서부 지역에서도 종이 생산이 활성화됨.
- 1276년 : 이탈리아 몬테파노에 제지공장이 설립되며 유럽에서 종이 생산이 본격화됨.
- 1391년 : 독일 뉘른베르크와 쾰른에 제지공장이 세워져 북유럽 지역으로 종이 생산이 확대됨.
- 1511년 : 영국에서 제지공장이 설립되어 유럽 전역으로 종이 생산 기술이 보급됨.
- 1690년 : 미국에 최초의 제지공장이 설립되며, 신대륙에서도 종이 산업이 시작됨.

3) 제지술의 전파 경로



4) 중국 종이에 대한 유럽의 반응

(1) 초기 반응 : 품질에 대한 평가

- 유럽에서는 처음 중국 종이를 접했을 때 이를 양피지에 비해 품질이 낮은 상품으로 인식했음.
- 양피지는 당시 유럽에서 주요 기록 매체로 사용되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필사와 보존에 적합했음.

- 반면, 중국 종이는 상대적으로 얇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았음.
- 이러한 인식 차이는 양피지가 고급 기록 매체로 자리 잡은 유럽의 문화적 배경과,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했던 동양의 제지 문화 차이에서 기인함.

(2)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종이 사용 금지

- 1221년,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종이 사용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음.
- 이는 종이가 양피지보다 열등한 품질을 가졌다는 유럽 내 부정적 인식과, 양피지를 제작하던 기존 산업 보호와도 관련이 있음.
- 당시 유럽에서 양피지는 종교 문서, 법률 기록, 학문적 자료 등에 사용되었으며, 종이는 이러한 고급 기록 매체와 비교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음.
- 이 칙령은 종이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나, 종이가 가진 경제성과 대량 생산 가능성은 곧 유럽에서도 인식되기 시작했음.

(3) 15세기의 변화 : 종이의 가격 하락

- 15세기경, 종이 제조 기술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중국 종이의 경제적 우위가 더욱 강조됨.
- 특히 기계식 초지기의 발명과 대량 생산 체계가 도입되면서 종이의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졌음.
- 15세기 말에는 종이의 가격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피지(皮紙)의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음.
- 이는 대량 인쇄와 문서 보급이 필요한 유럽 사회에서 종이가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4) 종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유럽의 수용

- 초기에는 품질의 열등함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종이가 점차 유럽에서 긍정적으로 재평가됨.
- 종이는 양피지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휴대와 사용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됨.
-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결합되면서 종이는 대량 출판과 지식 확산의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음.
- 유럽은 동양에서 전파된 제지 기술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종이 생산 산업을 확립함.
- 종이의 가격 하락은 대중적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등 유럽의 주요 역사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학습정리

1. 종이의 발명설

- 105년 설: 『후한서』에 따르면 채륄은 비단과 죽간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껍질, 폐포, 어망 등을 활용해 종이를 제작했으며, 이를 ‘채후지’로 불림
- 현대 해석에선 채륄이 발명자가 아니라 제지법을 체계화하고 대중화한 인물로 평가됨
- 기원전 2세기 설: 섬서성 파교지와 광주 남월왕묘 등에서 발견된 자료는 기원전부터 종지와 유사한 기록 매체가 존재했음을 보여줌
- 종이는 점차 기록 매체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원료와 기술 발전을 통해 실용성과 대중화가 이루어짐

2. 제지술의 전파

- 한국: 610년 담징이 일본에 종지와 먹 제작 기술을 전파했으며,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의 높은 제지 기술을 보여줌
- 서양: 제지술은 8세기 사라센 제국을 통해 서양으로 전파되었으며, 유럽에서 대량 생산 체계가 발전
- 프랑스와 독일에서 기계식 초지기와 목재 펄프 기술이 발명되며, 종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 종이는 경제성과 대중화의 장점으로 유럽의 지식 확산과 역사적 변화를 이끈 핵심 매체로 자리 잡음

3주차 1차시

■ 책의 기원

학습목표

1. 죽간과 목독의 정의를 파악하고 그 주요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2. 먹이 생산되기 이전, 이후 기록을 통해 간독이 필사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 '간독의 수정'의 의미를 정의하고 대표 사례를 기술할 수 있다.
4. 문헌에 자주 쓰이는 명칭의 유형(간(簡), 책(策), 부(簿), 부(符), 첩(牒), 독(牘), 찰(札), 판(版))을 파악할 수 있다.
5. '간독의 편철'의 의미를 정의하고 엮는 방법(횡연식, 중정식)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죽간목독, 간독의 필사
2. 간독의 명칭, 간독의 편철

핵심 keyword

- 살청
- 필삭
- 보첩

학습하기 1

죽간목독과 간독의 필사

1) 죽간목독

- 죽간과 목독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주요 기록 매체로, 이들을 합쳐 간독(簡牘), 목간(木簡), 죽독(竹牘), 죽목서(竹木書)로 불림.
- 죽간은 대나무 조각에 기록한 책임, 목독은 나무 조각에 기록한 책을 의미하며, 각각의 재료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랐음.
- 죽간목독은 초기 동아시아 문헌 기록의 형태를 대표하며, 이후 문서 형태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한 매체임.

2) 죽간(竹簡)

(1) 죽간의 규격

- 죽간은 용도에 따라 규격이 다양했음.
- 길이가 긴 죽간 : 폭 2cm, 길이 60cm로, 주로 책의 용도로 사용됨.
- 짧은 죽간 : 폭 1cm, 길이 12cm로 단문 기록이나 간단한 메시지 전달에 활용됨.
- 죽간의 규격은 기록 내용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는 당시 기록 문화의 세분화를 보여줌.

(2) 죽간의 제작 방법

- 죽간은 길고 얇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됨.
- 대나무의 마디를 잘라냄.
- 마디 사이의 부분을 세로로 쪼개어 필요한 크기로 나눔.
- 안쪽 면을 평평하게 깎아 기록이 가능하도록 함.
- 불에 구워 수분을 제거하여 재료의 강도를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함.
- 이 과정을 살청(燻靑), 한청(汗靑), 한간(汗簡)이라 불렀음.
- ‘살청’이라는 용어는 이후 ‘서적이나 원고를 수정하다’ 또는 ‘역사책’이라는 의미로 확장됨.

(3) 특성

- 죽간은 대나무 특유의 치밀하고 견고한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강했음.
- 중량이 가볍고 관리가 편리해 이동과 보관에 유리했으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기록 매체로 널리 사용됨.

3) 목독(木牘)

(1) 목독의 규격

- 목독은 사용 목적과 시대에 따라 길이가 달랐으며, 같은 시대에도 규격이 일정하지 않았음.
- 길이 45cm : 공문서 용도로 사용됨.
- 길이 30cm : 편지 용도로 사용됨.
- 길이 15cm : 신분증이나 소형 문서로 사용됨.
- 아직 가공하지 않은 나무 조각은 참(槧)이라 불렀음. 이는 목독 제작 과정의 초기 단계임을 나타냄.

(2) 목독의 제작 방법

- 목독은 나무 조각의 표면을 곱고 반드럽게 다듬어 기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함.
- 나무를 충분히 건조시켜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했으며, 이는 목독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이었음.

(3) 특성

- 목독은 대나무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됨.
- 나무는 재질이 물러 글씨가 번지는 단점이 있었으며, 중량이 무거워 휴대와 관리가 불편했음.
- 그러나 폭과 길이가 넓어 지도, 그림, 호적 등 대규모 정보를 기록하는 데 유리했음.
- 목독은 기록 매체로서 지역적, 용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됨.

4) 간독의 필사 과정

(1) 먹이 생산되기 이전 기록 : 칠서(漆書)

- 초기에는 먹이 발명되기 전, 칠(漆)을 이용하여 간독에 기록함.
- 『후한서』 두림전 : “칠서(漆書) 『고문상서(古文尙書)』 1권.”
- 『후한서』 유림전 : “칠서경자(漆書經字).”
- 칠서는 초기 문서 기록 방식으로, 묵서(墨書)가 등장하기 이전의 기록 방법을 보여줌.

(2) 먹이 생산된 이후 기록 : 묵서(墨書)

- 위진 시대에 묵환(墨丸)이 생산되며, 먹을 활용한 묵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한시외전』 : “주사가 붓에 먹을 문혀 목독을 잡았다.”
- 『논형』 양지편 : “대를 베어 통으로 하고 이를 쪼개 첵(牒)을 만들어 붓에 먹칠하여 글씨를 써서 문자를 이루었다.”
- 묵서는 간독의 기록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 작성 과정을 단순화하는 데 기여했음.

(3) 간독의 수정

- 간독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칼로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쓰는 방식이 사용됨.
- 『사기』「공자세가」 : “필즉필, 삭즉삭(筆則筆, 削則削)”
- 이는 오늘날 필삭(筆削)이라는 말의 기원으로, 기록의 수정 과정에서 유래한 표현임.
- 이러한 수정 방식은 간독이 기록 매체로서 얼마나 유연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5) 죽간목독과 간독의 의의

- 죽간과 목독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기록 매체로 사용된 대표적 예로, 당시 기술과 문화적 요구를 반영함.
- 죽간의 경제성과 목독의 실용성은 각각 다른 환경과 목적에 적합한 기록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문헌 기록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필사와 수정 과정을 통해 문서의 정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했으며, 이는 현대 기록 매체의 기초를 마련한 문화적 유산으로 평가됨.

학습하기 2

간독의 명칭, 간독의 편철

1) 간독의 명칭

- 간독은 그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각각의 명칭은 사용 목적과 기록 방식, 재료적 특징 등을 반영함.
-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명칭으로는 간(簡), 책(策), 부(簿), 부(符), 첩(牒), 독(牘), 찰(札), 판(版) 등이 있음.
- 이 명칭들은 각각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며, 고대 문서 체계와 기록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1) 간(簡)

- 간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어 만든 날개의 조각으로, 기록 매체로 널리 사용되었음.
- ‘간(簡)’의 명칭 사용 : ‘간(簡)’은 때로 ‘책(冊)’ 또는 ‘간책(簡策)’과 혼용되어 사용되었음.
- 기록 방식 : 한 행의 문자를 하나의 대나무 조각에 썼기 때문에, 간은 짧고 간결한 기록에 적합했음.
- 간은 기록의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여러 간을 묶어 책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음.

(2) 책(策)

- 책은 여러 간(簡)을 연결하여 엮은 형태로, 오늘날의 책과 유사한 구조를 지님.
- 명칭의 의미 : ‘책(冊)’은 본래 ‘간(簡)’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여러 간을 이어 엮은 것을 주로 지칭함.
- 문헌적 사용 : 『좌전서소(左傳序疏)』에서는 “한 묶음을 ‘간(簡)’이라 하고, 여러 개의 간을 연결한 것을 ‘책(策)’이라 한다”고 기록함.
- 혼용된 명칭 : 죽간과 목독 모두를 통틀어 ‘간책(簡冊)’ 또는 ‘책간(策簡)’이라 부르기도 함.
- 책은 기록 매체로서 간단한 내용부터 복잡한 문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가짐.

(3) 부(簿)

- 부는 계산이나 기록에 사용된 명칭으로, 오늘날의 장부(帳簿)나 치부(置簿)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됨.
- 적(籍)과의 관계 : ‘부’는 때로 적(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세금 기록이나 인구 조사 등의 문서에 활용됨.
- 부는 주로 관료적 또는 경제적 용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

(4) 부(符)

- 부는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관직의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된 증표로,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졌음.
- 예 : 병부(兵符)는 군대의 지휘권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통부(通符)는 관문을 통과하는 허가증 역할을 했음.
- 부는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신뢰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였음.

(5) 첩(牒)

- 첩은 관청 간 문서를 전달하거나 계보를 기록할 때 사용된 명칭임.
- 예 : 보첩(譜牒)은 족보를 기록한 문서, 이첩(移牒)은 공문서의 전달에 사용되었음.
- 첩은 공공문서로서 행정적 소통과 기록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음.

(6) 독(牘)

- 독은 공적인 편지나 사적인 문서에 사용된 명칭임.
- 예 : 간독(簡牘)은 공식 문서로, 척독(尺牘)은 개인적인 서신으로 사용되었음.
- 중국 한나라의 사례 : 조서용(詔書用) 함독의 길이는 1자 1척이었고, 일반용 함독은 1자였음.
- 독은 문서 기록의 폭넓은 활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개인과 국가 간 소통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

(7) 찰(札)

- 찰은 나무를 얇게 쪼개 작게 잘라 기록한 표식을 말함.
- 후대에는 재료를 따지지 않고 작고 얇은 형태로 만든 기록 매체를 모두 ‘찰’이라 불렀음.
- 예 : 명찰(名札)은 이름을 기록한 표, 개찰(改札)은 수정 기록, 감찰(鑑札)은 감찰증서로 사용됨.
- 찰은 후대가 간편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에 유용했음.

(8) 판(版)

- 판은 네모난 판을 의미하며, 주로 문서나 그림을 새기는 데 사용됨.
- 종류 : 책판(冊版)은 책의 내용을 새긴 목판, 경판(經版)은 불경을 새긴 판, 도판(圖版)은 그림을 새긴 판임.
- 응용 : 판에서 찍어낸 책은 ‘판본(版本)’, 판에서 제작한 그림은 ‘판화(版畵)’로 불렸음.
- 판은 대량 생산과 복제가 가능해 출판 문화와 시각 예술의 발전에 기여했음.

2) 간독의 편철 방식

(1) 기본 구조

- 간독은 여러 개의 간을 연결하여 편철한 형태에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구조를 본떠 오늘날의 책(冊)이 만들어짐.
- 끈으로 엮음 : 간독을 끈으로 엮어 연결한 것은 ‘일편(一編)’이라 불렸음.
- 비단으로 엮음 : 건편(絹編)이라고 하며, 고급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됨.
- 가죽으로 엮음 : 위편(韋編)이라 불렸으며, 내구성이 높은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됨.
- 위편을 자주 열어 읽다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삼절(韋編三絕)’의 고사가 여기에서 유래함.

(2) 횡연식(橫連式)

- 횡연식은 작은 간독을 엮는 데 사용된 방식임.
- 방법 : 대나무 발처럼 위아래를 옆으로 잇달아 끈으로 엮는 구조임.
- 특징 : 간단하고 후대가 용이하며, 짧은 문장을 기록하기 적합했음.

(3) 중적식(重積式)

- 중적식은 폭이 넓고 큰 목독을 엮는 방식임.
- 방법 : 목독의 위쪽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꿰뚫어 여러 장을 거듭 쌓아 올린 상태로 엮음.
- 특징 : 기록 면적이 넓고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합했음.

3) 간독의 의의

- 간독은 다양한 용도와 형태로 고대 문헌 기록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현대 문서와 책의 기원으로 평가됨.
- 명칭과 편철 방식은 기록 매체로서 간독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보여줌.
- 이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기록 문화와 기술적 발전 단계를 이해할 수 있음.

학습정리

1. 죽간목독, 간독의 필사

- 죽간목독: 죽간(대나무)과 목독(나무)은 고대 동아시아의 주요 기록 매체로, 각각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춘
- 죽간: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이동과 보관이 편리했으며, 기록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됨
- 목독: 폭이 넓어 대규모 정보 기록에 적합했으나, 무겁고 글씨 번짐 등의 단점이 있었음
- 간독의 필사: 먹 사용 전에는 칠서(漆書), 이후 묵서(墨書)가 등장해 기록 효율성을 높였으며, 수정 과정에서 칼로 깎아내는 방식이 활용됨
- 죽간목독은 문헌 기록과 발전에 기여하며 현대 기록 매체의 기초를 마련함

2. 간독의 명칭, 간독의 편철

- 간독의 명칭: 용도와 형태에 따라 간, 책, 부, 첩, 독, 찰, 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 간: 대나무 조각, 책: 여러 간을 연결한 형태, 부: 장부나 세금 기록, 첩: 공문서, 판: 대량 복제 가능한 문서 제작 용도로 사용됨
- 간독의 편철: 횡연식(작은 간독)과 중적식(큰 목독) 방식으로 엮어 기록 매체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확보함
- 간독은 고대 동아시아 기록 문화의 핵심으로, 현대 문서 형태와 책의 기원으로 평가됨

3주차 2차시

■ 책의 명칭

학습목표

1. 책(冊)의 개념을 정의하고 권(卷)과 책(冊)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2. 전(典)의 개념을 정의하고 용어로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서(書)의 개념을 정의하고 용어로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4. 본(本)의 개념을 정의하고 용어로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시대별(고구려, 고려, 조선) 기록에 따른 서적(書籍)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6. 맹자, 고려사 등의 기록에 따른 전적(典籍)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7. 문헌 기록을 통해 도서(圖書) 용어의 유래를 알고 서책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8. 문헌(文獻)의 개념을 알고 용어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책, 전, 서, 본
2. 서적, 전적, 도서, 문헌

핵심 keyword

- 책력
- 방책
- 포쇄

학습하기 1

책(冊), 전(典), 서(書), 본(本)

1) 책(冊)

(1) 책의 기원과 의미

- ‘책(冊)’은 여러 간독(簡牘)을 끈으로 엮어 만든 책(策)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임.
- 간독이 대나무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기록 매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책은 간독을 편철하여 단위화한 기록 매체로 발전했음.
- 책은 간독을 묶어 구조화한 형태로, 문헌 기록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

(2) 책의 용어적 확장

- 책(冊)은 서책의 물리적 형태와 그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를 포함하는 명칭임.
- 예를 들어, 책은 단순히 문서를 담는 그릇의 의미를 넘어, 서적 자체를 지칭하거나 권수(卷數)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됨.
- 이는 기록 매체로서 책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과 학문적 의미를 동시에 반영한 사례임.

(3) 우리나라 서책의 범칭

- 책(冊)은 한국 전통에서 서적을 총칭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명칭임.
- 예를 들어, 고문헌에서 ‘책’은 단순히 문서를 넘어 학문적 지식의 축적과 전달을 상징하는 도구로 여겨졌음.
- 이는 한국의 문헌 기록 문화가 책을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4) 책을 쓴 용어

- 책(冊)은 다양한 형태의 서적이나 문헌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됨.
- 예) 책자(冊子), 책력(冊曆), 책판(冊板), 간책(簡冊), 죽책(竹冊), 방책(方冊), 보책(譜冊) 등이 있음.
- 이 용어들은 책의 다양한 용도와 제작 방식을 반영하며, 각각의 명칭은 특정한 목적과 문맥에서 사용됨.

(5) 권(卷)과 책(冊)의 구별

- 권(卷)과 책(冊)은 서지학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됨.
- 권(卷) : 서지적인 책차(冊次)를 나타내며, 이는 고정된 순서를 뜻함. 예를 들어, 한 문헌이 10권으로 나뉘어 있다면 이는 불가변적인 속성을 가짐.
- 책(冊) : 물리적인 책차를 나타내며, 이는 가변성을 지님. 예를 들어, 10권이 10책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10권이 5책으로 나뉘어 제작될 수도 있음.
- 권과 책의 구별은 문헌 제작과 분류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임.

2) 전(典)

(1) 전의 기원과 의미

- ‘전(典)’은 책상 위에 책을 소중히 올려놓은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상징함.
- 이는 고대에 책이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신성한 지식과 학문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나타냄.

(2) 책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전

- 전은 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학문적이거나 경전적인 성격의 문헌을 의미함.
- 이는 책이 단순히 기록물을 담는 매체가 아니라,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핵심 도구로 여겨졌음을

반영함.

(3) 전을 쓴 용어

- 전(典)은 학문적, 종교적, 역사적 문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됨.
- 예) 전적(典籍), 전책(典冊), 원전(原典), 고전(古典), 경전(經典), 불전(佛典), 성전(聖典) 등이 있음.
- 이 용어들은 전통적인 문헌 체계와 경전 중심의 학문적 전통을 반영함.

3) 서(書)

(1) 서의 기원과 의미

- 서(書)는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기록 행위를 상징함.
- 이는 글을 쓰는 행위와 책의 제작이 기록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줌.

(2) 책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서

- 서는 책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 중 하나로, 문헌의 범칭으로 널리 사용됨.
- 중국에서는 서를 모든 형태의 서책을 지칭하는 범칭으로 사용하며, 이는 기록의 총체성을 반영함.

(3) 서를 쓴 용어

- 서(書)는 다양한 문헌과 서적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됨.
- 예) 서적(書籍), 서책(書冊), 서첩(書帖), 서권(書卷), 죽서(竹書), 간서(簡書), 지서(紙書), 경서(經書), 불서(佛書), 유서(儒書), 동서(東書), 사서(史書), 양서(洋書), 고서(古書) 등이 있음.
- 이 용어들은 서가 지닌 다양성과 기록 매체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4) 본(本)

(1) 본의 의미와 역할

- 본(本)은 책을 뜻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일본에서는 서책의 범칭으로 사용됨.
-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정 도서를 표현하는 합성어로 사용됨.
- 이는 본이 기록 매체의 원형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2) 본을 쓴 용어

- 본은 특정 도서의 출처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됨.
- 예) 고려본(高麗本), 조선본(朝鮮本), 목판본(木板本), 활자본(活字本), 귀중본(貴重本), 수진본(手珍本), 초간본(初刊本) 등이 있음.
- 이 용어들은 문헌의 원본성과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며, 기록 매체로서 본이 가진 중요성을 나타냄.

학습하기 2

서적(書籍), 전적(典籍), 도서(圖書), 문헌(文獻)

1) 서적(書籍)

- 서적은 우리나라 각 역조에서 책을 뜻하는 범칭으로 사용된 용어임.
-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적은 기록과 지식의 전달 도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각 시대의 문화와 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서적은 단순히 지식을 기록하는 매체를 넘어, 학문적 연구와 문화 전승의 기초로 자리 잡았음.

(1) 고구려의 서적

- 『구당서(舊唐書)』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고구려는 서적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심지어 문지기와 말 먹이는 하층민의 집까지 서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
- 고구려는 각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經堂)이라 부르고, 자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경당에서 서적을 읽고 활쏘기를 연습하도록 함.
- 이는 고구려가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중시했으며, 서적이 학문적 수양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방위에 기여했음을 보여줌.

(2) 고려의 서적

- 고려 시대에는 서적의 간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했으며, 이는 당시 서적이 학문적, 행정적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시사함.
- 예) 서적점(書籍店), 서적포(書籍鋪), 서적원(書籍院).
- 이러한 기관은 서적의 생산과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학문적 발전과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음.

(3) 조선의 서적

① 세조 때 양성지의 서적십사(書籍十事)

- 양성지는 서적 정책에 대한 10가지 제안을 통해, 사서(史書)와 문적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자고 주장함.
- 특히 중요한 문헌은 사고(史庫)에 보관해야 한다고 건의하며, 서적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함.

② 『규장각지』와 『홍문관지』의 기록

- 규장각과 홍문관은 서적의 장서(藏書), 편서(編書), 진서(進書), 포쇄(曝曬) 등 서적의 관리와 운영을 다룸.
- 이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서적이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학문적 연구와 행정적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전적(典籍)

- 전적은 서적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용어로, 주로 품위 있고 귀중한 옛 서적을 지칭함.
- 전적은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과 보존 상태를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하며, 동서양의 학문적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1) 전적의 의미와 동의어

- 전적은 능률하고 품위 있는 서적을 뜻하며, 동의어로 전책(典冊), 전서(典書), 전지(典志), 전전(典傳) 등이 있음.

- 이 용어들은 서적의 학문적,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전적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문화적 유산으로 여겨졌음을 나타냄.

(2) 전적의 기록 사례

- ① 『맹자(孟子)』 고자(告子) 장구 하(下) : “제후의 땅은 사방 백리가 되어야 하니, 부족하면 종묘의 전적(典籍)을 지키기 어렵다.”
- 이는 전적이 단순한 문헌이 아니라 국가와 종묘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임을 보여줌.
- ② 『고려사』 성종 9년 12월 무신 조 : “사부(四部), 즉 경사자집(經史子集) 전반에 걸쳐 전적(典籍)을 수집하여...”
- 이는 고려 시대에도 전적이 학문적, 행정적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증명함.

(3) 현대의 전적 의미

- 현대에 와서 전적은 성스러운 서적에서 일반 고전을 뜻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됨.
- 이는 전적이 동서양 학문에서 보편적인 학문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3) 도서(圖書)

- 도서는 책을 뜻하는 용어로, 그림과 글이 함께 포함된 기록물을 의미하며, 책의 개념과 확장성을 반영함.

(1) 도서의 용어 유래

- 도서의 유래는 하출도(河出圖) 낙출서(洛出書)에서 비롯됨.
- 하도(河圖) : 주역의 팔괘를 만드는 원리로, 형상을 그린 그림을 의미함.
- 낙서(洛書) :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인 홍범구주(弘範九疇)를 만드는 근본으로, 글자로 표현된 기록임.
- 이는 도서가 단순한 책을 넘어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는 기록 매체였음을 보여줌.

(2) 서책과의 차별성

- 『인문고략』에 따르면, 도서는 옛사람이 그림(圖畫)과 서적에 인장을 찍어 기록을 보존한 데서 유래함.
- 관인은 인(印), 사인은 도서(圖書)로 구분하여 공적, 사적 기록을 구별했음.
- 이는 도서가 책의 범주를 넘어 더 넓은 기록 매체를 포함했음을 의미함.

(3) 현대 도서의 범칭

- 1906년 광무 10년, 대한도서관의 창립과 함께 도서관(圖書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도서는 책을 대표하는 범칭으로 자리 잡음.
-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서는 책을 총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됨.

4) 문헌(文獻)

- 문헌은 문서와 책을 포함한 기록물로, 현대에는 전자 자료와 시청각 자료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확장됨.

(1) 문헌의 어원

- 문(文) : 서적 또는 전적을 의미하며, 『논어』 학이편에서는 문물제도를 담은 서적을 지칭함.
- 헌(獻) : 『논어』 팔일편에서는 현인(賢人)을 의미하며, 지식과 덕을 상징함.

(2) 문헌의 주요 사례

- ① 『문헌통고(文獻通考)』 : 원나라 마단임이 고대부터 송나라까지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책임.
- ②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홍봉한이 한국의 전통 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사전.
- ③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1908년 박용대가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한 책으로, 조선의 전통문화 백과사전.
- ④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 김휴가 신라부터 조선 인조 때까지 약 670여 종의 도서와 해제를 수록한 서지 문헌 목록.

(3) 현대의 문헌 의미

- 문헌은 단순히 글이나 그림을 담은 책자뿐 아니라, 문서류, 인쇄물, 전자 자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됨.
- 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문헌이 지식 전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학습정리**1. 책, 전, 서, 본**

- 책(冊): 간독을 끈으로 엮은 형태에서 유래한 기록 매체로, 서책의 물리적 형태와 권수 단위를 나타냄
- 전(典): 경전이나 학문적 문헌을 상징하며,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를 내포함
- 서(書): 글을 쓰는 행위를 상징하며, 문헌과 서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본(本): 특정 도서의 원본성과 역사적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목판본, 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각 용어는 기록 매체와 학문적 전통의 발전을 반영하며, 현대적 서지학의 기초를 제공함

2. 서적, 전적, 도서, 문헌

- 서적: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식 전달의 도구로, 문화와 학문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전적: 학문적, 역사적 가치를 가진 품위 있는 서적을 지칭하며, 문화적 유산으로 평가됨
- 도서: 그림과 글을 포함한 기록물을 의미하며, 책의 확장성을 반영함
- 문헌: 문서와 책을 포함한 기록물로, 현대에는 전자 자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됨
- 각 용어는 동서양 기록 문화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임

4주차 1차시

■ 도서의 장정

학습목표

1. 장정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변천과정 파악할 수 있다.
2. 권축장, 선풍엽, 절첩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장정의 제작방법을 통해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3. 권축장, 선풍엽, 절첩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 장정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장정의 종류와 변천과정
2. 각 장정의 장점과 단점

핵심 keyword

- 장정
- 용린장
- 이배장

학습하기 1

장정의 종류와 변천과정

※ 장정의 종류와 변천과정

- 권축장 → 선풍엽 → 절첩장 → 호접장 → 포배장 → 선장으로 발전됨

1) 권축장(卷軸裝)

(1) 동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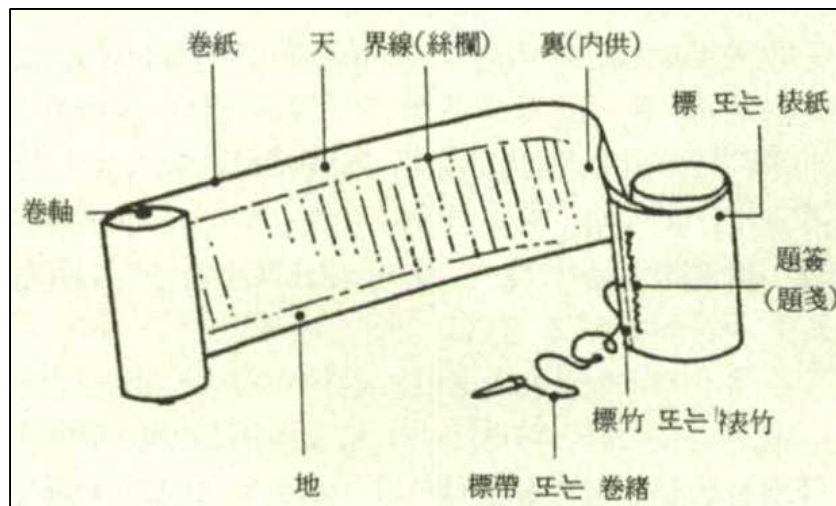
- 권축장은 권자장(卷子裝), 권자본(卷子本), 두루마리라고도 불림.
- 권자장은 좁고 긴 형태의 비단에 내용을 필사하거나 인쇄하여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을 말함.
- 이 형태는 기록물을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할 때 펼쳐 읽기 쉽게 고안된 형태임.
- 권축장의 형태는 비단에 필사하거나 인쇄한 내용을 좁고 길게 이어 붙여 제작됨.

(2) 만드는 방법

- 권축장은 인쇄하거나 필사한 비단이나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필요한 만큼 이어 붙여 제작함.
- 책의 한쪽 끝에는 둥근 축을 달고, 다른 끝에는 대나무로 만든 가는 심(죽심, 竹心)을 부착하여 말아 보관함.
- 책가위로 끝을 덮어 보호하고, 중앙에 책 끈을 묶어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함.

(3) 사용한 시기

- 권축장은 중국에서는 북송 초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까지 널리 사용됨.
-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은 권축장의 대표적인 예로, 동아시아에서 초기 장정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임.



2) 선풍엽(旋風葉)

(1) 동의어

- 선풍엽은 권축장과 비슷한 형태로, 권자를 펼쳤을 때 마치 용의 비늘처럼 보인다고 하여 용린장(龍鱗裝)이라고도 불림.
- 권자를 말 때의 모양이 회오리바람처럼 보인다고 하여 선풍장(旋風裝)이라고도 불림.

- 권자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유래하여 선풍권자(旋風卷子)라는 이름으로도 불림.
- 선풍엽은 권축장의 변형된 형태로, 기록물을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기술적 발전을 보여줌.

(2) 만드는 방법

- 선풍엽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의 『귀전록(歸田錄)』에 제작 방법이 기록되어 있음.
- 두터운 긴 표지 위에 양면으로 필사한 엽자(葉子)를 비스듬히 배치하여 제작함.
- 오른쪽의 공백 부분에 한 장씩 왼쪽 방향으로 이어 붙여, 펼쳤을 때 글자의 배열이 용의 비늘처럼 보이도록 만듦.
- 이러한 제작 방식은 장정의 형태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하며, 당시 기록물의 보존과 사용 편의를 높였음.

(3) 사용한 시기

- 선풍엽은 주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음.
- 북경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간류보결절운(刊謬補缺切韻)』은 당나라 때 제작된 선풍엽의 대표적인 예로, 장정의 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 이 장정 방식은 권축장보다 발전된 형태로, 당대의 문화적, 학문적 요구를 충족하며 널리 사용됨.



3) 절첩장(折帖裝)

(1) 동의어

- 절첩장은 책의 형태를 병풍처럼 접어 만든 장정 방식으로, 첩장(帖裝), 접책(摺冊), 경첩장(經摺裝), 경절장(經折裝), 범협장(帆葉裝) 등으로 불림.
- 특히 경첩장과 범협장은 불교 경전 제작에서 비롯된 용어임.
- 이는 절첩장이 불교 문헌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종교적 기록물을 간편하게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줌.

(2) 만드는 방법

- 절첩장은 인쇄하거나 필사한 종이를 권축장처럼 순서대로 연결한 다음, 병풍처럼 좌우로 지그재그로 접는 방식으로 제작됨.
- 장방형 구조 : 접힌 책장은 일정한 크기의 장방형 형태를 유지하며, 사용자가 펼쳐보기에 용이함.
- 표지 제작 : 앞뒤 표지에는 두터운 장지를 사용하거나, 장지에 다양한 색깔의 비단 천으로 표구하여 장식함.
- 간혹 얇은 나무판(송판)으로 표지를 제작해 내구성을 강화하기도 했음.

(3) 사용한 시기

- 절첩장은 중국 당나라 말기에 시작되어 송나라와 원나라에 걸쳐 발전함.

- 대표적인 절첩장 장정으로는 『송령만수장(崇寧萬壽藏)』, 『송령장(崇寧藏)』, 『보령장(普寧藏)』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불경과 사경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탁본과 법첩 제작에 활용됨.



4) 호접장(蝴蝶裝)

(1) 동의어

- 호접장은 책장을 펼쳤을 때 모양이 나비의 날개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 호장본(蝴蝶裝本), 접엽본(粘葉本), 이배장(裏背裝) 등으로도 불림.
- 접엽본은 책장을 풀로 붙여 제작한 방식에서 비롯된 이름이며, 이배장은 책장의 뒷면과 표지 안쪽을 풀로 붙이는 방식에서 유래함.

(2) 만드는 방법

- 호접장은 인쇄하거나 필사한 날장을 본문이 마주 보도록 가운데를 반으로 접는 방식으로 제작됨.
- 접기와 붙이기 : 반으로 접은 책장의 판심 뒷면에 풀을 칠하여 모든 책장을 이어 붙임.
- 표지 제작 : 하나의 표지를 마련하여 책장을 반으로 꺾은 후 안쪽에 풀로 붙여 완성함.
- 이러한 방식은 단단한 구조를 유지하며, 책장을 보호하고 장시간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함.

(3) 사용된 시기와 사례

- 호접장은 중국 송나라 때부터 보급되었으며, 이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됨.
- 대표적인 예로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화엄경』 1책과, 경주 기림사에서 발견된 1370년(공민왕 19)의 『수능엄경』 2책이 있음.
- 직사각형의 판형은 현대 서적의 기본적인 판형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동아시아 서적 제작의 전환점이 되었음.



5) 포배장(包背裝)

(1) 만드는 방법

- 포배장은 호접장과 반대로 책장을 접어 본문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제작함.
- 접기와 정렬 : 인쇄하거나 필사한 면의 글자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접은 후, 판심 중앙을 접어 가지런히 정렬함.
- 책장 고정 : 절단면 가까운 양끝에 송곳으로 두 개의 구멍을 뚫고, 종이로 비벼 만든 종이끈을 끼워 고정함.
- 책 표지 제작 : 책 윗면, 책등, 아랫면을 덮어 쌀 수 있는 두꺼운 표지를 만들어 마무리함.
- 이러한 방식은 내구성을 높이고, 단단한 구조로 책의 보존성을 강화함.

(2) 사용한 시기

- 포배장은 원나라 때 보급되어 명나라 중엽까지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불경에서 포배장이 자주 나타남.
- 포배장은 현대의 paper bound와 유사한 형태로, 책의 이동성과 보관의 용이성을 동시에 만족시켰음.



6) 선장(線裝)

- 선장은 제본 과정에서 지념(紙捻)이라는 종이로 만든 끈을 사용하여 본문을 꿰매는 방식으로 제작됨.
- 이 과정은 포배장(包背裝) 방식과 유사하며, 지념은 본문의 종이를 단단히 고정하여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선장의 표지는 책의 앞뒤에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된 두 장의 표지를 포함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황지홍사(黃紙紅絲)를 사용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을 채택함
- 황지홍사는 치자 물로 염색한 황색 종지와 붉은 실을 사용하는 방식, 오침안정법은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는 방식
- 선장의 마지막 단계는 장황(裝潢) 작업으로, 표지와 서뇌 부분을 꿰매어 책을 완성하는 작업을 의미함
- 이를 수행하는 장인을 장황공(裝潢工)이라 하며, 표지 제작부터 제본 마감까지 정교한 기술이 요구됨

(1) 만드는 방법

※ 표지 만들기

- ① 책의 표지는 내지보다 3~5배 두꺼운 종지로 제작하며,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쳐 덧붙여 만듦
- ② 덧붙인 종이에 치자 물을 발라 노랗게 염색하여 쯔름 방지하고 표지의 외관을 아름답게 장식함
- ③ 치자 물 염색 후, 공을 곱게 갈아 쯔름을 만들어 표지 전체에 골고루 바름
- ④ 바른 후 충분히 말리면 튼튼하고 질긴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지가 완성됨
- ⑤ 완성된 장지는 일반적으로 큰 전지 크기로 제작되며, 책의 판형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재단함

⑥ 재단된 장지는 능화판(菱花版)이라 불리는 책표지 문양판을 사용해 문양을 새김

- 문양을 새기기 전, 장지에 약간의 수분을 포함시키면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
- 문양판에는 밀랍을 발라 내구성을 높이고, 해충을 방지하며 문양의 디테일을 강화함
- 문양 작업은 단순한 장식뿐 아니라, 표지를 단단히 압착하여 책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는 역할도 함

⑦ 문양이 새겨진 표지 안쪽에는 배접지와 면지를 붙여 완성

- 배접지: 표지 안쪽에 덧붙여 두텁고 튼튼하게 만든 종이로, 표지의 내구성을 강화함
- 면지: 백지를 접어 표지 안쪽에 부착하여 표지와 내지를 부드럽게 연결함

※ 책지 몸통 꿰매기(제본하기)

① 필사 또는 인쇄된 본문의 종이를 지념(紙捻)이라 불리는 종으로 만든 끈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함

- 지념의 양쪽 끝을 잘라내고 풀을 발라 종이에 접착한 후, 나무방망이로 눌러 고정함

② 완성된 본문과 표지를 실로 꿰매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음

- 사용되는 실은 베실, 비단실, 목실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실은 고유한 장점과 용도를 가짐

- 예를 들어, 명주실은 밀랍 처리를 통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실이 쉽게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함
-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는 오침안정법(오침안법, 오침철장법, 오공찬정법)을 주로 사용함

-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4개의 구멍을 뚫는 사침안정법이나 6개의 구멍을 사용하는 육침안정법을 채택함
- 우리나라에서 사침안을 사용한 사례로는 차천로의 『오산집(五山集)』이 있음
- 『오산집』은 용지, 인쇄 방식, 서체 등을 중국과 일본의 방식을 모방하여 제작된 책임
- 일본에서 간행된 퇴계의 저서들은 오침안 방식으로 제본되었음
-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본 방식을 채택한 사례로, 오침안정법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았음을 보여줌



(2) 사용한 시기

- 선장은 중국 송나라에서 시작되어 청나라 때 가장 성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 이후 구한말까지 널리 사용됨.
- 한국, 일본, 중국의 고서 대부분이 선장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서적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

학습하기 2

각 장정의 장점과 단점

1) 권축장(卷軸裝)

(1) 장점

- 권축장은 서사(書寫)와 전열(展閱)이 매우 용이한 구조를 가짐.
- 책을 펼칠 때 필요한 부분만 펼치거나, 읽고 난 뒤 쉽게 다시 말아 보관할 수 있음.
- 이는 독자가 문서를 간편하게 펼치고 닫을 수 있도록 한 초기의 유용한 형태임.
- 휴대성과 보존 측면에서도 편리한 장점이 있음.
- 권축장은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되어 부피를 최소화하며, 이동이 쉽고 보관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책을 둥글게 감아 보관하면 외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존이 용이함.

(2) 단점

- 권축장은 책을 감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적인 동작이 번거로움.
- 특히, 두루마리 형태를 풀고 감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낮음.
- 책의 가운데 부분이나 끝부분을 수시로 볼 때 매우 불편함.
- 원하는 위치를 찾으려면 전체를 펼치거나 감아야 하므로, 특정 내용을 자주 참고해야 하는 문서에는 적합하지 않음.
- 이 점은 후대 장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음.

2) 선풍엽(旋風葉)

(1) 장점

- 선풍엽은 권축장의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한 형태로, 신속하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책을 펼칠 때 필요한 부분만 엽자를 한 장씩 넘기며 읽을 수 있어 효율적임.
- 이는 권축장에 비해 사용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구조임.
- 책 제작 과정에서도 실용성이 높음.
- 선풍엽은 양면에 필사할 수 있어, 권축장보다 기록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기록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장점으로 평가됨.

(2) 단점

- 책을 덮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형태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책장을 펼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접히지 않으면, 내용이 왜곡되거나 기록물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권축장의 모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선풍엽은 권축장의 장점을 일부 개선했지만, 본질적으로 권축장의 연장선에 있는 형태임.

3) 절첩장(折帖裝)

(1) 장점

- 절첩장은 책을 읽을 때 매우 간편함.
- 한 장씩 넘겨가며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킴.
- 병풍처럼 접힌 구조 덕분에 책의 본문 어느 곳이라도 쉽게 펼쳐 볼 수 있어 독서와 학습에 유리함.
- 사용 후에는 접어서 원래 상태로 쉽게 보관할 수 있음.
- 이는 보관과 사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책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함.

(2) 단점

- 접힌 책장의 상단과 하단에 분리된 표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인해 내구성이 낮음.
- 접힌 부분이 손상되기 쉬우며, 반복적인 사용으로 접힌 부분에 파손과 탈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는 절첩장이 장기간 사용되기 어려운 단점으로 작용함.

4) 호접장(蝴蝶裝)

(1) 장점

- 호접장은 장책(裝冊)이 간편한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과 보관이 용이함.
- 책의 세 면에 넉넉한 여백을 두어, 입구 쪽이 손상되더라도 본문에는 영향을 덜 미침.
- 이는 문서의 보존성을 높이는 중요한 특징임.

(2) 단점

- 오랜 사용 중에 책장이 떨어지거나 풀로 붙인 부분이 찢어져 탈장이 생길 위험이 있음.
- 특히 판심 부분의 손상이 잦아 기록물을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존재함.
- 한 장을 넘기고 나면 두 면의 여백이 나타나며, 이는 독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단점은 호접장이 장기간 사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5) 포배장(包背裝)

(1) 장점

- 포배장은 구조적으로 책장이 잘 떨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제작됨.
- 내철 방식으로 책장을 단단히 고정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반복적인 사용에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음.
- 판심 부분의 글자가 손상되지 않아 내용의 온전한 보존이 가능함.
- 이는 장기적으로 책의 원형과 내용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단점

- 장기간 사용하면 표지가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책의 보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6) 선장(線裝)

- 선장은 포배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장정 방식으로, 장정 형태 중 가장 튼튼한 구조를 가짐.
- 책장을 꿰매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기적인 사용에도 견딜 수 있음.
- 선장은 동아시아 서적 문화의 대표적인 장정 방식으로,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음.
- 책의 형태를 단단히 고정하면서도, 외관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겸비한 구조로 발전했음.

학습정리

1. 장정의 종류와 변천과정

- 장정 방식은 초기의 권축장에서 시작하여, 선풍엽, 절첩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으로 발전하였음
- 권축장은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과 휴대가 편리했으나, 내용 접근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음
- 선풍엽은 권축장을 보완한 형태로, 책장을 개별적으로 넘길 수 있어 효율적이었으나 형태 유지가 어려웠음
- 절첩장은 병풍처럼 접는 방식으로 독서와 보관이 편리했으나 접힌 부분이 손상되기 쉬웠음
- 선장은 오침안정법을 적용해 내구성과 보존성을 강화한 형태로, 동아시아 전통 서적 문화의 정점을 이룸

2. 각 장정의 장점과 단점

- 권축장은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하나, 특정 내용을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음
- 선풍엽은 기록 면적 활용이 뛰어났으나, 형태 유지가 어려웠음
- 절첩장은 펼치기와 접기가 간편하여 독서에 유리했으나, 접힌 부분의 손상이 잦았음
- 호접장은 보관과 사용이 간편했으나, 풀로 붙인 부분이 떨어지기 쉬웠음
- 포배장은 내구성이 높고 보존성이 뛰어났으나, 표지의 손상이 빈번함
- 선장은 내구성과 외관 모두에서 뛰어나며, 현대까지 널리 사용됨

4주차 2차시

■ 도서의 형식

학습목표

1. 동장본의 각 구성요소별(표지, 면지, 표제지, 권수도, 진전문, 서문, 목차, 범례, 장서인) 기능을 서술할 수 있다.
2. 동장본의 구성요소별 기재 내용을 알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3. 양장본의 외부요소인 표지의 기능을 기술할 수 있다.
4. 양장본의 내부요소별(표제 및 약표제, 도판, 저작권 및 간기, 서문 및 헌사, 목차, 일러두기, 권말) 기능을 알고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동장본
2. 양장본

핵심 keyword

- 표제(表題)
- 표제(標題)
- 책차

학습하기 1

동장본

1) 표지

- 표지는 책을 보호하고, 책의 정보를 표시하며, 외관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임.
- 표지는 단순히 책의 외부를 덮는 역할을 넘어, 책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내용 보존을 돕는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해 왔음.

(1) 표지의 기능

- 보호 기능 : 표지는 책의 본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훼손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함. 특히 먼지, 습기,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본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구별 기능 : 표지에는 제명(題名), 책차(冊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책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 동일한 시리즈나 여러 권으로 구성된 책은 표지 정보를 통해 정확히 구별 가능함.
- 장식 기능 : 표지에 다양한 문양과 색깔을 넣어 책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밈. 고서에서는 표지에 세밀한 문양을 새기거나 비단으로 표구하여, 장식적 가치와 함께 권위를 높이는 데 활용됨.

(2) 표지의 기재 내용

① 제명(題名) : 책 제목을 나타내며, 표제(表題)와 제첨(題簽) 두 가지 형태로 기재됨.

- 표제 : 표지 자체에 직접 기재된 책 제목임.
- 제첨 : 별도의 종이나 비단에 책 제목을 써서 표지 위에 부착한 것임. 제첨은 고급 문헌이나 왕실 도서관에서 자주 사용되었음.

② 책 차(冊次) : 책이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권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식임. 다양한 방식으로 책차를 구분함.

- 1책(단책본) : 단(單), 완(完, 전(全))
- 2책 : 건곤(乾坤), 상하(上下)
- 3책 : 천지인(天地人), 상중하(上中下)
- 4책 : 원형이정(元亨利貞), 춘하추동(春夏秋冬)
- 5책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
- 6책 :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
- 7책 : 금석사포토초목(金石絲匏土草木)
- 10책 :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 12책 :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③ 목차 : 본문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구성 요소임. 독자가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

④ 총 책수 : 책의 전체 권수를 표시하며, 보통 '공(共)'이라는 표기를 사용함.

- 예 : 한 질의 책이 10권으로 구성된 경우 '共十'로 표시됨.

(3) 배접지

- 표지 안쪽에 덧붙여 책을 두텁고 튼튼하게 만드는 종이를 말함.
- 재료 : 백지나 파지로 제작하며, 특히 파지는 공문서나 여유분 인쇄본을 재활용함.

- 역사적 가치 : 파지에는 동시대 인쇄본의 간행 정보를 담고 있어, 책의 제작 시기와 문헌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2) 면지

- 면지는 책의 앞뒤 표지 안쪽에 별도의 백지 한 장을 접어서 표지와 함께 제책하는 데 사용됨
- 앞면지: 책 앞표지 안쪽에 부착된 백지로, 본문 앞의 여백 공간을 제공함
- 뒷면지: 책 뒤표지 안쪽에 부착된 백지로, 본문 끝을 정리하고 책장을 마감하는 역할을 함

(1) 내사기(內賜記)

- 내사기는 책 표지 안쪽에 기록된 임금의 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적,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기록물임

① 개인의 경우

- 첫째 줄 : 내사연월일을 기재함
- 둘째 줄 : 첫 줄보다 한 칸 또는 두 칸 올려 '내사(內賜)'라는 단어를 기록한 후, 받는 이의 직함과 성명을 작성, 이어서 서명 1건을 기재하여 하사받은 개인의 신분과 책의 귀속을 명확히 함
- 셋째, 넷째 줄 : "명제사은(命除謝恩)"이라는 문구를 적어, 하사받은 이에 대한 감사와 임금의 은혜를 표현
- 마지막 줄 : 임금의 명을 받들어 하사 절차를 수행한 부처의 관리 직함과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sign)을 남김



② 기관의 경우

- 기관에 내린 내사기의 기록 방식은 개인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음
- 첫째 줄: 내사연월일을 기재하며, 이는 하사 날짜를 명확히 하여 기록물의 공적 의미를 강화함
- 둘째 줄: '내사'라는 단어 뒤에 책명과 받는 관청 명칭을 기록, 이어 '상(上)'이라는 간략한 표시를 추가하여 내사 대상과 하사 목적을 간략히 나타냄
- 명제사는 생략: 기관에 내린 내사에서는 감사 문구인 '명제사은'을 생략하는 것이 원칙임
- 간략화된 내사기: 경우에 따라 내사연월일과 받는 관청 명칭만 기록하고 '상(上)'을 표시하는 등 간략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내사인

- 내사본에는 반드시 내사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이는 책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
- 내사인은 책의 본문 첫 페이지 상단에 날인되며, 책의 공식성과 소장 가치를 높임
- 선사지기(宣賜之記) : 약 8cm 크기의 방형인(方形印)으로, 도서관에서 인쇄된 책 중 승정원이 반사한 책에 찍힘
- 규장지보(奎章之寶) : 약 12.7cm 크기의 방형인으로, 규장각에서 편찬, 간행된 책에 찍힘

(2) 장서기(藏書記)

- 장서기는 책의 소장자가 남긴 기록으로, 책의 유통 경로와 소유 내력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
- 내용 : 책을 소장하게 된 이유, 소유자 이름, 소장 시기가 포함됨.
- 위치 : 보통 뒷면지에 기록되며, 장서기의 기록은 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3) 표제지

- (1) 표제지는 앞표지와 본문 사이에 위치하며, 책의 기본 정보를 담은 종이임.

(2) 표제지(標題紙)의 내용

- 책이름
- 저자 또는 편자
- 간인연도
- 간인지, 간인자, 판종

4) 권수도(卷首圖)

(1) 권수도는 책머리에 수록된 도판을 말하며, 특정 서적의 상징적 또는 설명적 이미지를 포함(불교 서적의 경우 권수도는 변상도(變相圖)라고 불림)

(2) 종류

- 문집의 권수도 : 개인의 문집 권수에 초상화나 관련 그림이 포함되어 있음
- 저작의 권수도 : 개인에 관한 저작의 권수에 초상화나 그림이 포함됨
- 전기 권수도 : 개인의 전기에서 피전자의 초상화 또는 묘산도(墓山圖)가 포함됨
- 지리지 권수도 : 지리지의 권수에 지도가 수록되어 있음
- 족보의 권수도 : 족보의 권수에 묘산도와 분파도가 포함됨

5) 진전문(進箋文)

- 진전문은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한 봉명서의 책머리에 붙이는 글로, 책을 편찬하게 된 내력을 설명함

[구성 형식]

- 대표 관원의 직위와 성명 : 봉명찬수관의 대표 관원의 이름과 직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책임자의 신뢰성을 부여함
- 책을 편찬하게 된 내력 : 책의 기획 의도와 편찬 과정을 간략히 설명함
- 진전문 작성일과 작성자 정보 : 진전문을 작성한 날짜와 이를 기록한 사람의 성명 및 관직명을 기록함

6) 서문(序文)

- 서문은 책의 머리에 삽입된 글로, 저술의 동기와 목적,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책의 성립 과정을 설명함
- 저자의 사상과 생애, 간행 경위를 간략히 담아 독자에게 책의 배경을 전달함

(1) 종류

- 자서(自序) : 저자가 직접 쓴 서문으로, 책의 저술 의도와 중요성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함
- 타서(他序) : 타인이 써준 서문으로, 주로 저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나 저명한 학자가 작성함
- 수서각서(手書刻序) : 서문을 쓴 이의 글씨를 판각하여 책에 삽입한 것으로, 서체의 아름다움과 권위를 강조함

7) 목차

- 목차는 책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

(1) 총 목차

- 책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나열한 목차로, 주로 첫 번째 책의 머리에 위치함
- 판심에 본문과 다른 별도의 장차 표시가 있으며, 독자가 전체 구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도움

(2) 책별 목차

- 한 책에 포함된 여러 권의 내용을 요약하여 나열한 목차임
- 각 권의 주요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며, 판심에 별도의 장차 표시가 있음

(3) 권별 목차

- 권별 목차는 책의 각 권마다 머리에 수록된 목차를 의미함

- 권책이 많은 책에서는 책별 목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권별 목차는 대부분 포함됨
- 권별 목차는 본문과 구분되도록 판심에 별도의 장차 표시가 삽입되어 있음
- 목차에 나타나는 책의 이름을 '목차제'라고 하며, 이는 해당 목차가 어느 책을 설명하는지 명확히 나타냄

8) 범례(凡例)

- 범례는 본문을 읽기 전에 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본문에서 사용된 특별한 기호와 부호 등을 설명하는 부분임
- 고서에서는 범례가 자주 등장하지 않았으나, 일부 문헌에서 편집 의도를 밝히기 위해 삽입되었음
- 범례는 독자에게 책의 내용 구성이나 활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판심에 '범례(凡例)'라는 표시가 명확히 새겨져 있으며, 범례는 장차(張次)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에서 수록됨
- 범례의 내용에는 책을 편찬하게 된 내력, 사용된 판본에 대한 정보, 편찬 및 서술 방법, 본문에서 활용된 특수 기호 및 부호의 의미, 간행 및 물리적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됨

9) 장서인(藏書印)

- 장서인(藏書印)은 책의 소장자가 자신이 해당 책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찍는 도장임
- 날인 위치: 장서인은 주로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권수 면에 날인되며, 책의 앞면이나 뒷면에서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첫 권 제1장에 찍힌 장서인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위치로 여겨짐.
- 날인 순서: 장서인이 여러 개 누적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우측에서 좌측의 순서로 찍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임

[장서인의 분류]

- 기관 장서인 : 책을 소장한 관청이나 기관의 명칭을 새겨 찍은 도장을 말함. 예를 들어, 규장각(奎章閣)에서 소장한 책에는 "규장각지인(奎章閣之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음
- 개인 장서인 : 책을 소장한 사람의 당호, 별호, 성명, 자, 또는 서재 명 등을 새겨 찍음. 예를 들어, "퇴계 이황"이 소장한 책에는 "퇴계장서(退溪藏書)"와 같은 인장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

- 장서인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책의 유통 경로를 살피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됨
- 여러 소장자와 기관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경우,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음

[감별 방법]

- 장서인기는 책에 찍힌 장서인의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그 출처와 소유 역사를 추적하거나, 도장의 제작 시기와 소유자의 신원을 감별하는 작업을 의미함.
- 장서인기는 도장의 모양, 색상, 글씨체, 새겨진 문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지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책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① 인형(印形) : 도장의 형태 분석

- 인형은 도장의 기본적인 외형을 가리키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 도장의 소유자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음.
- 원형 : 가장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형태로, 주로 관청 장서인이나 공적 소유물에 많이 사용됨.

- 타원형 : 개인 장서인에서 종종 발견되며, 서재나 개인 명칭을 포함한 도장이 많음.
- 방형 : 정사각형 형태로, 공적 및 사적 장서인 모두에서 자주 사용됨.
- 장방형 : 직사각형 형태로, 긴 문구나 명칭을 새기기에 적합하여 관청 장서인에 주로 활용됨.
- 난형(卵形) : 달걀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형태로, 예술적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 개인 장서인에서 흔히 발견됨.
- 표주박형 : 표주박 모양의 독특한 형태로, 개인 장서인에서 독창성을 강조한 도장임.
- 새 모양 : 특이한 형태로, 도장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중시한 경우에 사용됨.

② 인색(印色) : 도장의 색상 분석

- 도장의 색상은 제작 재료와 도장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장서인의 시각적 효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
- 주색(朱色)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 도드라지는 붉은색이 책의 권위를 강조함.
- 홍색(紅色) : 주색보다 옅은 붉은색으로, 사적 소유물이나 개인 장서인에서 자주 사용됨.
- 흑색(黑色) : 관청이나 공적 기록물에서 사용되며, 무게감과 신뢰성을 전달함.
- 청색(靑色) : 드물게 사용되며,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원하는 경우에 쓰임.
- 녹색(綠色) : 개인 소유 도장에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③ 음양(陰陽) : 도장의 새김 방식

- 음각과 양각은 도장에 새겨진 글씨나 문양이 도드라지거나 들어간 방식에 따라 구분되며, 혼합 방식도 존재함.
- 양각(陽刻) : 글씨나 문양이 도드라지게 새겨진 형태로,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남.
- 관청 장서인이나 권위 있는 도장에 자주 사용됨.
- 음각(陰刻) : 글씨나 문양이 들어가게 새겨진 형태로, 깔끔하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함.
- 개인 장서인이나 예술적 도장에서 흔히 발견됨.
- 혼각(混刻) : 음각과 양각을 혼합한 형태로, 복잡한 문양과 글씨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음.

④ 자형(字形) : 글씨체 분석

- 장서인에 새겨진 글씨체는 도장의 제작 시기와 소유자의 취향을 반영하며,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명조체 : 고전적이고 정갈한 글씨체로, 관청 장서인에서 많이 사용됨.
- 행서체 : 자연스럽고 유연한 글씨체로, 개인 장서인에 주로 나타남.
- 해서체 : 정형화된 고전 서체로, 공적 도장과 개인 도장 모두에서 발견됨.
- 초서체 : 흘려 쓴 글씨체로,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한 도장에서 흔히 사용됨.

⑤ 도안(圖案) : 문양 분석

- 도장의 문양은 소유자의 신분, 직위, 취향을 나타내며, 장서인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 인물 문양 : 소유자나 특정 역사적 인물의 초상이나 이미지가 새겨진 경우.
 - ex) 왕실 장서인에 군주나 왕자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
- 동식물 문양 : 소유자의 신분과 관련된 상징성을 표현함.
 - ex) 용, 봉황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매화, 국화 같은 고결함을 나타내는 식물이 포함된 경우.
- 기하학적 문양 :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장서인의 미적 요소를 강조함.

학습하기 2

양장본

1) 외부요소

- 외부 요소는 책의 본문을 보호하고, 책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며, 시각적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됨.
- 이 요소들은 책의 외형을 꾸미는 동시에, 내용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1) 표지

- ① 보호 기능 : 표지는 책의 내부 요소를 외부 충격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함.
- 앞표지, 뒤표지, 책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부분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 ② 앞표지와 책등의 정보 : 앞표지에는 책의 저자명, 서명(書名), 출판사명 등이 기술되어 독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

- ③ 뒤표지의 선전문구 : 뒤표지에는 책을 홍보하는 서평이나 추천사, 간략한 내용 소개가 포함됨.

④ 재킷의 역할

- 오늘날 책 표지 위에 덧입히는 재킷은 책의 미적 가치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임.
- 재킷은 독자의 시선을 끌고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앞날개에는 저작의 선전문구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보가 기재되며, 뒷날개에는 저작의 다른 저작이나 약력이 포함됨.

2) 내부요소

- 내부 요소는 책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로, 책의 체계적 이해와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함.
- 이 요소들은 권두, 본문, 권말로 나뉘며, 각각이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내용 전개를 지원함.

(1) 권두

- 권두는 책의 본문에 앞서 독자에게 기본 정보와 배경을 제공하며, 책의 서두를 장식하는 중요한 부분임.

① 표제 및 약표제

- 표제지면에는 책의 완전 서명, 저자명, 출판지, 출판사, 판차 등의 정보가 기재됨.
- 이는 도서 목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서지적 요소로 작용함.
- 약표제는 앞면에 간략한 서명을 기입한 것으로, 부서명을 생략하고 본서명만 기술함.
- 약표제는 독자가 책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간편한 방식임.

② 도판(圖版)

- 약표제지의 뒷면에 배치된 그림이나 사진 등을 권두도판이라고 함.
- 권두도판에는 양질의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며, 책의 시각적 매력을 높이고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③ 저작권 및 간기

- 표제지 뒷면에는 저작권, 판차,쇄차 등의 간행 정보를 기재하여 판권지로도 불림.
- 이는 책의 저작권 보호와 간행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④ 서문 및 헌사

- 서문은 저술의 목적, 범위, 그리고 저자의 개인적 생각이나 감회를 밝히는 글임.
- 자서(自序)는 저자가 직접 쓴 서문이며, 타서(他序)는 타인이 대신 쓴 서문임.
- 헌사는 저자가 자신의 저작을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헌정하며 남기는 글임.
- 가족, 친구, 동료, 저명 인사 또는 고인에게 바치는 경우가 많음.

⑤ 목차

- 책의 전체 구성을 이해하고, 특정 내용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목차는 페이지 수를 새로 시작하며, 독자가 본문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⑥ 일러두기

- 본문을 읽기 전 독자에게 책의 서술 방식, 체계, 특수한 용어와 기호를 설명하여 책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임.
- 이는 책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독자가 특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

(2) 본문

- 본문은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부분으로, 책의 목적과 주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함.

① 구성 방식

- 본문은 주로 편(篇), 부(部), 장(章), 절(節) 등으로 세분화되어 구조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구분은 내용의 체계적 전개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임.

② 에필로그와 후기

- 본문 마지막 장에 포함된 에필로그나 후기는 저자의 감상이나 책의 결론을 간략히 서술한 부분임.
- 주로 탈고 이후에 저자가 느낀 소감이나 추가적인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3) 권말

- 권말은 본문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부록, 주석, 참고문헌 등이 포함됨.

① 부록

- 본문 내용을 보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내용임.

② 주석

- 본문 내용을 해설하거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주석이 포함됨.
- 이는 독자가 본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③ 참고문헌

- 저자가 본문 작성에 참고한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한 부분임.
- 이는 책의 학문적 신뢰성을 높이고, 독자가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④ 색인과 용어해설

- 색인은 독자가 특정 주제나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정리한 도구임.
- 용어해설은 책에서 사용된 특수한 용어나 개념을 독자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부분임.

3) 결론

- 책의 외부와 내부 요소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보존과 홍보의 역할을 수행함.
- 외부 요소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내용을 보호하며, 내부 요소는 책의 구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핵심적인 부분임.
- 각 요소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책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학습정리

1. 동장본

- 동장본의 표지는 책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외관을 장식하는 역할을 함. 표지에는 책 제목, 권수, 목차, 총 책수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됨
- 표지 안쪽에는 배접지와 면지를 사용하여 책의 내구성을 높이고, 표지와 본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내사기는 임금의 하사 기록으로, 개인과 기관의 경우로 나뉘어 작성되며, 내사인은 책의 권위를 상징함
- 권수도는 책머리에 수록된 도판으로, 문집, 전기, 지리지 등에 관련 그림과 초상화를 포함하여 내용의 상징성을 부각함
- 진전문, 서문, 목차, 범례, 장서인은 각각 책의 제작 배경, 구조, 소유 기록 등을 나타내며, 문헌의 역사적 가치를 높임

2. 양장본

- 양장본의 외부 요소는 표지, 재킷 등으로 구성되며, 책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시각적 매력을 더함
- 내부 요소는 권두, 본문, 권말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서문, 목차, 본문 내용, 주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함
- 권두에는 표제, 저작권, 간기, 서문 등 책의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들이 포함됨
- 본문은 책의 주요 내용을 담아 편, 장, 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며, 에필로그나 후기를 통해 독자와 소통함
- 권말은 부록, 주석, 참고문헌, 색인 등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우며, 책의 학문적 신뢰성을 높임

5주차 1차시

■ 사본의 종류와 성격

학습목표

1. 사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동의어를 제시할 수 있다.
2. 고본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3. 전사본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특징을 통해 중요시되는 경우를 서술할 수 있다.
4. 전사본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5. 사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6. 사경의 시대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7. 사본의 오류 누적성, 고도의 구술성과 관련된 주요 성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본의 종류
2. 사본의 성격

핵심 keyword

- 어필본
- 예필본
- 어정서

학습하기 1

사본의 종류

1) 사본의 개념

- 사본은 붓, 펜 등의 필사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에 직접 서사한 책을 총칭하는 용어임.
- 이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서적 형태로, 당시의 지식 전파와 기록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사본은 인쇄된 책과 달리 필사 과정에서 필자의 개성과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며, 단순히 내용을 담는 그릇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평가됨.

(1) 동의어 : 사본은 다양한 유사 용어로 불리며, 이는 사본의 제작 방식이나 용도를 반영함.

- 필사본(筆寫本) : 글자를 손으로 써서 만든 책을 지칭함.
- 선사본(繕寫本) : 글을 정리하여 옮겨 적은 책을 말함.
- 등사본(謄寫本) : 원본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쓴 책임.
- 초본(抄本) : 원본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요약하여 필사한 책임.

2) 사본의 종류

- 사본은 고본(稿本),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각의 유형은 제작 목적과 방식에 따라 구분됨.

(1) 고본(稿本)

- 고본은 편자나 저자가 글 내용을 처음으로 엮거나 고안하여 작성한 초안 형태의 책임.
- 이는 사본의 시작 단계로, 저자의 원래 의도와 내용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어 역사적, 문헌학적 가치가 높음.

① 개념과 동의어

- 고본은 초고본(草稿本), 초고본(草藁本), 원고본(原稿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 이는 저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필 초안을 가리키며, 저작의 초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임.

② 고본의 종류

- 자필고본(自筆稿本) : 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고본으로, 친필본, 어필본(임금이 직접 쓴 글), 신평본(저자의 육필), 예필본(학문적 명필) 등이 포함됨. 또한 어제서(御製書), 어정서(御定書), 어찬서(御撰書) 같은 왕실 관련 저작도 해당됨.
- 타필고본(他筆稿本) : 저자 이외의 문인이나 제자가 작성한 고본으로, 저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제작됨.
- 납초본(納草本) : 조선왕조실록 편찬에 사용된 자료로, 초초본(初草本), 중초본(中草本), 정초본(定草本)으로 세분화됨.
- 판각용정서고본(板刻用淨書稿本), 판서고본, 판각용정고본 : 고본이 아닌 것을 판각용으로 정서한 것

(2) 전사본(傳寫本)

- 전사본은 고본을 바탕으로 내용을 베껴 쓴 사본임.
- 이는 원본의 내용을 재현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고본에 비해 문헌적 가치는 낮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됨.

① 개념과 동의어

- 전사본은 전초본(傳鈔本)으로도 불리며, 고본의 내용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필사한 책임.

② 전사본을 만드는 경우

- 비공개 자료 보존 : 원본이 비공개 자료일 경우, 인쇄 대신 복본으로 제작하여 보존함.
- 인본이 없는 경우 : 인쇄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전사본이 유일한 형태로 제작됨.
- 경제적 이유 : 인쇄본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 전사본으로 대체함.

③ 전사본이 중요한 경우

- 책의 원본이나 간행본이 소실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해당 전사본이 유일한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가치가 매우 높아짐
- 동일한 제목의 간인본이나 사본과 비교했을 때, 전사본에만 독특한 내용이나 차이가 발견될 경우, 전사본은 중요한 연구 자료로 간주됨
- 오래된 전사본은 현재 유통되는 책과의 비교를 통해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원문을 복원하는 데 귀중한 참고 자료로 사용됨
- 학문적 권위가 있는 저명한 학자가 직접 교정하고 작성한 전사본은 신뢰성과 권위가 높아짐
- 귀중본의 형태와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전사본은 원본의 특성과 문체를 재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임사나 영사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사본은 원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아도 연구를 가능하게 함
- 전사본이 명문가의 기록이거나, 저명한 소유자의 장서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사본은 역사적 배경과 소유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④ 전사본의 종류

- 수사본(手寫本), 수초본(手抄本) : 저명한 사람이 직접 베껴 쓴 책으로, 필사 과정에서 원본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나 수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각필사본(各筆寫本), 각필초본(各筆鈔本) : 한 종의 책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베껴 쓴 것으로, 필사 과정에서 다양한 필체와 편집 방식이 반영됨
- 일필사본(一筆寫本), 일필초본(一筆鈔本) : 하나의 책을 한 사람이 모두 베껴 쓴 것으로, 필사자의 통일된 필체와 기록 방식이 특징임
- 모사본(模寫本), 모본(模本) : 글자의 모양까지 그대로 베껴 쓴 책으로, 원본의 글씨체와 배열까지 충실히 재현하려는 의도가 반영됨
- 영사본(影寫本), 영초본(影鈔本) : 모본을 투사의 방식으로 베껴 쓴 책으로,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작한 필사본임
- 임모본(臨摹本), 임본(臨本) : 모본을 옆에 두고 보면서 닮게 베껴 쓴 책으로, 필사자가 원본을 참조하여 가능한 한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임

(3) 사경(寫經)

- 사경은 종교적 목적으로 경전을 손으로 직접 옮겨 쓴 것을 의미함.
- 이는 초기에는 경전을 널리 보급하려는 실용적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신앙적 수행과 공덕을 쌓기 위한 행위로 발전함.
- 권말에 수록된 발원문은 필사자의 신앙적 동기와 목적을 담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또한, 사경에 동참한 사람들의 관직, 품계 등은 해당 시기의 사회 구조와 신분제도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가 됨.

① 사경의 종류

[용지와 필사재료에 따른 구분]

- 백지(白紙): 흰 종이를 사용한 사경으로,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제작됨.
- 감지(紺紙): 남색 종으로, 금이나 은으로 필사한 경우가 많아 시각적 아름다움과 신성성을 강조함.
- 상지(裳紙): 갈색 종으로,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을 지닌 용지임.
- 목즙: 먹을 사용하여 필사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경임.
- 금니(金泥), 은니(銀泥): 금이나 은을 재료로 사용하여 경문을 필사한 것으로, 종교적 신성성과 공덕을 중시한 사경임.

[발원취지에 따른 구분]

- 국왕발원경: 국가적 차원에서 국왕이 발원한 사경으로,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외침영식(外侵靈息, 외부 침략을 막음)을 목적으로 제작됨.
- 개인발원경: 개인의 신앙적 목적으로 제작된 사경으로, 공양경(供養經, 불교에 경을 바침)과 명복경(冥福經, 고인의 명복을 기원함)으로 구분됨.

[경문을 쓴 사람 수에 따른 구분]

- 일필경(一筆經): 한 사람이 경전의 전체 내용을 필사한 사경으로, 필사자의 정성과 노력이 담김.
- 각필경(各筆經): 여러 사람이 경전의 일부를 나누어 필사한 것으로, 집단적 작업의 결과물임.

② 사경의 명칭

- 용지 + 필사재료 + 서명 방식

- 예)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백지에 묵으로 필사한 화엄경
- 예)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감지에 금니로 필사한 화엄경

③ 사경의 경향

- 초기 사경은 단순히 먹으로 필사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경문을 신속히 제작하고 배포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조됨
-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경전의 열람용으로 목판 인쇄본이 보급되었고, 이는 필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함
- 금니와 은니를 사용하여 경문을 필사하는 것이 성행하며, 이는 경전 필사에 특별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함
- 감지(紺紙, 쪽빛 종)와 상지(裳紙, 갈색 종)는 금니나 은니와 어울려 사경의 품격과 장엄함을 높였으며, 주로 국왕발원경이나 특별한 공양 경전에 사용됨

학습하기 2

사본의 성격

1) 사본은 전사가 거듭될수록 오류가 누적됨

- 사본은 필사의 과정에서 인간의 손과 눈을 거치므로, 필사자가 원본을 정확히 베끼지 못할 경우 내용에 오류가 발생함.
- 이러한 오류는 전사(傳寫)가 반복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있음.
- 오래된 사본일수록 오류가 적음
- 초기의 사본은 베끼는 과정을 덜 거쳤기 때문에,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고대 사본 연구에서는 사본의 연대가 이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오래된 사본일수록 문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됨.
- 이러한 특징은 고본(稿本)이나 초본(草本)이 원본과 가까운 자료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임.

2) 사본은 고도의 구술성을 지니고 있음

- 사본은 단순히 문자를 기록한 매체가 아니라, 당시의 구술적 전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짐.
- 이는 사본이 제작되고 활용되는 방식이 구술 중심의 사회적 관행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임.

(1) 사본은 음독 중심임

- 사본은 필사자가 내용을 소리 내어 읽으며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필사를 위해 원본을 낭독하거나, 필사본을 소리 내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음독(音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
- 음독은 필사자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작용했음.
- 이는 사본이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학습과 기억의 도구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줌.

(2) 사본은 발화된 기록으로 여김

- 사본은 인쇄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술적 맥락에서 발화된 기록으로 간주됨.
- 필사본은 내용을 소리 내어 읽거나 전달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구술된 텍스트로 기능했음.
- 이는 인쇄본과 사본이 동일한 내용을 가진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본이 구술 문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함.

(3) 사본은 공동체 문화를 발달시킴

- 사본은 구술적 전통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 한 사람이 사본을 소리 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중 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었음.
-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체 내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음.

(4) 사본은 생산자 지향적임

- 사본 제작은 필사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과정임.
- 필사자는 원고를 하나하나 베껴 쓰기 위해 많은 노동을 들였으며, 이로 인해 사본은 자연스럽게 생산자 중심의 문화를 형성함.
- 반면, 인쇄본은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음.
- 이러한 차이는 사본과 인쇄본이 각각 다른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활용되었음을 보여줌.

(5) 사본에서는 문단을 표시하는 기호가 발달함

- 사본의 문단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를 사용했음.
- 예를 들어, 'O'와 같은 단순한 기호가 문단 구분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는 후대의 실록에도 그대로 나타남.
- 이러한 기호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문맥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음.

(6) 사본은 개방적임

- 사본은 필사가 완료된 후에도 쉽게 내용을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특성을 가짐.
- 필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용이했음.
- 반면, 인쇄본은 한 번 제작되면 내용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작업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짐.

3) 사본은 필사자의 개성과 책의 생성 과정을 보여줌

- 사본은 필사자의 글씨체, 문장 구성 방식, 추가적인 주석 등에서 필사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특징을 가짐.
- 또한, 사본의 제작 과정을 통해 책의 기원과 형성 배경을 엿볼 수 있음.

(1) 사본의 유일성

- 사본은 필사자의 글씨체와 기록 방식이 반영되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님.
- 같은 내용을 가진 사본이라도, 필사자에 따라 글씨체, 문단 구분, 주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본은 고유함.

(2) 책의 생성 과정 기록

- 사본에는 저명한 인물의 서문이나 발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은 책의 저술 목적, 필사 과정, 저자의 의도 등을 기록하여 책의 생성 과정을 명확히 보여줌.
-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텍스트 이상으로 책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4) 결론

- 사본은 단순히 글자를 옮겨 적은 기록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구술적 전통, 공동체의 지식 전승, 그리고 개인의 개성을 담은 독특한 매체임.
- 사본은 전사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그 안에 필사자의 흔적과 책의 형성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학문적, 역사적 가치를 지님.
- 또한, 사본의 구술성, 개방성, 생산자 중심적 특성은 인쇄본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으로, 사본 연구는 문헌학과 문화사에서 중요한 학문적 영역을 형성함.

학습정리

1. 사본의 종류

- 사본은 필사를 통해 제작된 책으로, 고본, 전사본, 사경 등으로 구분됨
- 고본은 저자나 편자가 작성한 초안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전사본은 고본을 바탕으로 베껴 쓴 책으로, 원본 소실 시 중요한 자료가 됨
- 사경은 경전을 필사하여 신앙적 목적과 공덕을 쌓기 위해 제작됨
- 사본은 필사 과정에서 시대적 특징과 개성을 담아 문화적, 학문적 가치를 가짐

2. 사본의 성격

- 사본은 필사의 특성상 오류가 누적되며, 초기에 제작된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움
- 음독 중심으로 제작되어 구술적 전통을 반영하며, 공동체 결속과 학습 도구로 활용됨
- 개방적 구조로 수정과 첨삭이 용이하며,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의 개성이 나타남
- 책의 형성 과정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문헌학적 가치를 지님
- 사본 연구는 인쇄본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

5주차 2차시

■ 간인본의 개념과 종류

학습목표

1. 간인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간각, 인출의 시기에 따라 간인본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3. 간인의 형태, 형식에 따라 간인본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4. 목판본의 각 종류별(관판본, 사찰본, 국왕·왕실판본, 서원판본, 사가판본, 방각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5. 활자본의 각 종류별(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도활자본, 포활자본) 의미를 알고 사용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6. 기타 인본의 각 종류별(석인본, 탁인본, 검인본, 유인본)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간인본의 개념
2. 간인본의 종류

핵심 keyword

- 중간본
- 수진본
- 반사본

학습하기 1

간인본의 개념

1) 간인본의 개념

- 간인본은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 탁인본, 검인본, 유인본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인쇄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모든 서적을 포괄함.
- 이는 간본(刊本)과 인본(印本)의 용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책의 제작 과정과 인쇄 방식의 결합을 나타냄.
- 간인본은 전통적인 인쇄 방식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며, 서지학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임.

(1) 동의어 : 간인본은 다양한 유사 용어로 불리며, 이는 간인본의 제작 방식과 시대적 특징을 반영함.

- 각인본(刻印本) : 글자를 목판에 새겨 인쇄한 책을 의미함.
- 침인본(鋳印本) : 석판이나 금속판에 새겨 인쇄한 책을 가리킴.
- 누인본(鑲印本) : 정교하게 새겨진 판본을 사용해 찍어낸 책임.
- 조인본(雕印本) : 목판이나 석판을 조각하여 제작한 책을 지칭함.
- 판본(版本) : 간인본의 일반적인 용어로, 인쇄된 서적을 통칭함.
- 단, 판본(版本)과 판본(板本)은 구별해야 함.
- 版本 : 특정 시대나 방식으로 제작된 책을 뜻함.
- 板本 : 목판을 활용하여 찍어낸 책을 지칭함.

2) 간인본의 명칭

- 간인본은 각각의 시기와 인출의 시기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명칭은 간인본의 제작 과정과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1) 각각의 시기에 따른 명칭

① 초간본(初刊本)

- 초간본은 어떤 저작을 첫 번째로 간행한 책을 의미하며,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자료적 가치가 높음.
- 고본(稿本) 이후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원저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음.
- 동의어 : 초각본(初刻本), 원간본(原刊本), 원각본(原刻本), 초판본(初板本), 원판본(元板本), 초참본(初槧本), 조판본(祖板本).
- 내용의 변형이나 수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간행됨.
- 간행 시기의 시대적 문체와 인쇄술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함.
- 서지학에서 원자료로 활용되며,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② 중간본(重刊本)

- 초간본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간행한 책을 중간본이라 함.
- 이는 초간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간행된 내용을 다시 재판한 경우를 포함함.
- 동의어 : 중각본(重刻本), 중조본(重雕本).
- 초간본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쇄 상태나 판각의 품질이 향상됨.
- 경우에 따라 새로운 서문이나 발문이 추가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중간본의 복제본을 복각본(覆刻本)으로 지칭함.

③ 증간본(增刊本)

- 증간본은 초간본이나 중간본의 내용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간행한 책을 의미함.
- 동의어 : 증각본(增刻本), 증보판(增補板).
-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간행됨.
- 특히, 역사적 기록이나 학문적 저작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완한 경우 자료적 가치가 높음.

④ 보판(補板)

- 보판은 오래된 목판의 문자가 닳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을 새로 제작하여 보충한 것을 의미함.
- 동의어 : 보각판(補刻板), 보수판(補修板), 수보본(修補板), 보판본(補板本), 보각본(修刻本).
- 보판은 기존 목판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자를 삽입하는 과정을 거침.
- 필요한 부분만 파내어 새로 문자를 새기는 상감(象嵌) 기법을 활용함.
- 이는 기존 판본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함.

(2) 인출의 시기에 따른 명칭

① 초인본(初印本) 또는 초쇄본(初刷本)

- 초간, 증간, 후간 등에서 처음 찍어낸 책으로, 인쇄 상태가 정교하고 선명함.
- 목판에 새겨진 문자가 마모되기 전의 초기 인쇄본으로, 판면의 품질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초쇄본은 문자와 판면의 상태가 훼손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인쇄본을 의미함.
- 서지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본으로 평가됨.

② 후인본(後印本) 또는 후쇄본(後刷本)

- 같은 판에서 나중에 찍어낸 책을 말하며, 인쇄 품질이 초쇄본에 비해 떨어질 수 있음.
- 목판의 마모로 인해 문자와 판면의 선명도가 낮아지거나 일부 문자가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후쇄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판의 마모로 인해 본문의 정확성과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음.
- 간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초기 간행본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후쇄본은 서지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본과 비교하여 정교함과 원본 유지를 확인할 수 있음.

(3) 간인의 형태

- 간인의 형태는 책의 크기, 글자의 크기,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뉨.
- 이는 간인본의 제작 방식과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하며, 서지학적 연구에서 간인본의 분류와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됨.

① 대형본(大形本)과 소형본(小形本)

- 대형본 : 책장의 크기와 광곽(본문의 테두리)이 큰 책을 의미함.
- 대형본은 주로 경전, 지리서, 도록 등 가독성과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 제작됨.
- 책장의 넓은 공간은 삽도, 지도, 도표 등을 포함하기에 적합하며, 문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음.
- 소형본 : 책장의 크기와 광곽이 작은 책을 지칭함.
- 소형본은 휴대성이 강조된 형태로, 간편하게 보관하거나 이동하면서 읽기 편리하도록 제작됨.
- 작은 광곽으로 인해 글자가 작게 인쇄되며, 휴대용 교과서나 참고서로 자주 활용됨.

② 대자본(大字本)과 소자본(小字本)

- 대자본 : 글자의 크기가 큰 책을 의미하며, 시각적 가독성을 우선시한 형태임.
- 대자본은 어린이 교재나 시력이 약한 독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음.
- 특히 불교 경전이나 의학서적처럼 독자의 주의를 끌고 명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헌에서 주로 사용됨.
- 소자본 : 글자의 크기가 작은 책을 지칭함.
- 소자본은 공간 절약과 휴대성을 고려한 형태로, 작은 크기의 책장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학문적 연구나 개인 참고용으로 제작된 문헌에서 주로 발견됨.

③ 수진본(袖珍本)

- 수진본은 책장을 작게 제작하여 휴대가 용이하도록 만든 간인본임.
- '두본(斗本)' 또는 '좁쌀책'으로 불리며, 책장의 크기, 판식, 글자 크기를 최소화하여 제작함.
- 수진본은 소매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졌으며, 필요할 때 즉시 꺼내 볼 수 있도록 설계됨.
- 주로 간단한 참고자료, 기도문, 경전 등 실용성을 중시한 내용이 수록됨.
-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교함과 세심한 제작 기술을 요구했음.

(4) 간인의 형식

- 간인의 형식은 책의 내용 구성과 간행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책의 체계성과 학문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반영함.

① 총서(叢書) 또는 총서본(叢書本)

- 총서는 여러 저자의 저작을 주제나 체계에 따라 모아 간행하거나 필사하여 하나의 제목으로 엮은 책을 의미함.
- 총서는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가 특정 분야나 학문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
- 예 :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 한국의 『대동야승(大東野乘)』.

② 전서(全書) 또는 전서본(全書本)

- 전서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을 간행하거나 필사하여 한 권으로 엮은 책을 말함.
-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제작됨.
- 예 : 『율곡전서(栗谷全書)』, 『홍제전서(弘濟全書)』.

③ 단행본(單行本)

- 단행본은 특정 저작을 단독으로 간행하거나 필사한 책을 의미함.
- 독립적인 주제를 다룬 책으로, 독자에게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제공함.
- 오늘날의 단행본과 유사하며, 독립적인 연구서나 교재로 활용됨.

④ 총집(總集), 별집(別集), 선집(選集)

- 총집 : 문중에서 여러 사람의 유고(遺稿)나 문집(文集)을 함께 모아 간행하거나 필사한 책.
ex) 가문의 문헌을 종합하여 보존하고 전승하는 목적에서 제작됨.
- 별집 : 한 사람의 문집 또는 유고를 모아 간행하거나 필사한 책. 저자의 개인적 성취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선집 : 여러 저작에서 중요하거나 뛰어난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책. 독자에게 선별된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함.

⑤ 완본(完本)과 절본(節本)

- 완본 : 간행이나 필사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이 완전하게 포함된 책을 의미함. 원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하며,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음.
- 절본 : 원본의 내용을 줄이거나 일부만 발췌하여 간행한 책을 의미함. 특정 독자의 요구에 맞게 간소화 되었으나, 원문에 비해 문헌적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5) 전래에 의한 명칭

- 간인본은 전래 상태와 유통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됨.
- 이는 책의 희소성, 완전성, 가치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됨.

① 통행본(通行本)과 희구본(稀覯本)

- 통행본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보급된 책으로, 입수하기가 용이한 책임.
- 통행본은 대중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대량 제작되었으며, 주로 학습 자료나 교과서, 일반적인 참고 서적으로 사용됨.
- 통행본은 대량 생산된 만큼 문화적 접근성이 높아, 지식 보급과 교육 발전에 기여함.
- 희구본은 전래된 수량이 적어 보기 드문 책을 의미함.
- 희구본은 제작 당시부터 한정된 수량만 간행되었거나,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는 수량이 매우 적음.
- 희구본은 서지학 및 고서 수집 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며,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활용됨.

② 유일본(唯一本)

- 전래된 간인본 중 단 한 권만이 존재하는 책을 의미하며, 고본(孤本)이라고도 불림.
- 유일본은 해당 책의 유일한 기록물이므로, 학술적 및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유일본은 사료적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다양한 간행 형태에서 유일본이 발견되며, 원본에 가까운 자료로서의 가치가 큼.

③ 귀중본(貴重本) 또는 진본(珍本)

- 전래 연대가 오래되어 보기 드문 진귀한 책을 가리킴.
- 귀중본은 희소성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 제작 방식,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음.
- 고문헌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음.
- 진본은 원본 또는 초간본일 가능성이 높아, 서지학적 연구와 복원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④ 반사본(頒賜本) 또는 내사본(內賜本)

- 임금이나 개인이나 관청에 하사한 책을 말하며, 왕실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님.
- 반사본은 책의 내용과 제작 배경 외에도, 하사 대상과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사료로도 중요함.
- 반사본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정교하고 화려하게 제작됨.
- 책 표지나 본문에 내사인(內賜印)이 찍혀 있어, 반사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⑤ 수택본(手澤本)

- 소장자가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며 간직한 책을 의미함.
- 수택본은 사용자의 손때가 묻어 있는 책으로, 개인적 가치를 포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님.
- 수택본에는 소장자의 이름, 당호(堂號), 또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인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보관되며, 소장자의 독서 습관과 책에 대한 애정이 드러남.

⑥ 완질본(完帙本)

- 권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책을 의미함.
- 완질본은 원래의 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헌적, 서지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음.
- 완질본은 모든 권책이 누락되지 않아, 해당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온전하게 보존함.
- 연구자에게 원본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구조와 편집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⑦ 결본(缺本), 잔본(殘本), 영본(零本)

- 결본(缺本) : 한 질의 책 중 일부 권책이 빠진 책을 의미함. 결본은 원래 상태를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헌적 가치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 잔본(殘本) : 한 질의 책 중 약간의 권책만 남아 있는 책을 의미함. 잔본은 해당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내용이 보존되어 학문적 가치가 존재함.
- 영본(零本) : 한 질의 책 중 남아 있는 권책이 극히 적은 책을 의미함. 영본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제한적이나, 해당 권책 자체가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음.

학습하기 2

간인본의 종류

1) 목판본(木板本)

- 목판본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책으로, 우리나라 전통 인쇄본의 대표적인 형태임.
- 책의 목적과 간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됨.

(1) 관판본(官版本)

- 중앙 관서나 지방 관서에서 간행한 책을 총칭함.
- 관판본은 국가적 차원의 문헌 보급을 위해 제작된 공적 간행물임.
- 주로 법령, 의례서, 교육서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음.
- 내용과 형식의 품질이 뛰어나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음.
- 예 : 『삼강행실도』, 『동국여지승람』.

(2) 사찰본(寺刹本)

- 사찰에서 간행한 불경 및 관련 문헌을 총칭함.
- 사찰본은 불교 경전 및 불교와 관련된 서적을 필사하거나 목판으로 제작한 책임.
- 주로 경전의 보급과 신도 교육을 목적으로 간행됨.
- 예 : 『팔만대장경』, 『금강경』.

(3) 국왕·왕실판본

- 국왕과 왕실 인사가 주체가 되어 간행한 책을 의미함.
- 주로 불서를 간행하여 불교 보급과 왕실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됨.
- 14세기 말에서 15세기 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됨.
- 예 : 『월인석보』, 『석보상절』.

(4) 서원판본(書院版本)

- 서원에서 간행한 유학 관련 서적을 총칭함.
- 서원판본은 유생 교육과 유교 경전 보급을 위해 제작됨.
- 주요 서적에는 유교 경전, 문집, 강학 자료 등이 포함됨.
- 예 : 『소학』, 『주자대전』.

(5) 사가판본(私家版本)

- 개인이 자비를 들여 간행한 책을 의미함.
- 개인적 학문 연구나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제작됨.
- 간행된 책은 무료로 배포되거나 자선 목적으로 사용됨.
- 사가판본은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6) 방각본(坊刻本)

- 민간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어낸 책을 의미함.
-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나 대중적으로 수요가 높은 서적이 많음.
- 품질은 관판본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 당시의 대중 문화를 반영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예 : 『춘향전』, 『심청전』.

2) 활자본(活字本)

- 활자본은 목활자, 금속활자, 도활자, 포활자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책임.
-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발명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활자본이 존재함.

(1) 금속활자본

① 고려시대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 고려시대 제작된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짐.
- 『상경예문』 :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초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 『불조직지심체요절』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음.

② 조선시대

- 금속활자를 활용해 다수의 학문적, 실용적 서적이 간행됨.
- 계미자본 : 조선 태종 때 제작된 초기 금속활자로, 주로 유교 경전과 관찬 문서 인쇄에 사용됨.
- 경자자본 : 세종 시대에 제작된 정교한 금속활자로, 경전과 역사서 간행에 활용됨.
- 갑인자계인본 : 세종 때 만든 가독성이 높은 활자로, 한글 서적 인쇄에도 일부 사용됨.
- 병진자본 : 세조 시대 제작된 활자로, 학문 보급과 행정 서적 간행에 기여함.
- 경오자본 : 성종 때 제작된 균형 잡힌 서체의 활자로, 학술서와 법령집 간행에 사용됨.
- 을해자본 : 중종 때 제작된 세련된 금속활자로, 경전과 역사서 인쇄에 적합함.
- 기타 인본 : 임진자본, 경술자본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작된 다양한 활자본.

(2) 목활자본

- 나무로 활자를 제작하여 인쇄한 책을 의미함.
- 금속활자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들었음.
- 내구성은 금속활자보다 낮지만, 간행 속도와 경제성에서 장점이 있음.
- 예 : 서적원자본, 녹권자본, 동국정운자본, 을유자체자본, 인경자본, 금성자본, 호음자본, 추향당자본

(3) 도활자본

- 차진 흙(질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제작한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한 책임.
- 토주자(陶鑄字) 또는 토주자본(陶鑄字本)이라고도 불림.
-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글씨체의 정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음.

(4) 포활자본

- 바가지의 외피에 글자를 새겨 활자로 사용한 책임.
- 특수한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된 활자본으로, 경제성과 독창성이 돋보임.
- 대중적 수요보다는 특정 목적에 따라 제작된 경우가 많음.

3) 기타 인본

- 활자본이나 목판본 이외의 다양한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책을 포함함.

(1) 석인본(石印本)

- 판판한 돌 위에 비누와 지방을 섞은 재료로 글자와 그림을 새긴 뒤, 이를 이용해 인쇄한 책.
- 석판화 기술과 유사하며, 정교한 그림이나 삽화가 포함된 책에서 자주 사용됨.
- 내구성이 높고, 동일한 품질의 인쇄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음.

(2) 탁인본(拓印本)

- 비석, 금석문, 또는 쇠붙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종이에 찍어낸 책임.
- 탁본(拓本)과 유사하며, 주로 고대 유물의 문자를 연구하거나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제작됨.
- 금석학 및 고문서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3) 검인본(檢印本)

- 책이나 그림에 찍힌 인장을 모아 엮어낸 책.
- 인장에 담긴 정보를 통해 소유자, 제작 시기, 문화적 배경 등을 연구할 수 있음.
- 문헌학 및 미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간주됨.

(4) 유인본(油印本)

- 기름 먹인 등사원고지를 출판 위에 놓고 철판로 긁어 글자를 만든 뒤, 등사기의 롤러로 밀어 찍어낸 책.
- 현대적 인쇄 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 사용된 경제적인 인쇄 방식임.
- 다량 생산이 가능하며, 주로 교재나 소규모 문서 배포에 활용됨.

학습정리

1. 간인본의 개념

- 간인본은 목판본, 활자본, 석인본 등 다양한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책을 의미하며, 간본(刊本)과 인본(印本)을 포괄하는 용어임
- 초간본, 중간본, 증간본 등 간행 시기와 품질에 따라 구분되며, 초간본이 자료적 가치가 높음
- 인출 시기에 따라 초쇄본과 후쇄본으로 나뉘며, 초쇄본은 인쇄 품질이 뛰어남
- 크기와 형식에 따라 대형본, 소형본, 수진본 등으로 나뉘며, 휴대성과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됨
- 전래 상태에 따라 통행본, 희구본, 귀중본 등으로 분류되어 연구 가치와 희소성을 평가함

2. 간인본의 종류

- 목판본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제작된 전통 인쇄본으로, 관판본, 사찰본, 방각본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
- 활자본은 금속, 목재, 도활자 등으로 제작된 활자를 사용해 인쇄되며, 금속활자본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됨
- 석인본은 석판에 글씨를 새겨 인쇄한 책으로 삽화 제작에 유리하며, 탁인본은 비석이나 금석문을 종이에 찍어냄
- 검인본은 도장 모음을 인쇄한 책으로, 인장의 역사적 가치를 연구할 수 있음
- 유인본은 등사기를 이용해 제작된 경제적 인쇄본으로, 현대 이전 소규모 배포에 활용됨

6주차 1차시

■ 목판의 인쇄와 목판본의 성격

학습목표

1. 목판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과거 기록을 통한 목판의 발달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3. 목판의 판각 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4. 인쇄용 먹물, 종이, 인쇄용구 등의 재료를 통한 목판의 인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5. 목판본의 성격적 특징(완결성, 동양성과 고정성, 누인성과 난잡성, 시대성과 사회성)을 알고 그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목판의 판각과 인쇄
2. 목판본의 성격

핵심 keyword

- 연판처리
- 각수
- 마구리

학습하기 1

목판의 판각과 인쇄

1) 목판의 개념과 발달

(1) 목판의 개념

- 정의 : 서적의 대량 보급을 위해 저작물을 목판에 새겨 찍어내는 인쇄 방식임.
- 과정 : 저작물을 종이에 필사한 후, 이를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양각으로 새김.
- 특징 : 대량 보급이 가능하며, 내용이 고정되어 복제본의 내용 일관성이 뛰어나.

(2) 목판의 발달

① 한국

- 통일신라 시대(751년 이전)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됨.
- 고려 시대(1007년) 간행된 『보협인다라니경』은 안동 보광사에 소장되어 있음.

② 중국

- 『금강반야바라밀경』(868년, 함통 9년)은 중국 둔황 석굴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됨.

③ 일본

- 일본의 『백만탑다라니』(770년경)는 불교 신앙 확산을 위해 제작된 중요한 목판본임.

2) 목판의 판각과 인쇄

(1) 목판의 판각

- 목판의 판각은 책을 제작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재료(나무판 마련) 선택, 연판 처리(소금물에 절임), 판각 작업을 포함함

① 목판의 재료(나무판 마련)

- 목판 제작에 적합한 재료로는 견고하고 가공이 쉬운 나무가 선호됨
-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이운지」에서 대추나무와 배나무를 최상의 목재로 평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가래나무를 추천함
-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가래나무, 박달나무, 산벚나무, 돌배나무가 목판 제작에 사용됨

② 연판처리

- 통나무를 그늘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함
 - 적당한 크기로 켄 판목을 준비하고,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함
 - 나무판을 바닷물에 담그거나 소금물로 삶아 나무의 진액을 제거함
- 이를 통해 목판의 뒤틀림과 벌레 피해를 방지하며, 조각 작업을 용이하게 함
- 목수가 양쪽 표면을 대패질하여 매끄럽게 만들
 - 목판의 양쪽 가장자리에 마구리를 붙여 뒤틀림을 예방하고 손잡이로 활용함



vi 일부 사찰본에서는 간기 뒤에 연판처리 작업에 참여한 목수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함

③ 판각

- 판서용 정서본을 제작하여 각 책장의 내용을 판목 위에 반전된 상태로 붙임
- 조각칼과 망치를 사용하여 판목에 반대 글자체로 자획과 판식을 새김
- 판심에 제목, 권차, 장차 등을 새기며, 판의 끝에는 간기와 각수의 이름을 포함하여 작업을 완료함
- 필요한 경우 상감 기법을 사용해 추가적인 디테일을 더함

(2) 목판의 인쇄

① 인쇄용 먹물

- 송연묵(송먹, 물먹): 송연(송) + 아교 + 물 + 알코올(또는 술)을 혼합하여 제작. 목판본과 목활자본 인쇄에 주로 사용됨
- 유연묵(기름먹, 참먹): 유연(기름) + 아교 + 물 + 알코올(또는 술)을 혼합하여 제작. 필사 작업이나 금속활자 인쇄에 적합함
- 유연묵에 사용되는 기름 종류: 삼나무 기름, 주엄나무 기름, 콩기름, 오동나무 기름, 유채 기름

② 인쇄용 종이

- 저지: 닥나무로 제작된 고급 종이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인쇄에 적합함
- 백추지: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하며, 목판본 제작에 널리 사용됨

③ 인쇄용구

- 먹술(먹비): 먹물을 골고루 칠하는 데 사용됨.
- 말총과 인체(印鬃): 말총이나 모발로 만들어졌으며, 종이에 먹물을 고르게 배포함.
- 밀랍: 인체에 발라 종지와 목판의 접촉을 부드럽게 함.
- 먹판과 먹물 그릇: 먹물을 담고 보관하는 용구임.

④ 인출하는 방법

- 인쇄 작업은 목판 위에 먹물을 바르고, 종이를 올린 뒤 인체로 문질러 진행됨.
- 목판에 먹물을 고르게 칠함.
- 종이를 목판 위에 놓고, 인체에 밀랍이나 기름을 칠하여 종이를 비벼 찍어냄.
- 작업 후, 목판을 깨끗이 닦아 말리고, 통풍이 잘되는 선반이나 누각에 보관함.
- 목판은 보관 상태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므로, 관리가 중요함.

학습하기 2

목판본의 성격

1) 완결성

(1) 출판 목적과 내용의 완결성

- 목판본은 서적 보급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제작되며, 출판 이전에 철저한 교정 과정을 통해 문헌의 내용이 완결됨.
- 각 책의 제작 과정에서 서체, 문장 내용, 맞춤법 등이 교정을 거치며, 문헌이 지닌 의미와 가치가 완벽히 전달되도록 노력함.
- 특히 불경, 경전, 역사서 등 중요한 문헌은 각별히 신경 써서 교정되어 오류를 최소화함.

(2) 체제와 외형적 정제성

- 글자 크기, 줄 간격, 여백 배치 등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됨.
- 판형은 서적의 외관과 보관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되며, 문헌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 목판에 새겨진 서체는 당시의 미적 기준과 학문적 깊이를 반영하여, 목판본 자체가 문화적 유산으로 평가받음.

2) 동양성과 고정성

(1) 동양성(同樣性)

- 목판본은 동일한 목판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인쇄되므로, 종이만 있으면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가진 책을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음.
- 서적 보급 과정에서 동양성은 독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서적이 보급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짐.

(2) 고정성

- 목판본은 한 번 제작된 목판이 훼손되지 않는 한, 동일한 모양과 내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음.
- 글자와 판식이 고정되어 있어 특정 문헌의 내용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가짐.
- 이는 필사본에서 흔히 발생하던 오타자 문제를 줄이고, 문헌 보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3) 누인성과 난잡성

(1) 누인성(累印性)

- 목판본은 목판을 보관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쇄를 할 수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
- 이는 목판본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대량 보급에 적합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고문서나 경전, 관찬 문서 등 반복적 인쇄가 필요한 서적에서 누인성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짐.

(2) 난잡성

- 누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찍어내면 목판의 글자가 마모되거나 흐릿해져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지나친 반복 인쇄로 인해 책판이 손상되면 글자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는 문헌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목판본 제작자는 보존과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손상된 목판은 상감 기술 등을 통해

보완됨.

4) 시대성과 사회성

(1) 시대성

- 목판본의 판심, 서체, 판형 등은 특정 시대의 기술적, 미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함.
- 예컨대 판심의 형식이나 글씨체의 변화는 인쇄 당시의 기술 수준과 미적 기준을 나타냄.
- 또한, 목판본에 포함된 간기(刊記) 등을 통해 간행 연대와 지역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2) 사회성

- 목판본의 제작 과정과 품질에는 출판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반영됨.
- 재정적 여유가 있는 왕실, 관청, 사찰 등이 제작한 목판본은 품질이 우수하며, 사회적 권위를 반영함.
- 반면, 상업적으로 제작된 방각본은 대중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음.

학습정리**1. 목판의 판각과 인쇄**

- 목판의 판각은 목판본 제작의 핵심으로, 적합한 나무 선택, 연판 처리, 판각 작업의 세 단계로 진행됨
- 연판 처리는 목재의 진액 제거와 뒤틀림 방지를 위해 수행되며, 판각은 글자를 목판에 새겨 제작됨
- 인쇄 과정에서는 송연묵과 유연묵 같은 다양한 먹물이 사용되며, 닥나무 종이(저지)를 활용해 내구성을 높임
- 먹솔, 밀랍, 인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에 먹물을 고르게 발라 인쇄하며, 제작된 목판은 적절히 보관되어 재사용 가능함

2. 목판본의 성격

- 목판본은 내용의 완결성과 동양성(同樣性)을 통해 대량 보급이 가능하며, 고정성을 유지해 오탈자를 줄임
- 누인성을 기반으로 동일한 목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제작할 수 있으나, 지나친 반복 사용은 난잡성(亂雜性)을 초래할 수 있음
- 목판본은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여 제작 당시의 기술, 미적 기준, 제작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냄

6주차 2차시



신라시대 목판본

학습목표

1.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발견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조형양식, 무주제자, 글자체, 지질 등의 특징을 통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3.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특징을 통해 그 역사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5.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백만탑다라니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형태, 특징
2.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일본의 『백만탑다라니』와의 비교

핵심 keyword

- 무주제자
- 남탑
- 공양

학습하기 1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형태, 특징

1) 발견

(1) 발견 시점과 배경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의 2층 사리공에서 발견됨.
- 이 발견은 한국의 고대 인쇄술과 불교 신앙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 최초 보도 : 조선일보 1966년 10월 13일자 기사에서 고 민영규 박사가 발견 사실을 기고하며 세간에 알려짐.

(2) 발견 당시 상태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금동 사리외함에 봉안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음.
- 금동 사리외함은 불탑 내부에 봉안된 유물로, 당시 불교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양물이었음.
- 비단 보자기에 싸여 있었으나, 250cm 길이는 썩어 없어져 총 620cm 중 33조각으로 손상된 상태로 발견됨.

(3) 국제적 평가

-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 기록물로 인정하고, 일부 사진과 함께 이를 소개함.
- 704년에서 751년 사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목판 인쇄술의 기원으로 평가받음.

	
경주 불국사 석가탑	사리공에 봉안되었던 금동 사리외함
	
복원 전 『무구정광경』	복원 후 『무구정광경』

2) 간행 시기

(1) 751년 이전 간행의 추정 근거

① 사리함 장엄구의 조형 양식

- 사리함 내부에서 발견된 장엄구의 조형적 특징이 8세기 신라 초기의 양식을 보여줌.
- 이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 시기가 불국사 창건 이전(751년)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됨.

② 무주제자(武周制字)의 검출

- 무주제자는 중국 측천무후 시기(690~705년)에 개정된 한자로, 일부 글자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예를 들어, 證(1회), 地(4회), 授(4회), 初(1회)와 같은 글자들이 고쳐지지 않고 사용된 점은 제작 시기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③ 글자체의 서법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글자체는 인서체(印書體)와 필서체(筆書體)가 혼합된 육조체(六朝體)의 서풍을 따름.
- 이러한 서법은 8세기 이전 신라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당시 당나라에서 수입된 경전 서체와 유사함.
- 특히, 황복사 사리함의 금동함 뚜껑에 음각된 글씨와 서법이 유사하여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됨.

④ 지질 분석

- 1988년~1989년 대대적인 보수 작업 중 일본 종이 시험소의 실험을 통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닥나무로 만든 한지에 인쇄되었음이 확인됨.
- 닥나무 종이는 신라 시대에 사용된 고급 재료로,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며, 이는 문헌의 시대적 신빙성을 높여줌.

3) 형태

(1) 물리적 구성

- 크기 : 두루마리의 너비는 6.5~6.7cm, 총 길이는 약 642cm로 소형 권자본임.
- 판공(板匡) : 판의 위아래 변의 길이는 5.3~5.5cm로 균일함.
- 글자 배열 : 각 항목의 글자 수는 6~9자로 일정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구성됨.
- 글자체 : 서체는 해서체로, 글자 획이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음.

(2) 장정 방식

- 권자본 형태 : 초기 도서 생산 형태인 권자본으로, 한 장씩 이어 붙여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됨.
- 권축 방식 : 두루마리의 끝에는 목심(木心)을 사용하고, 붉은 칠을 하여 고급스럽게 마감함.
- 이는 당시의 도서 장정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임.

4) 특징

(1) 초기 납탑 공양용 소형 목판 권자본

- 신라에서는 소형 권자본 형태의 다라니경을 불소탑에 봉안하며 공양 의식을 진행했음.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이러한 불교적 공양 의식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예로, 불탑 77기나 99기에 봉안하는 신앙적 행위와 관련됨.

(2) 장정 기술과 완성도

- 도서 생산의 초기 형태인 권자본으로, 단순하지만 정교하게 제작되어 당시의 장정 기술 수준을 잘 보여줌.
- 본문과 다라니 경문이 완전하게 새겨져 있으며, 문헌의 내용에 빈틈이 없는 완벽성을 보임.

(3) 인쇄 기법과 판각 기술

- 목판에 글자를 새기고, 먹물을 칠한 뒤 종이를 얹어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됨.
- 글자의 획이 정교하고 예스러움을 유지하며, 당시의 인쇄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함.

(4) 세계 최고 수준의 목판 인쇄물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목판 인쇄술의 특징을 완벽히 갖춘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권자본으로 평가받음.
- 이는 동아시아 인쇄문화의 시초를 알리는 중요한 유물로,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문화유산임.

(5) 역사적 의의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 시대의 불교 신앙과 문헌 보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작품임.
- 목판 인쇄술의 정교함과 체계적 도서 제작 기술을 통해, 당시 신라의 기술적·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학습하기 2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일본의 『백만탑다라니』와의 비교

1) 『백만탑다라니』

- 간행 시기 : 770년 무렵 제작.
- 발견 장소 : 일본 나라현 법룡사(法隆寺)에서 백만탑과 함께 발견됨.
- 의의 : 일본에서 제작된 초기 불교 경전 인쇄물로, 다라니 신앙과 목판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2)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의 비교

(1) 인쇄 방식의 차이

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글자 면을 목판에 새긴 뒤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얹은 뒤 부드러운 털 뭉치(인체)를 사용해 문지르거나 눌러 찍어낸 전통적인 목판 인쇄 방식임.
- 이는 섬세한 기술과 정교한 조작이 필요한 방식으로, 본문 전체를 균일하게 인쇄하는 데 적합함.

② 『백만탑다라니』

- 나무판 조각에 찰막한 다라니를 새기고, 먹물을 발라 종이에 스탬프를 찍듯 날인식(捺印式)으로 제작됨.
- 날인 방식은 간단한 기술로 대량 생산에 유리하지만, 세밀한 표현이나 긴 문장을 인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경문의 완전성

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본문과 다라니 경문을 모두 완전하게 새겼으며, 경문의 내용과 형식을 충실히 유지함.
- 경문 전체가 목판에 새겨져 있어 불경의 보존 및 전달에 매우 적합함.

② 『백만탑다라니』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근본 다라니, 자심인 다라니, 상륜 다라니, 육도 다라니의 4종만을 발췌하여 축약된 형태로 제작됨.
- 경문의 내용이 짧고 간결하며, 신앙적 목적으로 간편하게 제작된 다라니 중심의 서적임.

(3) 형태와 제작 의도

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총 길이 약 642cm로, 소형 권자본 형태의 완전한 경전임.
- 제작 의도는 신라의 불교 신앙 전파와 사리 공양에 사용되는 종교적 목적으로, 경문 전체를 담아 불교 교리를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데 중점을 둠.

② 『백만탑다라니』

- 낱장 형태의 작은 인쇄물로, 육도 다라니 한 벌은 간소화된 내용과 축약된 형식으로 제작됨.
- 백만탑과 함께 봉안되어 신앙적 공양과 탑의 장엄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대량 제작을 통한 신앙 확산에 초점을 둠.

3) 의의와 한계

(1)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 완전한 경문의 보존과 체계적 제작 방식을 통해, 동아시아 초기 목판 인쇄술의 정교함과 완결성을 보여줌.
- 신라 불교의 수준 높은 신앙 체계와 문화적 역량을 반영하며, 불교 경전의 보급 및 보존을 위한 기술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함.

(2) 『백만탑다라니』의 의의

- 날인식 제작 방식을 통해 일본에서 간소화된 불교 경전을 대량으로 제작한 초기 사례를 보여줌.
- 백만탑 공양이라는 신앙적 실천의 일부로 제작되어, 일본 불교 신앙의 독특한 형태를 나타냄.
- 다라니를 간소화하여 신앙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3) 한계와 비교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정교하고 완전한 경문을 보존한 반면, 『백만탑다라니』는 간소화된 축약본으로 신앙 중심의 간략한 제작물이었음.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 인쇄술과 불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인 반면, 『백만탑다라니』는 일본에서 대량 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용적 인쇄물로 한정됨.

학습정리

1.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형태, 특징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51년 이전 신라에서 제작된 소형 목판 권자본으로,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됨
- 유네스코가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로 인정했으며, 닥나무 종이에 목판 인쇄 방식으로 제작되어 정교함과 완결성을 보임
- 권자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며, 불교 신앙과 공양 의식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신라의 인쇄 기술과 불교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유물로, 동아시아 목판 인쇄문화의 경수를 담고 있음

2.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일본의 『백만탑다라니』와의 비교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정교하고 완전한 경문을 담은 소형 목판 권자본으로, 신라의 불교 신앙과 인쇄 기술을 보여줌
- 『백만탑다라니』는 일본에서 날인식 방식으로 제작된 축약본으로, 신앙적 공양과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제작됨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체계적 제작과 완성도가 뛰어난 반면, 『백만탑다라니』는 실용성과 간소화가 두드러짐
- 두 유물은 동아시아 초기 불교 신앙과 인쇄술의 발전 양상을 각각 보여줌

8주차 1차시

■ 고려시대 목판본

학습목표

1. 보협인다라니경의 형태와 기록을 통해 그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2. 보협인다라니경의 주요 특징을 통해 중국 오월국판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3. 보협인다라니경의 주요 특징을 통해 그 역사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4. 초조대장경의 특징을 통해 간행시기를 추정하고 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5. 초조대장경의 특징을 통해 고려 전기 미술사, 문화사 등 연구에 있어서의 역사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보협인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특징
2.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 간행목적, 특징

핵심 keyword

- 정각본
- 사간본
- 한역대장경

학습하기 1

『보협인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특징

1) 『보협인다라니경』이란

- 완전서명 :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으로, 제목 자체가 경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함.
- 경문의 내용 : 불교에서 보협인다라니의 공덕을 설법한 40구의 본문을 담고 있음. 이는 불교 신앙에서 다라니를 통한 공덕과 구원의 내용을 전하며, 불교 교리를 신도들에게 알리는 데 활용됨.
- 변상도 : 불경의 앞부분에 삽입된 불보살의 모습이나 불교적 상징을 새긴 도판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판화 중 하나로 평가받음. 이는 시각적 종교성을 강조한 중요한 자료임.

2) 소장본

- 국내 소장본 : 현재 국내의 일부 개인 소장자들에 의해 보유하고 있음.
- 일본 소장본 : 동경국립박물관이 주요 소장처로, 일본에서도 고려 초기 불경 판본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안동 보광사 소장본 : 2007년, 안동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 좌상의 복장에서 출토된 유물로, 이 판본은 고려 초기 불경의 귀중한 사례임.

3) 형태

① 크기와 구성

- 너비 7.8cm, 총 길이 240cm로 소형 목판 권자본 형식을 가짐.
- 판광(판의 글씨가 새겨진 공간)의 위아래 변 사이의 길이는 5.4cm로, 정교한 판각이 특징임.
- 각 줄에 9~10자의 글자를 담아, 당시 필사본과 간행본의 서체적 규율을 따름.

② 장정과 재료

- 권축(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수 있는 축)은 전단목으로 제작하였으며, 노출된 부분에는 주홍색 칠을 한 뒤 옷칠을 더해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함.
- 종이는 황열색으로 염색되어, 색감과 질감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함. 이는 당시 인쇄물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종교적 숭배의 대상임을 보여줌.

4) 간행 시기

- 간행 시점 : 고려 목종 10년(1007년)으로, 이는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보다 약 250년 후에 제작된 것으로, 고려 초기의 인쇄술 발전을 반영함.
- 간행 장소 : 개성의 총지사에서 간행됨. 총지사는 불교 경전 간행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고려 초기 불교의 학문적·종교적 중심지로 평가됨.
- 간행 주체 : 총지사 주지 홍철이 직접 개판(목판 제작 및 인쇄)에 관여하였고, 간기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간행 내력을 명확히 밝힘.

5) 특징 (중국 오월국판과 비교)

(1) 판식 및 글자체

- 중국 오월국(吳越國)에서는 956년과 975년에 『보협인다라니경』을 간행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는 956년 본을 참고하여 이를 새롭게 간행함.
- 고려의 『보협인다라니경』은 중국판과 비교했을 때 판식, 행자수, 글자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글자체는 구양순 계열의 방필(방형의 글자)과 원필(둥근 획)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필력이 약동하며, 글자의 균형미가 뛰어남.

(2) 변상도

- 양각으로 새겨진 변상도는 중국 오월국판과는 다른 독창적 조형미를 보이며, 고려 초기 목판 판화의 독창성을 증명함.

(3) 내용 정확성

- 중국 오월국판에서는 오자(誤字)와 탈자(脫字)가 다수 발견되는 반면, 고려 총지사판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거의 없어, 당시 고려의 교감과 교정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줌.

(4) 인쇄 품질

- 먹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며, 인쇄가 정교하여 문자와 도상의 아름다움이 돋보임. 이는 인쇄 기술과 판각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함.

6) 역사적 의의

(1) 독창성과 창의성

- 고려는 중국 오월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단순 모방에 그치지 않고 개판용 정서본을 따로 마련하여 독자적인 판각을 진행함.
- 이는 고려 초기의 불경 판본 제작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음.

(2) 정각본(精刻本)의 모범

- 『보협인다라니경』은 고려 초기의 정각본(精刻本)으로, 목판 판각과 인쇄 기술의 완성도를 보여줌.
- 이는 고려가 불교 경전의 간행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아시아 불교 세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음을 나타냄.

(3) 불교와 인쇄술의 융합

- 『보협인다라니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당시 불교 신앙의 심화와 문화적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임.
- 고려 초기 불교의 사회적, 종교적, 기술적 발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학습하기 2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 간행목적, 특징

1) 간행 시기

- 10세기 말 : 북송에서 최초로 대장경이 판각됨. 이는 동아시아 불교 경전 간행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로, 대장경은 불교 경전 전체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대규모 간행물임.
- 고려 성종 10년(991) : 고려는 북송의 『개보칙판』 대장경을 수입하며 대장경 간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고려 현종 2년(1011) : 거란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진 시기에, 국란을 극복하기 위한 발원으로 대장경 간행을 결의함.
- 고려 선종 4년(1087) : 약 76년간의 작업 끝에 초조대장경이 완성됨. 이는 고려 전기 불교 문화의 정점으로 평가됨.

2) 간행 목적

- 불교적 발원 : 대장경 간행의 핵심 목적은 불력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보호하려는 발원에서 비롯됨.
- 고려는 거란의 침입과 같은 외적의 위협 속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하여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불교를 통해 국가적 결속을 다지고자 함.
- 문화적 자존심 : 북송의 대장경을 수입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려의 독자적인 대장경 간행을 통해 불교적 학문과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포함됨.

3) 특징

(1) 동양 최초의 거질 대장경

- 초조대장경은 570함에 약 6천 권에 달하는 규모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대장경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함.
- 대장경은 불교 교리를 총망라한 집성체로, 각종 경전, 율전, 논서를 포함함.

(2) 판각 방식의 차이

- 고려 초조대장경의 판각은 매줄 매행에 14자 형식으로 정교하게 새겼음.
- 이는 글자의 판면 배치를 균형감 있게 정리한 형식으로, 고려 특유의 체계성과 정밀함을 보여줌.
- 거란판 및 국내 전본 : 매행 23행 17자로 새겨 글자가 촘촘하게 배치되었으며, 고려판과는 배치 방식과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임.

(3) 함차의 차이

- 초조판과 북송의 개보판은 대장경의 구성과 함차(함에 담긴 경전의 분류)가 서로 다름.
- 고려 초조판은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간행되었음.

(4) 피휘(避諱)와 결획(缺劃)의 처리

- 북송의 개보판은 황제의 이름이 포함된 글자를 피휘하거나 결획하여 사용했으나, 초조대장경은 이러한 글자를 정자로 바로잡아 새김.
- 예 : "무왕(武王)"에서 '무(武)'는 혜종의 휘로, 대자(代字)인 '호왕(虎王)'으로 대체하거나 결획을 통해 수정함.
- 고려판은 이러한 서체적 자유로움을 통해 독창적인 판각 문화를 창조함.

(5) 판화 배치의 차이

- 『어제비장전』권 제13의 판화를 비교하면, 북송 개보판과 고려 초조판은 동일한 본문에서도 배치 방식이 다름.
- 개보판 : 섬세하고 유려한 선을 특징으로 하여 정적인 미감을 강조함.
- 초조판 : 선이 굵고 동적인 약동감을 지니며, 보다 대담하고 강렬한 조형미를 보임.

(6) 동양 최대 규모의 수록

- 초조대장경은 당시 동양에서 주조된 한역 대장경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고려 불교학의 수준과 서지학적 역량을 잘 보여줌.

4) 평가

(1) 판각술의 성취

- 초조대장경은 고려 전기의 판각술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당시 목판 인쇄 기술의 정수를 보여줌.
- 글자의 세밀함, 균형미, 판화의 조형적 특징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기술적 성과임.

(2) 불교사 연구의 보고

- 초조대장경은 고려 전기 불교의 신앙, 교리, 사상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특히, 고려 불교의 독창성과 중국 불교로부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임.

(3) 미술사와 문화사 연구의 가치

- 초조대장경에 포함된 판화는 고려 초기 미술의 수준과 양식을 보여줌.
- 판각된 서체와 도상은 당시 고려 사회의 문화적, 미학적 정체성을 반영함.

(4) 동아시아 불교 세계에서의 위치

- 초조대장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 간행을 넘어, 고려가 동아시아 불교 세계에서 학문적·종교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자 한 노력을 보여줌.
- 이는 고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하며, 이후 재조대장경 간행의 기틀을 마련함.

학습정리

1. 『보협인다라니경』의 간행시기, 특징

- 『보협인다라니경』은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개성의 총지사에서 간행되었으며, 변상도와 정교한 판각이 특징임
- 본문은 다라니의 공덕과 구원을 설파하며, 불교 교리를 전하는 데 활용되었음
- 중국 오월국판을 참고해 제작되었으나, 글자체와 변상도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였고, 인쇄 품질도 뛰어났음
- 이는 고려 초기의 정각본으로, 동아시아 불교 경전 간행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2. 초조대장경의 간행시기, 특징

-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년) 거란의 침입을 계기로 시작되어 선종 4년(1087년)에 완성되었음
- 국난 극복과国泰民安을 기원하며, 불교 신앙과 문화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음
- 동양 최대 규모의 대장경으로, 피휘나 결획 없이 독창적 판각 체계를 따랐고, 글자의 정교함과 판화의 약동성이 돋보였음
- 이는 고려 전기 불교와 목판 인쇄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임

8주차 2차시



조선시대 목판본

학습목표

1. 고사찰요, 누판고 등의 사례를 통한 관판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간행 목적을 통해 사찰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왕·왕실판본 의미를 알고 주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4. 문헌 속 사례를 통해 서원판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5. 사가판본의 특징을 알고 주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6. 방각판본의 의미를 알고 발행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완판, 태인판, 금성판, 경판, 안성판, 달성판, 달서판)를 구분할 수 있다.
7. 방각판본의 주제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관판본, 사찰본, 국왕·왕실판본
2. 서원판본, 사가판본, 방각본

핵심 keyword

- 판서본
- 화주
- 자판승
- 연판승

학습하기 1

관판본, 사찰본, 국왕·왕실판본

1) 관판본

(1) 개념 및 중요성

- 관판본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행한 서적을 의미하며, 중앙 관서와 지방 관서에서 각각 출판한 책을 총칭함.
- 중앙관서는 조선 왕조의 송유우문(崇儒右文)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유교 경전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서와 시문집을 간행하여 보급함. 이는 국가 이념의 확립과 유교적 통치질서의 유지에 기여함.
- 지방관서 역시 중앙의 명을 받아 책을 간행하거나, 지역 특수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적을 제작하기도 함.

(2) 중앙관서의 간행 활동

- 중앙관서에서는 대규모로 서적을 간행하여 국가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 함.
- 주요 기관으로는 교서관, 주자소, 전교서, 언문청, 간경도감 등이 있음.
- 교서관 : 경전 및 유교 관련 서적을 주로 간행함.
- 주자소 : 금속활자 제작과 함께 활자본 인쇄를 담당함.
- 간경도감 : 불경과 관련 서적의 번역 및 간행을 수행함.
- 대표적인 중앙관서 간행본으로는 『성리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 등이 있음. 이들 서적은 유교 학문 체계를 보급하고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제작됨.

(3) 지방관서의 역할과 특징

- 지방 관서는 주로 중앙의 명령에 따라 책을 간행하였으나,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서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 지방관서에서 간행된 서적은 중앙관서의 간본을 번각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판각의 품질이나 기술 수준은 다소 차이가 남.
- 지방관서에서 제작한 서적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독창성을 지닌 경우가 많으며, 지역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4) 관판본의 간행 기록

① 『고사촬요(攷事撮要)』

- 1554년(명종 9) 어숙권이 편찬한 서적으로, 전국 8도의 목판 서적을 조사하고 기록함.
- 1585년(선조 18) 허봉이 증보하여 총 980종의 지방관판본 서적을 수록함.
- 지방관서의 간행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 자료로 평가됨.

② 『누판고(鑪版考)』

- 1796년(정조 20) 서유구가 편찬한 책으로, 중앙 및 지방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총망라하여 조사함.
- 서원, 사찰, 개인 집단 등 사사기관에서 간행한 책판까지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함.
- 조선 후기 목판본 연구와 인쇄 문화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간주됨.

(5) 관판본의 특징

- 중앙관서본은 판각과 인쇄 품질이 매우 정교하며, 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널리 보급함.
- 지방관서본은 중앙 관서의 판본을 번각하거나, 지역적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남.
- 관판본은 국가적 이념과 정책, 당시 출판 기술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

2) 사찰본

(1) 개념 및 의의

- 사찰본은 불교의 포교 및 신도들의 공덕을 기원하며 사찰에서 간행한 서적을 지칭함.
- 불교 경전뿐 아니라 『천자문』, 『유합』, 『명심보감』, 『통감절요』 등의 유교 관련 서적도 번각하여 간행함.
- 조선시대에는 송유역불 정책으로 인해 사찰의 간행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불교 문화를 전승하고자 서적 간행을 지속함.

(2) 간행 목적

- 주로 불교 포교와 신앙적 실천을 위해 간행됨.
- 신도들이 공덕이나 명복을 기원하며 시주를 통해 경전을 제작하고 사찰에 봉헌함.

(3) 사찰본의 특징

① 시대별 성격

- 15세기 : 주로 성달생, 성개, 최사립 등이 판서본을 바탕으로 새긴 사찰본이 등장함.
- 16세기 : 기존의 사찰본을 번각하거나, 중앙관서본과 국왕·왕실판본을 번각한 서적이 주를 이룸.

② 조선시대의 사찰본

- 고려시대에 비해 판각 기술이 다소 낮아졌으나, 간행 과정과 기술은 목판 인쇄술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책 끝에 간역승(간행 참여 승려)의 명단이 기재되어 간행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음.

③ 학술적 가치

- 사찰본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기술 수준을 반영하며, 불교사 및 인쇄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3) 국왕·왕실판본

(1) 개념과 의의

- 국왕 및 왕실 구성원이 국가적 안녕과 개인적 공덕을 기원하며 간행한 서적을 지칭함.
- 왕실의 재정을 통해 제작된 판본은 정교함과 우아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예술적 가치를 지님.
- 국왕 및 왕실판본은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권위의 상징물로도 기능함.

(2) 주요 특징

① 정교한 제작 기술

- 판각, 인쇄, 장정 모두 최고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서체와 장식적 요소가 아름다움.
- 대표적인 판본으로 『요법연화경』(1470년)과 『예념미타도량참법』(1474년) 등이 있음.

② 독창성과 귀중성

- 국역본, 독자적 내용을 담은 판본 등 다양한 유형의 판본이 존재하며, 이는 학문적·역사적 가치를 높임.
- 왕실판본은 불교 신앙뿐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화적 산물로 간주됨.

(3) 학술적 가치

- 국왕·왕실판본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와 불교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 전기 문화사의 중요한 축을 이룸.
-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서지학, 미술사, 종교사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됨.

학습하기 2

서원판본, 사가판본, 방각본

1) 서원판본

(1) 개념

- 서원판본은 조선시대 유학 교육기관인 서원에서 간행한 서적을 총칭함.
-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으로 유교적 학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었으며,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적을 제작해 보급하거나 교환하기도 함.

(2) 특징

- 1796년(정조 20)에 편찬된 『누판고(鑄版考)』에는 서원이 184종의 책판을 간행한 것으로 기록됨.
- 사액서원(국왕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서원)은 전적 반사의 특혜를 받아 어서각에 서적을 보관함.
- 서원에서 간행된 책은 지방관이나 사가에서 기증받거나 자체 제작된 경우가 많았음.
- 판각 기법이 낮은 수준이라 인쇄된 서적이 조잡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했음.

(3) 의의

- 서원판본은 조선시대 학문과 교육의 지방화 및 유교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
- 판본의 질은 다소 낮았으나, 유학 경전의 보급과 서원 간 학문 교류를 촉진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2) 사가판본

(1) 개념

- 사가판본은 개인이 자비를 들여 간행한 서적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기증이나 교환을 목적으로 간행됨.

(2) 특징

- 고려시대에는 불서와 문집류가 많았으나, 조선시대에는 시문집, 전기, 족보류가 중심이 됨.
- 시문집은 주로 저자의 후손, 친척, 문하생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 간행함.
- 때로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문인들이 지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적을 간행하기도 함.
- 양반 가문은 문벌과 혈통을 유지하고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가판본을 제작하는 데 적극적이었음.
- 비용 절감을 위해 제작된 사가판본은 판각의 질이 낮고 인쇄가 거칠어 서적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3) 주요 사례

- 이색의 『목은집』, 길재의 『아은시집』, 권근의 『양촌집』, 서거정의 『사가집』 등이 대표적임.
- 이러한 서적은 당시 사가에서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함.

3) 방각판본

(1) 개념

- 방각판본은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행한 목판본을 지칭함.
- 주로 아동 교육 교재, 과거시험 준비서, 실용서적, 한글 소설 등을 제작해 서민층 독자에게 보급함.

(2) 특징

- 16세기 기록에는 서울 수표교 근처의 민간업자가 목판을 새겨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음.
- 조선 후기에는 서민 교육 및 실용적 독서 수요가 증가하며 방각판본의 생산과 보급이 크게 늘어남.

(3) 방각본의 종류

① 완판(完板)

- 완판은 전주를 중심으로 간행된 방각본을 말하며, 완산, 완서, 풍폐, 완남, 완구 등의 지역 명칭을 띤 판본들이 포함됨.
- 대표적으로 하경룡이 제작한 하경룡장판이 있음.
- 하경룡장판은 조선 후기 방각본 중 가장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제작된 것으로, 사서삼경 언해본, 대전류 편찬본 등을 포함함.
- 하경룡은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여 책의 상업적 신뢰를 높였고,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해 실용적이고 교육적인 서적을 제작함.
- 전주 완판본은 문학적 가치뿐 아니라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여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이를 통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보급에 기여함.

② 태인판

- 태인 지역에서 제작된 방각본으로, 손기조, 전이채, 박치유 등이 대표적인 제작자로 알려짐.
- 손기조는 『명심보감초』를 간행하며 방각본 시장에서 아동 교육과 도덕 교양을 중시하는 출판물을 제작함.
- 전이채와 박치유는 『고문진보』, 『사요취선』, 『사문유취』, 『농가집성』, 『구황보유방』 등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간행함.
- 『농가집성』은 농업 기술 및 관리법을 다룬 실용서로, 농민과 지주에게 큰 인기를 끌었음.
- 『구황보유방』은 흉년과 기근 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대체물 및 생존 방법을 소개한 책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았음.
- 태인판은 실용서와 교육서를 주로 간행하였으며, 지방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식 공유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

③ 금성판

- 금성판은 광주 지역에서 제작된 방각본으로, 특히 소설과 대중적 서적이 주로 간행됨.
- 대표적인 간행물로는 『구운몽』(1725년, 영조 1), 『어정주서백선』(1860년, 철종 11) 등이 있음.
- 『구운몽』은 김만중이 쓴 고전 소설로, 서민과 상류층 독자들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조선 후기 문학적 감수성을 대변함.
- 『어정주서백선』은 유학 경전의 핵심 부분을 간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용적 판본임.
- 금성판은 대중성과 문학적 성 모두를 겸비한 방각본으로, 조선 후기 문학과 교육의 지역적 중심지 역할을 함.

④ 경판(京板)

- 경판은 서울에서 간행된 방각본을 총칭하며, 조선 후기 가장 활발히 제작된 방각본 중 하나임.
- 주요 제작 지역으로 정동, 무교, 석정동, 광고, 효동, 자암동, 홍수동 등이 있음.
- 경판은 수도인 서울에서 제작된 만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책이 많음.
- 경서와 과거 시험 준비서는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됨.
- 한글 소설, 시문류, 예례서, 한의서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간행하여 서민부터 지식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함.
- 특히 경판은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각과 인쇄 기술이 뛰어나고 정교하며, 유통망이 넓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점이 특징임.

⑤ 안성판

- 안성 지역에서 제작된 방각본으로,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통되었음.
- 안성판은 소규모 출판이 주를 이루었으며, 간행 연대와 제작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서적과 교육서가 주를 이루며, 책의 품질은 경판이나 완판에 비해 다소 떨어짐.

⑥ 달성판·달서판

- 대구 지역에서 제작된 방각본으로, 지역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간행됨.
- 달성판과 달서판은 교육 목적의 교재뿐만 아니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서적도 간행하여 대구 지역 독서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대구 지역의 풍부한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제작된 이 판본들은 지역 문화와 학문을 보급하는 데 기여함.

(4) 방각본의 주제 및 내용

- 방각본은 대체로 서민층과 실용적인 독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제작됨.
- 교육서 : 『명심보감』과 같은 아동 학습용 교재.
- 과거시험 준비서 : 사서삼경, 경서 및 과거 준비에 필요한 요약서.
- 한글 소설 : 『구운몽』과 같은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작품.
- 실용서 : 한의학, 농업 기술, 생존 지침서, 산학(數學), 예례서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제.
- 오락성 서적 : 소설과 시문류를 중심으로 대중적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

(5) 의의

- 방각본은 조선 후기 문헌의 대중화와 독서 저변 확대를 이끌며, 교육 및 실용 정보를 서민층까지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다양한 지역별 방각본은 지역적 특색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조선 후기 출판문화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줌.
- 방각본은 당시 사회의 학문적, 문화적,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조선시대 독서문화의 저변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함.

학습정리

1. 관판본, 사찰본, 국왕·왕실판본

- 관판본은 국가가 중앙 관서(교서관, 주자소 등)와 지방 관서에서 제작한 서적으로, 유교 경전, 역사서 등을 간행해 국가 이념과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
- 사찰본은 사찰에서 불교 포교와 신도들의 공덕 기원을 위해 제작된 서적으로, 불교 경전뿐 아니라 유교 관련 서적도 포함되었음
- 국왕·왕실판본은 국왕과 왕실이 국가 안녕과 공덕을 기원하며 간행한 서적으로, 정교한 제작 기술과 예술적 완성도를 자랑함
- 이들 판본은 당시 출판 기술과 문화적, 종교적 이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2. 서원판본, 사가판본, 방각본

- 서원판본은 유교 교육기관인 서원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해 간행한 서적으로, 유학 경전 보급에 기여했으나 품질은 낮은 편이었음
- 사가판본은 개인이 자비로 간행한 서적으로, 시문집, 족보 등이 많으며,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강조하는 데 활용되었음
- 방각본은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서적으로, 한글 소설, 교육서, 실용서 등을 대중에게 보급하며 조선 후기 독서문화의 확산에 기여했음
- 방각본은 지역별로 완판, 경판, 태인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대중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음

9주차 1차시

■ 활자본 1 -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

학습목표

1. 문헌 속 기록을 통해 관서에서 금속활자 주조가 이루어진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2. 문헌 속 기록을 통해 사찰 및 민간의 금속활자 주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문헌 속 사례를 통해 서원판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4. 금속활자의 인쇄과정을 고착식, 조립식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관서, 사찰, 민간의 금속활자 주조
2. 금속활자의 인쇄과정

핵심 keyword

- 금속활자
- 주조방법
- 인쇄과정

학습하기 1

관서, 사찰, 민간의 금속활자 구조

1. 관서의 금속활자 구조

1) 13세기 전기 주자판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중조본 번각(重彫本 翻刻)

-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본 중 가장 초기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금속활자 구조 과정이나 제작 기술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 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움
- 초기 금속활자본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인쇄 면에서 기술적 미숙함이 드러남
- 글자가 번지거나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활자의 정밀도와 인쇄 품질이 부족했던 점을 보여줌

2) 조선조 중앙관서의 활자 구조 방법(성현의 『용재총화』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1) 글자본 제작

① 글자 크기 결정

- 구조 전에 필요한 글자의 크기를 결정함. 이는 책의 판형과 글자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를 정하는 과정임.

② 글자본 작성

- 필요한 글자의 수를 산정하고, 각 글자를 정성껏 써서 준비함. 기존에 인쇄된 서적에서 글자를 참고할 경우 부족한 글자만 새로 써서 보충함.

(2) 글자본을 나무에 새김

① 나무판 준비

- 나무판은 글자를 새기기 위한 재료로, 황양목(黃楊木)과 같은 단단하면서도 조각하기 쉬운 나무를 사용함

② 새김 과정

- 작성된 글자본을 나무판에 붙이고, 각수(刻手)가 글자 모양을 따라 조각 칼로 세밀히 새김
- 새겨진 글자는 싯톱으로 잘라내 일정한 크기로 손질되며, 각 글자의 크기가 균일하도록 조정함
- 김 과정은 목공장이와 각자장(刻字匠)의 협업으로 이루어짐

(3) 어미자 심기

① 해감 모래 준비

- 주물장(鑄物匠)은 갯벌에서 채취한 고운 해감(海砂) 모래를 거꾸집으로 사용함
- 모래는 판판하게 갈아 글자본이 정교하게 찍히도록 준비하며, 이는 구조 과정의 핵심 단계임

② 어미자 배치

- 나무에 새긴 글자본(어미자)을 글자 면이 위로 오도록 모래 거꾸집에 심음
- 어미자가 일정한 깊이(약 3분의 2 정도)로 들어가도록 눌러 고정하며, 줄을 맞춰 정렬함

(4) 가지쇠 박기와 구조

① 가지쇠 설치

- 어미자 심기가 완료되면, 가지쇠를 박아 쇳물이 흐를 수 있는 홈길을 만듦
- 가지쇠는 거꾸집 위를 덮고 눌러 다져 글자 자국을 선명히 남김

② 주조

- 쇳물을 하나의 구멍으로 붓고, 흠길을 따라 쇳물이 글자 자국으로 흘러들어가 활자 형태를 만듦
- 쇳물이 식고 굳으면 거꾸집을 분리하여 완성된 활자를 꺼냄

(5) 활자 다듬기

① 활자 분리

- 가지쇠에 매달린 활자를 하나씩 떼어냄. 이 과정에서 활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분리된 활자는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음

② 완성

- 다듬어진 활자는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며, 인쇄에 적합한 품질을 가짐
- 이후 활자는 서적 인쇄에 사용되며, 동일한 품질의 서적을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됨

2. 사찰의 금속활자 주조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기능보유자인 고(故) 오국진 선생은 『직지심체요절』 복원 작업을 통해 밀랍주조법에 의한 금속활자 제작 과정을 재현함
- 밀랍주조법은 초기 금속활자 제작에서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자 제작 기술의 정수로 평가됨

1) 글자본 선정

- 금속활자 제작의 첫 단계로, 제작할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자본을 선정하고 글자의 크기와 수량을 결정함

(1) 수서법

- 서예가나 유명 인사에게 의뢰하여 필사된 글자를 자본으로 사용함
- 또는 원고 작성자나 활자 제작자가 직접 필사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필체를 자본으로 삼음

(2) 모사법

- 기존에 간행된 서적의 글자체를 모방하거나 베껴 자본으로 제작함
- 『직지심체요절』 복원 작업에서 모사법을 활용하여 원본 글자를 재현함

(3) 판본법

- 이미 간행된 서적의 판본이나 원고 작성자의 정서본에 나타난 글자를 자본으로 활용함

2) 글자본 붙이기

- 글자본이 선정되면, 활자의 기본 틀이 될 판형 틀을 제작함.
- 밀랍 판형 제작: 밀랍을 녹여 틀에 붓고 응고시킨 뒤, 판형 틀을 제작함.
- 제작된 밀랍 판형 위에 자본을 뒤집어 붙여 글자 형태를 판형에 고정함.

3) 어미자 만들기

- 밀랍 판형에 고정된 자본을 바탕으로 양각 작업을 통해 어미자를 제작함.
- 조각 작업: 조각칼을 사용하여 밀랍 판형의 글자 부분을 양각으로 새김.
- 세부 손질: 양각된 글자의 획, 굵기, 모서리 등을 정교하게 다듬음.
- 크기 조정: 글자 크기가 일정하도록 조각된 글자를 잘라 개별 어미자로 완성함.

4) 밀랍 가지 만들기

- 밀랍 봉을 사용하여 가지를 제작하고, 이를 어미자에 연결하여 어미자 가지를 만들.
- 어미자 가지는 각 글자가 연결된 상태로 제작되어, 주형 작업 시 글자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움.
- 밀랍 가지는 녹는 성질을 활용하여, 이후 주형 제작 시 주물토를 덮은 상태에서 쉽게 제거됨.

5) 주형(거꾸집) 만들기

- 어미자 가지에 주물토(모래, 황토 혼합물)를 발라 주형을 제작함.
- 주물토 준비: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주물토를 어미자 가지에 얇게 바르고 굳힘.
- 밀랍 제거: 주형이 완전히 굳으면 열을 가해 밀랍 어미자 가지를 녹여 제거함.
- 이 과정에서 밀랍이 제거된 공간은 글자 모양의 빈 틀이 되어, 이후 쇳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됨.

6) 쇳물 붓기

- 녹인 청동을 주형에 부어 활자를 제작함.
- 온도 조절: 주형과 쇳물의 온도를 유사하게 맞춰야 균일한 품질의 활자가 제작됨.
- 공기 차단: 거꾸집의 내부 공기를 차단하여, 쇳물이 고르게 흘러 활자의 세부가 선명하게 형성됨.

7) 완성된 구조 활자

- 주형 제거: 쇳물이 식으면 단단해진 거꾸집을 파내거나 깨서 완성된 활자를 꺼냄.

8) 활자 다듬기

- 분리 작업: 가지쇠에 매달린 활자를 쇳톱으로 하나씩 분리함.
- 정밀 작업: 줄을 사용하여 활자 가장자리를 다듬고, 글자 면을 평평하게 손질함.
- 보관 및 분류: 다듬어진 활자를 분류하고 보관함. 이는 이후 인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함.

3. 민간의 금속활자 구조

- 『東國厚生新錄』에 소개됨

- 1) 찰흙을 고운 가루로 빵아 물과 섞어 반죽을 준비한다.
- 2) 나무판에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찰흙을 평평하게 깔아 단단히 다진다.
- 3) 찰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햇볕 아래 반쯤 건조시킨다.
- 4) 얇은 한지 위에 대소 글자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 5) 한지에 적은 글자를 나무판 위에 뒤집어 붙인 뒤, 녹인 밀랍을 부어 고정한다.
- 6) 조각칼로 글자 모양을 음각으로 새겨 글자본을 제작한다.
- 7) 쇳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홈을 만들기 위해 가지쇠를 설치한다.
- 8) 글자를 새긴 틀 위에 쇳물을 국자로 떠 부어 홈을 따라 글자 자국에 채운다.
- 9) 쇳물이 굳으면 진흙 틀을 제거해 가지쇠에 연결된 활자를 분리한다.
- 10) 가지쇠에 달린 활자를 줄로 깎고 다듬어 완성된 활자를 만든다.

학습하기 2

금속활자의 인쇄과정

1. 금속활자의 인쇄과정

- 금속활자 인쇄는 초기에는 고착식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립식 방식으로 발전

1) 조립식 판짜기

(1) 인판 틀(우리) 준비

- 금속활자를 배열하기 위해 동(銅)으로 만든 인판 틀(우리)을 준비
-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책에서는 광곽(본문의 테두리)과 계선(글자를 나누는 선)이 고정된 두 개의 인판 틀을 번갈아 사용하여 인쇄를 진행

(2) 판심 및 장식 작업

- 판의 중심에 판심(책 제목, 권수, 장차 등의 정보)을 마련하고, 그 주변에 어미(장식용 문양)와 흑구(검은색 점과 같은 보조 장식)를 배치
- 계선을 정리하기 위해 철제 칸막이 또는 대나무 칸막이를 사용하여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균일하게 유지

(3) 원고 부르기(창준)

- 원고나 이미 간행된 책의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 내용을 확인

(4) 문선하기(택자장)

- 창준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쇄에 사용할 활자를 찾아내어 원고 순서대로 배열
- 활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활자를 빠르게 찾는 일은 수장(활자 관리인)이 담당

(5) 식자하기(식자공)

- 배열된 활자를 인판 틀 위에 올려 놓음
- 식자는 활자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며, 글자가 정확히 정렬되도록 작업

(6) 활자 수평잡기(균자장)

- 인판 위에 배열된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수평을 조정
- 대나무 조각이나 파지(떼지)를 활용하여 활자 사이의 틈을 메우고, 활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 마지막으로 평판으로 눌러 활자 면이 평평하고 매끄럽게 정렬되도록 함

(7) 먹물 칠하기

- 인쇄를 위해 활자 표면에 먹물을 칠함
- 금속활자에는 먹물이 잘 묻도록 유연묵(기름 먹)을 사용하며, 이는 활자와 종이의 밀착도를 높이고 선명한 인쇄를 가능하게 함

(8) 애벌 인출하기(인출장)

- 먹물이 묻은 활자 위에 종이를 올리고, 말총이나 인체(털 뭉치)로 문질러 종이에 인쇄를 함

(9) 교정하기

- 애벌로 인쇄한 종이는 주색(붉은 표시)으로 교정
- 오류 수정 : 오자(잘못된 글자), 탈자(빠진 글자), 비뚤어진 활자, 거꾸로 배열된 활자, 먹물이 지나치게 진한 활자 또는 흐릿한 활자
- 교정은 감교관(문신 중 임명)이 담당하며, 교정이 완료되면 해당 인쇄물에 '교정'이라는 고장이 찍혀 품질이 보증

(10) 인쇄하기

- 교정 작업이 끝난 후, 필요한 부수만큼 종이를 인쇄
- 이 과정은 감인관(교서관 소속 인쇄 담당자)이 담당하며, 인쇄물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인

학습정리

1. 관서, 사찰, 민간의 금속활자 구조

- 관서의 금속활자 구조: 고려 초기 금속활자 제작은 기록이 미흡하지만,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서 초기 인쇄 기술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 조선에서는 성현의 『용재총화』를 바탕으로 정교한 제작 방식(글자본 제작, 어미자 심기, 가지쇠 활용)을 체계화함.
- 사찰의 금속활자 구조: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복원된 밀랍주조법은 글자본 선정부터 주형 제작, 주조, 다듬기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침. 『직지심체요절』 복원이 대표 사례임.
- 민간의 금속활자 구조: 『동국후생신록』에 기록된 방식으로, 찰흙, 밀랍, 가지쇠 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활자를 제작했음.

2. 금속활자의 인쇄과정

- 조립식 인쇄: 금속활자를 동 인판 틀에 배열하여 인쇄. 판심, 장식 작업 후 식자공이 활자를 정렬하고 균자장으로 수평을 맞춤.
- 인쇄 준비: 유연묵을 사용하여 먹물을 칠하고 애벌 인출을 통해 오류를 교정함. 감교관이 교정을 마치면 본격적인 인쇄에 돌입.
- 인쇄 완료: 감인관이 관리하며 필요한 부수를 제작함. 이는 초기 문헌 보급과 보존의 혁신적 전환점이 되었음.

9주차 2차시

■ 활자본 2 - 목활자의 제작과 인쇄

학습목표

1. 목활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용도, 책 이름에 따라 목활자본의 명칭을 구분할 수 있다.
2. 문헌 속 기록을 통해 목활자의 제작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목활자의 인쇄 과정을 단계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목활자의 제작
2. 목활자의 인쇄

핵심 keyword

- 목활자
- 제작과정
- 인쇄과정

학습하기 1

목활자의 제작

1. 목활자의 제작

1) 목활자본의 개념

- 목활자본은 나무에 글자를 하나씩 새겨 만든 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인쇄한 것을 말함.
- 이 목활자는 나무를 활용해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금속활자에 비해 제작이 쉬웠고, 초기 인쇄 기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음.
- 중국에서는 북송 시대 심괄의 『몽계필담』에 필승(畢昇)이라는 인물이 점토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활용한 목활자가 주로 사용되었음.
- 우리나라 목활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 태조 4년(1395년)과 태조 6년(1397년)에 인쇄된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 있음. 이 책은 몇 종만이 현재 전해지고 있으며, 초기 목활자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됨.

2) 목활자본의 명칭

- 목활자본은 주로 활자를 제작한 주체 또는 간행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짐.

(1) 제작자나 기관명에 따라 이름을 붙임.

예 : 장훈자본, 훈련도감자본, 공신도감자본, 서적원자본 등.

(2) 용도에 따라 이름이 붙음.

예 : 실록자본(實錄字本) : 실록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활자본.

(3) 책 이름에 따라 명칭을 정하기도 함.

예 : 『동국정운자본』, 『호음자본』.

(4) 이외에도 정식 명칭 없이 전래되는 목활자본들이 다수 존재함.

3) 목활자의 제작 방법

- 목활자의 제작 과정은 원나라 왕정의 『농서』, 조선 후기 서유구의 『임원십육지』, 유탁일의 연구 「한국 목활자 인쇄에 대하여」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1) 글자본 정하기

- 목활자 제작은 글자본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됨. 이는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할 기본 글자 표본을 결정하는 과정임.
- 글자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선택함
- 수서법 : 활자의 규격에 맞게 직접 글씨를 씀.
- 모사법 : 기존 서적의 글씨를 모사하여 글자본을 제작함.
- 판본법 : 이미 인쇄된 책에서 글자본을 추출함.
- 글자의 크기에 따라 대자, 중자, 소자로 구분하며, 어미자와 조사 등 자주 쓰이는 글자는 여러 벌 제작함.

(2) 활자 제작용 나무 준비

- 목활자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는 연하고 오래 견딜 수 있으며, 먹물 흡수에 적합한 나무여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황양목(黃楊木), 박달나무, 돌배나무, 산벚나무, 자작나무 등이 주로 사용됨.

- 이러한 나무들은 가공이 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활자로 사용하기 적합함.

(3) 연판처리

① 통나무 처리

- 나무를 바닷물이나 민물에 일정 기간 담가 진액을 제거함. 이는 나뭇결을 부드럽게 하여 글자를 새기기 쉽게 만드는 과정임.

② 건조

- 나무를 통풍이 잘되는 음지에서 충분히 말림.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어야 글자를 새길 때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음.

③ 판재 제작

- 통나무를 필요한 크기로 잘라 판재로 만듦. 대패질을 통해 글자를 새길 면을 매끄럽게 다듬음.

④ 각목 제작

- 글자의 높이와 크기에 맞게 나무를 각목 형태로 잘라 활자 제작 준비를 마침.

(4) 활자 새김

- 글자본을 각목의 전면에 풀로 붙임. 이때 글자본은 글자의 거울상 형태로 붙임.
- 글자본에 따라 글자를 한 획씩 정교하게 새김.
- 글자가 많은 경우, 자주 쓰이는 조사는 10벌 이상 제작하여 조판에 대비함.

(5) 활자 다듬기

① 싯톱으로 분리

- 각목을 싯톱으로 잘라 글자 단위로 분리함.

② 사면 다듬기

- 작은 칼로 활자의 외곽을 다듬어 글자 모양과 획을 가지런히 만듦.

③ 높이 조정

- 활자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춤으로써 조판 시 글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함.

④ 보관

- 완성된 활자는 활자함에 정리하여 필요 시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

학습하기 2

목활자의 인쇄

1. 목활자의 인쇄

1) 인판 틀 준비

- 인쇄의 첫 단계는 인판 틀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는 활자를 고정시키고 종이에 내용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과정임.
- 인판 틀은 적당한 크기와 두께로 자른 판목을 사용해 제작하며, 계선용 대나무 조각을 다량 준비함.
- 계선은 글자의 줄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인쇄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2) 인판 틀 장식

- 인판 틀 중앙에 판심(版心)을 배치함. 판심은 페이지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요소로, 책의 제목, 권수, 장수 등의 정보를 담음.
- 판심 외에도 어미(魚尾), 흑구(黑口), 판심제(版心題), 장차(張次) 등의 요소를 추가함. 이는 책의 접지와 장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장식들임.
- 이러한 장식은 책의 미관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에도 기여함.

3) 조판하기

- 조판은 활자를 인판 틀에 배열하여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임. 이는 섬세한 작업으로, 각 문자가 정확히 위치 하도록 정교하게 조정함.
- 조판 과정의 세부 단계

(1) 원고 준비

- 창준(唱準)이 원고 내용을 차례대로 부르며, 이를 바탕으로 문선이 필요한 활자를 찾음.

(2) 활자 배열

- 문선은 필요한 활자를 골라내어 한 판에 인쇄할 분량을 조판 틀에 맞추어 배열함.

(3) 밀랍 깔기

- 인판 바닥에 밀랍을 깔아 활자를 고정함. 밀랍의 높이는 계선보다 약간 낮게(2~3mm) 조정하여 활자가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함.

(4) 밀골판 사용

- 밀골판을 이용해 밀랍의 윗면을 고르게 다듬어 활자가 흔들리지 않게 함.

- 조판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

- ① 밀골 : 조판 해제 및 밀랍 제거 시 사용.
- ② 밀골판 : 밀랍을 고르게 펴거나 행간을 정리할 때 사용.
- ③ 식자대칼 : 활자의 높이와 정렬을 고르게 맞춤.
- ④ 송곳 : 활자 고정 및 제거에 사용하며, 제본 과정에서도 활용됨.
- ⑤ 대젓가락 : 활자를 인판 틀의 행간에 넣고 고정하는 데 사용함.

4) 활자면 수평 잡기

- 활자를 모두 배열한 뒤, 활자 다지개와 평판을 사용해 활자 면을 단단히 다지고 평평하게 눌러 활자가 수평을 이루게 함.
- 이는 인쇄 과정에서 먹물이 고르게 발리고 종이에 정확히 찍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작업임.

5) 초벌 인쇄하기

- 초벌 인쇄는 조판된 활자가 정확히 배열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정을 위해 초안본을 찍어내는 과정임.
- 초벌 인쇄 과정

(1) 먹물 준비

- 목활자 인쇄에는 송연먹(松煙墨)이 적합함.
- 송연먹은 잘게 분쇄한 뒤 물에 담가 풀고, 적당량의 알코올을 섞어 점도를 맞춤.

(2) 먹물 칠하기

- 먹솔을 사용해 활자 면에 먹물을 고르게 칠함.

(3) 초벌 인쇄

- 먹물을 칠한 활자 면 위에 종이를 놓고, 인쇄(印髡)로 종이 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초벌본을 인쇄함.

6) 교정 및 인쇄하기

- 초벌 인쇄 후, 인쇄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교정 작업을 진행함. 이는 활자 인쇄의 정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계임.

(1) 오자 및 탈자 확인

- 초벌본을 검토하여 오자(誤字), 탈자(脫字), 뺄뚫어진 활자 등을 수정함.

(2) 교정 도구 사용

- 뺄뚫어진 활자는 송곳으로 조정하고, 필요 시 활자를 교체함.

(3) 교정 서명

- 교정 작업이 완료되면 균자장(均字匠)과 감교관(監校官)이 교정본에 서명함.

(4) 최종 인쇄

- 교정이 끝난 조판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함.
- 인쇄 작업이 완료되면 감인관(監印官)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함.

7) 제본 및 장책

- 마지막 단계로, 인쇄된 종이를 순서에 따라 접어 정리한 뒤, 책 형태로 제본함.
- 제본 작업은 장정 방식에 따라 권축장, 절첩장, 선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종이를 단단히 묶고 표지를 씌워 최종적으로 책을 완성함.

학습정리**1. 목활자의 제작**

- 목활자는 나무로 만든 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인쇄한 것으로,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여 초기 인쇄 기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음
- 제작 과정은 글자본 선정, 나무 준비, 연판처리, 글자 새김, 활자 다듬기로 이루어지며, 황양목,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이 주로 사용되었음
- 글자본은 수서법, 모사법, 판본법을 통해 작성되며, 글자를 거울상으로 새긴 후 싯톱으로 분리하고 균일한 높이로 다듬어 보관했음

2. 목활자의 인쇄

- 목활자 인쇄는 인판 틀 준비와 조판 작업으로 시작되며, 판심, 어미, 흑구 등 장식을 추가하여 인쇄의 품질과 실용성을 높였음
- 조판 작업에서는 활자를 배열하고 밀랍으로 고정하여 수평을 잡은 후 초벌 인출로 오류를 확인하고 교정 작업을 거쳤음
- 최종 인쇄 후 제본과 장책 작업을 통해 완성된 서적을 제작하였으며, 권축장, 선장 등 다양한 장정 방식을 활용했음

10주차 1차시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학습목표

1. 직지심체요절의 체제를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프랑스가 직지심체요절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알고 직지심체요절이 재발견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3. 직지심체요절의 서지적 특징(형태적 특징, 금속활자본으로서의 특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서의 직지심체요절의 역사적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직지심체요절의 특징
2. 직지심체요절의 의의

핵심 keyword

- 직지심체요절
- 편저자

학습하기 1

직지심체요절의 특징

『직지심체요절』의 간행 및 역사적 배경

-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고려 우왕 3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해 간행된 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져 있음.
- 권말 간기에는 “선광칠년정사칠월 일 청주목외흥덕사주자인시(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책이 고려 우왕 3년에 간행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직지』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의 서양 인쇄술보다 약 78년 앞서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쇄문화사에서 혁명적인 성과로 평가받음.

1) 『직지』의 명칭

-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旨心體要節)』로, 불교 선(禪)의 요체를 간추려 엮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약칭으로는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또는 간단히 『직지』라고 불림.
- '경(經)'이라는 표현은 불교 경전을 지칭하지만, 『직지』는 경전이라기보다는 선불교 사상의 요체를 담은 선서(禪書)이므로 '직지심경'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함.

2) 『직지』의 소장 현황

- 금속활자로 간행된 하권 1책(총 38장)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음.
- 안타깝게도 상권은 현전하지 않으며, 간행 당시의 일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해짐.
- 『직지』의 목판본은 상하권 모두 전해지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영광 불갑사 등에 소장되어 있음.
- 금속활자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3) 『직지』의 편저자 : 백운화상

- 『직지』를 편찬한 백운화상(白雲和尚, 1298~1374)은 황해도 해주 안국사와 신광사에서 주지로 활동한 고려시대 고승임.
- 그는 중국 호주의 석옥선사와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뒤, 선불교 사상의 정수를 전수받았음.
- 백운화상은 성불산 성불사에서 선불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역대 여러 불조의 법어와 계송을 엮어 상하 2권으로 된 『직지』를 저술했음.
- 『직지』는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후대에 선사(禪師)와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 잡았음.

4) 『직지』의 체제와 내용

- 『직지』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며, 선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음.
- 상권과 하권에는 역대 불조(佛祖)들의 설법과 계송, 법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선(禪)의 본질과 수행을 통해 인간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법을 강조함.
- 『직지』의 핵심 주제는 “참선을 통해 사람의 본래 마음을 바로 보면,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있음.
- 이는 수행자의 실천적 지침서 역할을 하며, 불교 사상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5) 『직지』의 간행 주체와 참여 인물

(1) 석찬(釋璨)과 달잠(達湛)

- 백운화상의 제자로, 『직지』의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승들임.
- 간행을 위해 흥덕사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활용하였으며, 불교 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간행했음.

(2) 묘덕(妙德)

- 『직지』의 간행을 위해 시주를 한 비구니로, 흥덕사 금속활자본과 취암사 목판본의 제작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로 추정됨.
-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활동은 알 수 없으나, 당시 불교 여성 신도들의 기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임.

6) 『직지』의 프랑스 소장 경위

- 1887년,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가 서울에서 『직지』 하권을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음.
- 당시 『직지』는 이미 상권이 결실되었고, 하권도 일부 장이 결락된 상태였음.
- 후에 프랑스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가 이를 소장했으며,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음.
-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 중이며, 세계 인쇄술 역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음.

7) 『직지』의 특징과 가치

-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보다 약 78년 앞섬.
- 이는 고려시대 인쇄술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님.

(1) 정교한 인쇄와 편집

- 금속활자를 사용해 제작된 활자체는 정교하고, 선명한 인쇄 품질을 자랑함.
-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술로 이어지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함.

(2) 선불교 사상의 정수

- 선불교 수행과 깨달음의 본질을 전달하며, 불교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단순히 종교 서적을 넘어 철학적, 수행적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됨.

(3) 문화사적 의의

- 『직지』는 동서양의 인쇄문화사에 있어 혁신적 전환점을 제공함.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음.

학습하기 2

직지심체요절의 의의

1) 『직지』의 재발견과 세계적 인정

- 1901년 프랑스 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저술한 『한국 서지』 부록에 『직지심체요절』을 소개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짐.
-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는 국제 책 전시회에서 『직지』가 출품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공식 인정받음.
-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공인받음.
- 『직지』의 간행 장소인 청주 흥덕사는 1985년,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고, 현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직지대로 713)에 위치함.
- 199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개관하며 『직지』와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우수성을 보존·홍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음.

2) 『직지』의 서지적 특징

(1) 형태적 특징

- 『직지』는 책의 크기가 24.6 x 17.0cm로, 오침안정법에 의해 제본된 선장본(線裝本)임.
- 판식은 사주단변 형식으로, 한 면에 11행, 18~20자씩 배열되어 있으며, 주쌍행 방식으로 구성됨.
- 인쇄에 사용된 종이는 전통한지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함.
- 현재의 표지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능화판 문양이 나타나고 있음.
- 표지에는 『직지』가 간행된 1377년이라는 연대 표시가 있어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

(2) 금속활자본으로서의 특징

- 사찰에서 제작된 초기 금속활자 인쇄물로, 전통적인 인쇄 기법의 특징이 뚜렷함.

① 글자 크기와 모양

- 활자는 중소자 두 가지 크기로 제작되었으나, 같은 크기라도 활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음.
- 동일한 글자라도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당시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줌.

② 행렬과 글자 배열

- 본문 행렬이 고르지 않아, 옆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아래 글자가 겹치거나 맞물린 사례도 있음.
- 반엽의 글자 수는 행마다 18~20자로 고르지 않으며, 활자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음.

③ 글자 위치와 배열 오류

-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일부 활자는 거꾸로 식자되기도 함.
- 예를 들어, '日' 글자가 거꾸로 인쇄된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됨.

④ 글자 획과 인쇄 품질

- 글자 획의 끝이 매끄럽지 않은 너덜이 현상과, 활자를 주조할 때 생긴 기포가 일부 글자에 나타남.
- 이는 당시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한계와 초기 제작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보여줌.

⑤ 먹색과 반점

- 인쇄된 글자 면에서 먹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색이 옅거나 진한 부분이 드러남.

- 먹물이 균일하지 않아 글자 주변에 반점이 나타난 경우도 확인됨.

3) 『직지』의 역사적 의의

(1)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한국이 금속활자 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을 증명함.
-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1455년)보다 78년 앞선 기술로, 고려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됨.

(2) 인쇄술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

- 『직지』는 초기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 과정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술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
- 원나라의 억압적인 중앙 관서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이 지방 사찰인 홍덕사에서 계승·발전되었음을 보여줌.

(3) 불교 전파와 문화유산

- 『직지』는 불교 선(禪)의 핵심 사상을 집대성한 책으로, 종교적·철학적 가치를 지니며,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했음.
- 또한 사찰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해 대중적으로 불교 사상을 보급하려 했다는 점에서, 고려 불교 문화의 성숙도를 반영함.

(4) 국내외 문화적 유산의 상징

- 『직지』는 한국이 인쇄문화와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세계에 알렸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됨.
- 『직지』의 간행지인 청주 홍덕사는 오늘날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를 계승·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학습정리

1. 직지심체요절의 특징

-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고려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로, 선불교의 요체를 담은 선서(禪書)
- 현재 금속활자본 하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상권은 현존하지 않음
- 백운화상이 편찬하였으며, 선불교 사상의 핵심과 수행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 금속활자 인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음

2. 직지심체요절의 의의

- 『직지』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 인쇄술보다 78년 앞섰으며, 한국의 인쇄술 우수성을 증명함
-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술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초기 금속활자의 제작과 인쇄 특징을 보여줌
- 선불교 사상을 집대성한 종교·철학적 유산으로, 불교 전파와 수행자들의 지침서로 활용되었음
-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되어 지역 사찰이 금속활자 인쇄술 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줌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청주고인쇄박물관을 통해 보존·홍보되고 있음

10주차 2차시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학습목표

1. 계미자본이 주조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계미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2. 계미자본의 대표적인 인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3. 경자자본이 주조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경자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4. 경자자본의 대표적인 인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계미자본
2. 경자자본

핵심 keyword

- 계미자본
- 경자자본
- 갑인자계

학습하기 1

계미자본

1. 계미자본(주조, 특징, 인본)

1) 주조

(1) 제작 배경

- 계미자본은 1403년(태종 3년)에 주조된 조선 최초의 동활자본으로, 태종이 활자 인쇄술을 체계화하고 학문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함.
- 당시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부족한 동과 철을 확보하고,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대규모 활자 주조 작업을 진행함.

(2) 관련 기록 : 권근의 '계미자 주자발(鑄字跋)'

- 태종은 1403년 2월, 주자소의 설치와 함께 활자 제작을 감독할 인물들을 배치함.
- 감독 인물 : 이직, 민무질, 박석명, 이응 등 고위 관료.
- 실제 작업을 담당한 인물 : 강천주, 김장간, 유이, 김위민, 박윤영 등.
- 활자의 제작에 사용된 글자본은 경연청에 보관된 『시(詩)』, 『서(書)』, 『좌씨전(左氏傳)』 등의 옛 주석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짐.
- 제작된 활자의 크기 : 큰 자, 작은 자, 특소 자를 포함해 수십만 자가 제작됨.

2) 특징

(1) 서체와 조형미

- 계미자는 구양순체(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여 해정한 서법과 등근 필획(원필)이 조화를 이루었음.
- 활자의 글자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지 않으며, 필획의 굵기 또한 일정하지 않음.
- 글자 획이 일부 끊겨 있거나 인쇄 상태가 흐릿한 경우가 많아 조형미는 미숙한 편임.

(2) 조판 기술

- 인쇄를 위해 사주단변(四周單邊)과 계선을 고정한 동판에 밀랍을 깔아 활자를 배열함.
- 배열 후 열을 가해 밀랍을 녹인 뒤 활자를 고정시키고, 철판으로 눌러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작됨.
- 밀랍이 활자의 고정을 돕는 역할을 했으나, 응고력이 약해 활자가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활자를 각 줄에 꽉 들어맞도록 강제로 밀착시켰기 때문에, 옆줄이 맞지 않거나 글자 획이 서로 겹쳐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남.

(3) 제작 및 인쇄 품질

- 인쇄 과정에서 활자의 미세한 차이와 배열의 부조화로 인해 결과물이 고르지 못함.
- 글자 획의 선명도와 배열 정렬의 미흡함은 당시 초기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미숙함을 보여줌.

3) 대표적인 인본

(1)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 제16~17권, 총 2책.
- 현재 국보 제14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계미자의 대표적인 인본으로 평가받음.

(2)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 제4~5권, 총 2책.

- 간송미술관 소장본으로, 국보 제149호로 지정됨.

(3) 『송조표전총류(宋朝表牋總類)』

- 제7권, 총 1책.
-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 제150호로 지정됨.

(4)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 제5~6권, 총 2책(성암고서박물관 소장).
- 제7~8권, 총 1책(개인 소장).
- 조선 초기 학문과 문학의 융성에 기여한 대표적 금속활자본.

(5)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

- 제1~2권, 총 1책.
-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시 문학 작품의 금속활자 인쇄 사례를 보여줌.

4) 계미자본의 역사적 의의

① 금속활자 인쇄술 발전의 초석

- 계미자는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술의 초창기를 대표하며, 이후 활자 기술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됨.

② 조선 초기 학문 보급의 상징

- 유학 경전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간행되어, 조선 초 학문과 문화를 보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③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계미자본은 금속활자 제작 기술과 초기 인쇄술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쌓인 시행착오가 후대의 금속활자 발전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학습하기 2

경자자본

1. 경자자본(구조, 특징, 인본)

1) 구조 과정

(1) 제작 배경

- 1420년(세종 2년) 경자년에 구조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을 경자자본이라 함.
- 조선 초기 금속활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시기의 산물로, 경자자는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 활자로 평가됨.

(2) 구조 작업의 기록 : 김종직의 '신주자발'

- 1484년(성종 15년) 김종직의 기록에 따르면, 경자자의 구조 작업은 이천이 주관하였고, 남급, 김익정, 정초 등이 감독으로 참여함.
- 경자자는 계미자보다 작은 크기와 정제된 형태를 갖추며, 당시 활자 인쇄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

2) 경자자본의 특징

(1) 계미자와의 비교

- 계미자는 활자가 크고 송곳처럼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인쇄 시 밀랍에 꽂아 고정함.
- 계미자의 단점은 인쇄 도중 활자가 자주 움직이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시로 밀랍을 보충해야 했음.
- 경자자는 계미자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개량 활자로, 활자의 크기를 줄이고, 네모반듯한 형태로 고쳐 조판과 인쇄가 용이하도록 제작됨.

(2) 조판 및 인쇄 과정의 개선

- 조판용 동판에 밀랍을 부어 활자를 고착시키는 방식은 유지되었으나, 경자자는 더 안정적으로 활자를 고정할 수 있었음.
-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개선된 덕분에 하루 약 20여 장을 인쇄할 수 있게 됨.
- 계미자보다 작고 정제된 형태의 경자자는, 인쇄 과정에서 활자의 위치가 흔들리는 문제를 대폭 감소시킴.

(3) 기술적 단점

- 경자자는 인쇄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활자 크기의 일관성이 부족했음.
- 특히, 중·소활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옆줄이 일직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이러한 한계는 조선 초기 금속활자 기술이 완전히 정교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3) 대표적인 경자자 인본

(1)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 조선 초기에 간행된 주요 역사서로, 경자자로 인쇄된 대표적인 인본 중 하나임.
- 금속활자의 정교함과 인쇄술 발전의 사례로 자주 언급됨.

(2)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 이 책의 서문은 계미대자본으로 인쇄되었으며, 본문은 경자자로 인쇄된 사례임.
- 계미자와 경자자가 혼재된 인쇄 사례로 당시 활자 교체 및 기술 변화를 보여줌.

(3) 『통감속편(通鑑續編)』

- 서문은 계미대자본, 본문은 경자자본으로 인쇄된 책임.
- 계미자와 경자자의 공존과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4) 경자자본의 의의

(1)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전적 전환점

- 계미자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술의 효율성을 대폭 개선함.

(2) 조선 초기 학문 보급의 가속화

- 경자자는 안정적인 조판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인쇄가 가능해졌고, 이는 조선 초기 유학 경전 및 역사서의 대량 보급에 기여함.

(3) 기술적 성숙의 단계

- 비록 완전한 정교함은 이루지 못했지만, 경자자는 계미자에서 발견된 인쇄상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첫 사례로, 이후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음.

학습하기 3

갑인자계

1. 갑인자계 인본(주조, 특징, 인본)

1) 초주갑인자본 (1434년, 세종 16년)

(1) 주조 과정

- 조선에서 세 번째로 제작된 동활자 인본으로, 경자자의 글자체가 지나치게 작고 뾰뚱하여 가독성이 떨어지자, 이를 개량하여 주조.
- 세종의 명으로 이천이 감독하고 김돈, 김빈, 장영실, 정척, 이순지 등이 제작에 참여.

(2) 특징

- 큰 자와 작은 자를 포함해 20만 자를 주조.
- 경연 소장 서적 『효순사실』, 『위선음즐』, 『논어』 등의 글자체를 바탕으로,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이 써서 보충함.
- 글자체는 진나라의 위부인체를 본떠 '위부인자'라 불림.
- 활자의 크기가 고르고 네모반듯하며,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조판.
- 하루 40여 장 인쇄가 가능하며, 경자자의 두 배에 달하는 인쇄 효율.
- 1447년(세종 29년) 한글 활자가 초주갑인자와 함께 주조되어 병용됨.
- 조선 초기 금속활자의 최고 정점에 달한 제작 기술을 보여줌.

(3) 대표적인 인본

- 『진서산독서기을집상대학연』
- 『자치통감강목』
- 『시전대전』
- 『근사록』
- 『분류보주이태백시』

2) 경진자본 (1580년, 선조 13년)

(1) 주조 과정

- 초주갑인자를 개량하여 제작된 두 번째 갑인자본.

(2) 특징

- 초주갑인자보다 주조 정밀도가 낮으며, 글자 획이 굵고 둔탁함.
- 인쇄본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사용 기간이 짧았고, 초주갑인자보다 종수가 적음.
- 판심의 3엽화문머미가 굵고 통통하여 초주갑인자와 식별이 가능.

(3) 대표적인 인본

- 『매월당집』
- 『전주정절선생집』
- 『시전』
- 『시서』

3) 무오자본 (1618년, 광해군 10년)

(1) 주조 과정

- 초주갑인자를 세 번째로 개량하여 주조된 동활자본.

(2) 특징

- 갑인자 계열 중 가장 거칠고 둔탁하며 주조 및 인쇄 기술이 정교하지 않음.
- 글자 획이 둔탁하고 박력이 부족하며, 전래본이 드물어 가장 희귀한 갑인자본.

(3) 대표적인 인본

- 『시전대전』
- 『서전대전』
- 『황화집』

4) 무신자본 (1668년, 현종 9년)

(1) 주조 과정

- 네 번째로 제작된 갑인자 계열로, 동활자와 목활자를 혼용하여 인쇄된 책임.

(2) 특징

- 무오자본보다 정교하지만 초기 갑인자본보다는 품질이 떨어짐.
- 한글 활자와 병용되어 국역본 출판에 사용됨.
- 인쇄본 중 목활자가 섞여 있어 인쇄 품질이 일정하지 않음.

(3) 대표적인 인본

- 『잠곡선생연보』
- 『동래선생음주당감』
- 『시경언해』

5) 임진자본 (1772년, 영조 48년)

(1) 주조 과정

- 초주갑인자본 『심경』, 『만병회춘』을 본떠 동활자를 제작한 다섯 번째 갑인자본.

(2) 특징

- 정유자와 글자 모양이 비슷해 식별이 어려움.
- 활자의 뒷면을 ㄱ자 형태로 파서 접촉면을 줄이고 밀랍을 활용해 활자를 고정.
- 활자 인쇄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 기술적 발전의 사례로 평가됨.

(3) 대표적인 인본

- 『역학계몽집전』
- 『신정자치통감강목속편』
- 『원속명의록』
- 『아송』

6) 정유자본 (1777년, 정조 1년)

(1) 주조 과정

- 평안감사 서명응의 주관 하에 제작된 여섯 번째 갑인자본.

(2) 특징

- 임진자와 주조 과정에서 유사성이 크며, 글자 모양이 같아 식별이 어려움.
- 판심 윗면에 2엽화문어미 단어미가 있어 무신자본과 구별 가능.

(3) 대표적인 인본

- 『당송팔자백선』
- 『어정두록천선』
- 『청구시초』

7) 갑인자계 인본의 의의

(1) 금속활자 기술의 진화

- 초주갑인자는 조선 초기 금속활자 기술의 정점이며, 이후 계열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며 발전.

(2) 조선 출판문화의 중추적 역할

- 갑인자 계열은 학문적 유산의 보존과 보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유학 경전과 실용서를 대량으로 출판함.

(3) 기술적 한계와 혁신

- 초기에는 정교한 주조와 조판술로 평가받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주조 정밀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보임.
- 임진자에서 밀랍 활용, 활자 파면 설계 등 인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짐.

학습정리

1. 계미자본

- 1403년(태종 3년) 주자소에서 제작된 조선 최초의 동활자본으로, 대규모 주조 작업을 통해 탄생하였음
- 구양순체를 기반으로 서체가 제작되었으나, 글자 크기와 획의 균일성이 부족하며 조판과 인쇄 품질이 미흡하였음
- 대표적인 인본으로 『십칠사찬고금통요』,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등이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었음
- 계미자본은 금속활자 인쇄술 발전의 초석으로, 조선 초기 학문과 유교 경전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음
- 초기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미숙함을 보여주며, 후대 금속활자 제작 개선의 기반이 되었음

2. 경자자본

- 1420년(세종 2년)에 제작된 경자자는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한 금속활자로, 활자 크기를 줄이고 정제된 형태를 갖추었음
- 조판과 인쇄 과정이 더 안정화되어 하루 약 20여 장을 인쇄할 수 있었으나, 활자의 크기와 간격의 불균일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음
- 대표 인본으로 『자치통감강목』,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 등이 있음
- 계미자보다 개선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조선 초기 학문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였음
-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전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3. 갑인자계

- 초주갑인자본(1434년)은 경자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되었으며, 글자 크기와 배열이 균일해 가독성과 인쇄 효율이 향상되었음
- 이후 경진자본, 무오자본,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이 주조되며 금속활자 기술과 조판술이 꾸준히 발전하였음
- 대표 인본으로 『진서산독서기을집상대학연』, 『자치통감강목』, 『시전대전』 등이 있음
- 조선 초기 금속활자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유학 경전 및 실용서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 기술적 혁신과 함께 출판문화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후기에는 주조 정밀도가 낮아지는 한계도 나타났음

11주차 1차시



조선시대 목활자본

학습목표

1. 조선시대 목활자본의 종류(서적원자본, 동국정운자본, 금성자본, 추향당자본, 훈련도감자본, 인경자본, 내의원자본, 경서정음자본)를 분류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목활자본의 종류별 제작시기를 구분하고 종류별 특징을 통해 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목활자본의 종류별 대표 인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서적원자본, 동국정운자본, 금성자본, 추향당자본, 훈련도감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2. 인경자본, 내의원자본, 경서정음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핵심 keyword

- 서적원자본
- 동국정운자본
- 금성자본
- 추향당자본
- 훈련도감자본
- 인경자본
- 내의원자본
- 경서정음자본

학습하기 1

서적원자본, 동국정운자본, 금성자본, 추향당자본, 훈련도감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1. 서적원자본

1) 제작시기

- 1395년(태조 4년) : 백주지사 서찬이 목활자를 만들어 서적원에 바친 뒤 간행.

2) 특징

- 서찬이 목활자로 간행한 최초의 서적은 『대명률직해』 100여 부.
- 조선 건국 초기 서적원이 활자 인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지방 관서에서 자발적으로 목활자를 제작해 서적 간행을 지원.
- 지방 관서의 목활자 제작 및 활용의 첫 사례로, 조선 초기 인쇄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 서적원자본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된 점에서 인쇄문화사적 가치가 큼.

3) 인본

- 현재까지 『대명률직해』 외의 서적은 발견되지 않음.

2. 동국정운자본

1) 제작시기

- 1447년(세종 29년) : 『동국정운』 간행을 위해 사용된 목활자.

2) 특징

- 한자와 한글 목활자로 제작되었으며, 한자 큰 활자는 "동국정운자", 한글 큰 활자는 "동국정운 한글자"로 불림.
- 한글 활자는 고딕 인서체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형을 보여줌.
- 한자 발음을 바로잡기 위해 편찬된 『동국정운』에 사용되었으며,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국역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됨.
- 훈민정음 연구 및 조선 초기 언어학 연구의 핵심 자료임.

3) 인본

- 『동국정운』 권1, 6(2책) :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제71호.
- 『동국정운』 권1~6(6책) : 건국대박물관 소장, 국보 제142호.

3. 금성자본

1) 제작시기

- 1538년(중종 33년) : 김정국이 제작한 목활자.

2) 특징

- 금성에서 『성리대전서절요』 간행을 위해 제작된 목활자.
- 필서체를 본떠 제작, 율해자 계열 활자와 유사.
- 김정국이 목활자를 보충 제작해 『성리대전서절요』 400부를 간행.
- 활자 새김은 비교적 정교하나 보충된 활자는 조잡함.
- 지방 관서에서 목활자를 제작하여 서적 간행에 활용한 사례로, 조선 중기 지방 인쇄 문화의 대표적 사례.

3) 인본

- 『성리대전서절요』
- 『속몽구분주』

4. 추향당자본

1) 제작시기

- 활자 제작 시기는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전으로 추정.
- 1609년(광해군 원년) : 추향당에서 『자경편』 간행.

2) 특징

- 갑진자체를 본뜬 목활자.
- 활자는 이계맹이 평양감사로 재임하며 본영 내에 건립한 추향당에서 제작.
- 활자 마멸이 심하고 보자가 혼용되어, 제작된 지 오래된 활자로 추정.
- 임진왜란 이후 활판 제작 기술의 저하를 보여주는 사례.

3) 인본

- 『자경편』
- 『여어편류』 : 국립도서관 소장.
- 『송조명신언행록』 : 국립도서관 소장.

5. 훈련도감자본

1) 제작시기

- 선조 말기~인조 후기 :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에서 제작한 목활자.

2) 특징

- 훈련도감에서 다양한 목활자를 제작해 서적 간행.
- 활자 이름은 글자체에 따라 명명 : 갑인자체, 경오자체, 을해자체, 갑진자체, 병자자체 훈련도감자.
- 활자 새김과 인쇄 품질이 조잡하며, 글자 획이 고르지 않음.
- 교서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병사들이 인쇄를 수행해 인쇄문화의 명맥을 이어감.
- 조선 후기에 중앙정부의 인쇄업무를 보완한 중요한 사례.

3) 인본

- 『찬주분류도시』 권16 : 갑인자체 훈련도감자.
- 『주문공교창려선생집』 : 경오자체 훈련도감자.
- 『대학언해』 : 을해자체 훈련도감자.
- 『소재선생문집』 : 갑진자체 훈련도감자.
- 『황화집』 : 병자자체 훈련도감자.

6. 의의

- 서적원자본부터 훈련도감자본까지 각 활자본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기술적 배경을 반영.
-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군사조직까지 참여한 인쇄 문화는 조선 시대 서적 보급과 학문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었음.
- 특히 훈련도감자본은 전란 후의 혼란 속에서도 인쇄 문화를 유지하며, 조선 후기 목활자 제작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상징함.

학습하기 2

인경자본, 내의원자본, 경서정음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1. 인경자본

1) 제작시기

- 1495년(연산군 원년) :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 원각사에서 제작한 한자와 한글 목활자.

2) 특징

- 성종의 승하 후, 대비들이 임금의 명복을 기원하며 연산군 원년 원각사에서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
- 단일 발문을 목활자로 만들어 모든 서적의 끝부분에 동일하게 부착, 일관된 간행 방식을 채택함.
- 1496년(연산군 2년)에는 왕과 왕비의 내탕금을 활용해 추가 목활자를 제작함.
- 글자체는 바르고 정교하며 필서체의 미려함이 특징으로, 새김과 인쇄가 매우 세밀하고 우아함.
- 인본은 먹색이 고르고 진하며 깨끗한 인쇄 품질을 자랑하여 당시 최고의 목활자본으로 평가됨.

3) 인본

- 『천지명양수륙잡문』 : 인경자로 간행된 대표적인 한자본.
- 『육조대사법보단경』 : 한자와 한글의 병용 활자본으로, 국역된 형태로 간행.
- 『진언권공』 : 한자와 한글 목활자를 병용하여 제작된 국역본.

2. 내의원자본

1) 제작시기

- 1608년(선조 41)~1615년(광해군 7년) : 내의원에서 의서를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한자와 한글 목활자.

2) 특징

- 내의원은 이전까지 훈련도감에 의뢰하여 의서를 인쇄했으나, 약명과 처방의 오류가 생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 활자 제작 및 간행을 담당.
- 활자의 글자는 작고 정교하게 새겨졌으며, 글자체는 을해자체를 닮은 세련된 필서체임.
- 활자의 정교한 새김과 깨끗한 인쇄 품질이 특징이며, 당시 의학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됨.
- 내의원이 의서 제작에 전담하여 활자를 간행한 점은 조선 후기 의학사와 출판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됨.

3) 인본

- 『동의보감』 : 조선 최고의 의서로, 내의원자본의 대표작.
- 『간이벽온방』 : 간소한 처방으로 벽온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서.
- 『신찬벽온방』 : 벽온병 치료법을 추가로 보완하여 간행한 의서.

3. 경서정음자본

1) 제작시기

- 1734년(영조 10년) : 사역원에서 제작된 목활자.

2) 특징

- 사역원의 역관 이성빈 등이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의 원문 발음 체계를 한글로 표기하여 간행하기 위해 제작.
- 경비는 역관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한자와 한글 목활자를 제작.
- 『통문관지』에 따르면, 당시 "주자(鑄字)"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글자의 모양과 새김의 흔적을 통해 목활자로

확인됨.

- 활자의 글자체는 갑인자체를 닮은 단정하고 부드러운 진체(晋體) 계열의 필서체.
- 글자의 크기와 새김이 정교하며, 인쇄 상태가 깨끗하고 우수함.
- 경서정음자본은 사서와 삼경의 발음을 체계화하여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조선 후기 국어학 및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함.

3) 인본

- 『논어정음』, 『맹자정음』, 『대학정음』, 『중용정음』 : 사서의 정음 표기본.
- 『시전정음』, 『서전정음』, 『주역정음』 : 삼경의 정음 표기본

학습정리

1. 서적원자본, 동국정운자본, 금성자본, 추향당자본, 훈련도감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 서적원자본: 1395년 제작된 조선 초기 목활자본으로, 지방 관서와 중앙 서적원의 협력으로 제작된 최초 사례
- 동국정운자본: 1447년 『동국정운』 간행을 위해 제작된 목활자로, 한자와 한글의 조화를 보여주며, 조선 초기 언어학 연구의 핵심 자료
- 금성자본: 1538년 제작된 지방 관서 목활자본으로, 『성리대전서절요』 간행을 통해 중기 지방 인쇄 문화의 발전을 보여줌
- 추향당자본: 16세기 후반 제작된 목활자본으로, 임진왜란 이후 활판 제작 기술의 저하를 반영하며 갑진자체를 기반으로 함
- 훈련도감자본: 임진왜란 이후 군사기관에서 제작된 목활자본으로, 조잡하지만 전란 속에서도 인쇄 문화를 유지하며 조선 후기 목활자의 대표적 사례

2. 인경자본, 내의원자본, 경서정음자본의 제작시기 및 특징

- 인경자본: 1495년 제작된 목활자본으로, 불경 간행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뛰어난 인쇄 품질과 필서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함
- 내의원자본: 1608년 제작된 의서 간행용 목활자본으로, 을해자체를 닮은 세련된 필서체와 의학 지식의 중요성을 반영한 사례
- 경서정음자본: 1734년 제작된 목활자본으로, 사서와 삼경의 한자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조선 후기 국어학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음

11주차 2차시



기타 간인본의 종류와 특징

학습목표

1. 기타 간인본을 종류별(도활자본, 포활자본, 석인본, 탁인본, 검인본)로 구분할 수 있다.
2. 기타 간인본의 간행시기를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3. 기타 간인본의 종류별 주요 특징을 알고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기타 간인본의 간행시기
2. 기타 간인본의 특징

핵심 keyword

- 도활자본
- 포활자본
- 석인본
- 탁인본
- 검인본

학습하기 1

기타 간인본의 간행시기

1) 도화자본

- 간행시기 :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8세기 초반으로 추정됨.
- 특징 : 중국에서 도화자가 실용화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 의의 : 도화자는 차진 흙으로 빚어 만든 독특한 방식의 활자이며, 인쇄술 발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2) 포화자본

- 간행시기 :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8세기 민간에서 제작된 사례가 있음.
- 특징 : 포화자는 바가지 외피에 글자를 새겨 인쇄한 활자로, 독창적인 발상과 제작 기술이 반영됨.
- 대표 사례 : 18세기 민간에서 제작된 포화자본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동아도서관 화산문고에 2종 소장되어 있음.

3) 석인본

- 간행시기 :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등장.
- 특징 : 주로 농상공부인쇄국에서 도입하여 우표, 엽서, 상표 등을 찍는 데 사용됨.
- 의의 : 돌 위에 글자와 그림을 새긴 뒤 인쇄한 방식으로, 상업적 인쇄물의 대량 생산에 기여함.

4) 탁인본

- 간행시기 : 탁본의 시작 시기는 불분명하며, 중국 당대에 이미 명가의 글씨를 모아 각자하고 탁본한 사례가 존재.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비석, 기물, 공예품 등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사용됨.
- 의의 :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재 연구 및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5) 검인본

- 간행시기 : 중국에서는 12세기 초 송대에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1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남.
- 특징 : 신라와 고려 시대에도 인장은 존재했으나, 검인본은 서적이거나 그림에 인장을 찍어 인증한 초기 사례임.
- 의의 : 소장자나 간행처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서지학적 가치가 높음.

학습하기 2

기타 간인본의 특징

1) 도활자본

- 명칭 : '오지활자책'으로 불림.
- 제작 방식 : 질그릇을 만드는 차진 흙으로 빚어 활자를 제작해 찍어낸 책.
- 글자 획에 나뭇결 흔적이 없어 매끄럽고, 먹색이 고르게 스며들어 순연함.
- 글자의 시작과 끝이 뭉툭하며, 전체적으로 인서체자의 영향을 받은 모양새.
- 나무활자보다 글자 모양과 획의 균정도가 떨어지지만, 초기 간인본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 대표 인본 : 『동명선생집』(1734년 간행, 미국 콜롬비아대학 동아도서관 화산문고 소장).

2) 포활자본

- 명칭 : '바가지 활자본'으로 불림.
- 제작 방식 : 바가지 외피에 글자를 새긴 후 싯톱으로 자르고 네 면을 다듬어 제작.
- 바가지 표면이 단단하고 부드러워 작은 활자 새기기에 적합하며, 글자 획이 가늘고 유연하게 표현됨.
- 나무활자에 비해 착묵이 잘 되어 인쇄본이 깨끗함.
- 나무활자와 달리, 바가지 특유의 재질이 글자 새김에 적합하여 정교한 인본 제작 가능.
- 대표 인본 : 『경사집설』(18세기 간행, 미국 콜롬비아대학 동아도서관 화산문고 소장).

3) 석인본

- 명칭 : '석판본'으로도 불림.
- 제작 방식 : 판판한 돌 위에 비누와 지방을 섞어 글자와 그림을 제판해 인쇄.
- 1900년 전환국인쇄소에서 석판인쇄 시작, 이후 탁지부인쇄국과 민간 인쇄소로 확대.
- 초기 평판인쇄 형태로 공정이 간단하고 설비 비용이 적게 들어 대량 인쇄에 적합.
- 1913년 신문관에서 『훈몽자회』, 문아당에서 『아미타경』을 간행하는 등 다양한 출판물 제작.
-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족보, 문집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사용됨.
- 대표 인본 : 『대한국기념장증서』(1907년), 『외국훈자패용준허장』(1909년), 『대가법첩』(1908년).

4) 탁인본

- 명칭 : 탁본 또는 탐본으로도 불림.
- 제작 방식 : 비석, 쇠불이 등에 새긴 글씨와 그림을 종이에 그대로 찍어냄.
- 먹물로 찍어낸 묵탁본과 붉은색으로 찍어낸 주탁본으로 구분됨.
- 석비나 기물에서 초기에 찍은 초탁본과 후기 탁본으로 나뉨.
- 신라 및 고려 초기 탁본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됨.
- 의의 : 원본의 보존과 재현에 기여하며, 서체 및 그림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5) 검인본

- 명칭 : 명가의 인장이나 도장을 찍은 글씨와 그림을 모아 엮은 책.
- 제작 방식 : 인장을 찍은 글씨나 그림을 모아 책으로 제작.
- 붉은색으로 찍은 주검본, 검은색으로 찍은 묵검본으로 구분.
- 귀중서와 희귀본의 전래 내력 연구에 도움을 줌.
- 명가의 글씨와 그림 감정 및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
- 대표 인본 : 오세창의 『근역인수』(1968, 영인본), 『고궁인존검본』(문화재관리국, 상하 2책), 『완당인보』(1973, 영

인본).

학습정리

1. 기타 간인본의 간행시기

- 도활자본: 18세기 초,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차진 흙으로 제작된 활자본으로 인쇄술 발달의 다양성을 보여줌
- 포활자본: 18세기 민간에서 제작된 바가지 외피로 만든 활자본으로 독창적인 제작 방식이 특징
- 석인본: 19세기 말 돌 위에 글자를 새겨 인쇄한 방식으로 대량 인쇄와 상업적 인쇄물 생산에 활용됨
- 탁인본: 비석, 기물 등에 새긴 글씨를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원본 보존과 재현에 기여
- 검인본: 14세기 말 서적과 그림에 인장을 찍어 정통성을 인증한 사례로, 서지학적 가치를 지님

2. 기타 간인본의 특징

- 도활자본: 질그릇 흙으로 만든 활자로 초기 간인본의 예. 글자 획이 부드럽고 먹색이 균일하나 균정도는 낮음
- 포활자본: 바가지 외피로 만든 활자본으로 글자 새김이 정교하며 인쇄 품질이 뛰어남
- 석인본: 돌 위에 글자와 그림을 제판해 인쇄한 형태로 상업적 출판과 대량 인쇄에 적합
- 탁인본: 원본을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중요한 자료
- 검인본: 명가의 인장을 찍은 글씨와 그림을 모아 제작한 서적으로, 희귀본의 전래 내력 연구에 기여

12주차 1차시



인쇄방법에 의한 감정

학습목표

1. 형태적 특징(글자모양, 글자 획, 칼자국, 글자 위치, 줄, 사이, 마멸, 광곽, 판심, 계선, 계선과 글자 사이, 먹색, 반점, 번짐)에 따라 목판본과 활자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2. 인출시기를 통해 원본과 번각본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3. 원본의 후쇄본과 보각본의 형태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4. 형태적 특징에 따른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목판본과 활자본
2. 목판본의 인출시기
3.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핵심 keyword

- 목판본
- 활자본
- 원본
- 번각본
- 후쇄본
- 보각본
- 목활자본
- 금속활자본

학습하기 1

목판본과 활자본

1) 글자 모양

- 목판본 : 동일한 글자라도 매번 새겨서 제작하기 때문에 꼭 같은 글자 모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 활자본 : 동일한 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꼭 같은 글자 모양이 자주 나타남. 단, 보주활자의 경우 글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글자 획

- 목판본 : 글자 획이 날카롭고 뾰족하며 굽기가 일정하지 않음.
- 활자본 : 금속활자의 경우 글자 획의 굽기가 일정하지만, 목활자는 목판본과 비슷하게 획의 굽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3) 칼자국과 너덜이 자국

- 목판본 : 글자 획에 예리한 칼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남.
- 활자본 : 금속활자는 칼자국이 없고 글자 끝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남. 목활자는 목판본과 비슷한 칼자국이 보임.

4) 글자 위치

- 목판본 : 특정 글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거나 거꾸로 된 경우 없이 비교적 바름.
- 활자본 : 활자가 조립식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거나 거꾸로 식자된 경우가 종종 있음.

5) 글자 줄

- 목판본 : 글자의 가로와 세로 줄이 비교적 정렬되어 있음.
- 활자본 : 좌우 줄이 고르지 못하고 일부 활자가 위아래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음.

6) 글자 사이

- 목판본 : 윗글자의 아래 획과 아랫글자의 위의 획이 엇물리는 경우가 있음.
- 활자본 : 초기 금속활자본에서는 엇물리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글자 사이가 떨어져 있음.

7) 마멸

- 목판본 : 오래 사용하면 새긴 글자의 획이 마모되고, 나뭇결이 드러나며 심한 경우 글자가 부분적으로 손상됨.
- 활자본 : 목활자본은 목판본과 비슷하게 마모되며 글자 획이 일부 손상됨. 금속활자는 부식으로 인해 필획이 가늘어지거나 충격으로 일그러질 수 있으나 글자 자체는 유지됨.

8) 광곽(테두리)

- 목판본 : 네 모서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활자본 : 대체로 네 모서리가 떨어져 있으나, 계미자본이나 경자자본처럼 고착식 인판을 사용한 경우 모서리가 붙어 있음.

9) 판심

- 목판본 : 판심의 계선, 어미, 변란, 흑구 등이 붙어 있음.
- 활자본 : 판심의 구성 요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착식 인판 사용 시 목판본과 유사하게 붙어 있음.

10) 계선(글자와 글자 간 경계선)

- 목판본 : 칼자국, 목질의 약한 부분, 나무의 갈라짐 등으로 인해 끊긴 계선이 나타남.
- 활자본 : 대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계선을 사용하여 끊긴 부분이 거의 없음.

11) 계선과 글자 사이

- 목판본 : 계선과 글자가 맞닿는 경우가 많음.
- 활자본 : 계선과 글자가 대부분 떨어져 있으나 일부 초기 금속활자본에서는 닿아 있는 경우도 있음.

12) 먹색

- 목판본 : 먹색이 진하며, 농담의 차이가 거의 없음.
- 활자본 : 목활자본은 목판본과 유사함. 금속활자본은 먹색이 상대적으로 옅으며 농담의 차이가 나타남.

13) 반점

- 목판본 : 확대해도 글자 표면에 반점이 나타나지 않음.
- 활자본 : 금속활자본에서는 글자를 확대하면 반점이 관찰됨.

14) 번짐

- 목판본 : 확대해 보면 먹물이 주위로 번진 흔적이 있음.
- 활자본 : 목활자본은 목판본과 비슷하게 먹물이 번지는 경우가 있음. 금속활자본은 먹물이 번지지 않음.

학습하기 2

목판본의 인출시기

1) 원본과 번각본

(1) 원본과 번각본의 차이점

- 번각본은 원본을 본떠 새로 새긴 것으로, 원본에 비해 글자 획이 굵거나 가늘어지는 등 정교도가 떨어지고 글자 모양이 거칠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번각 과정에서 원본의 세밀한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각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임.

(2) 우리나라 번각본의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번각본이 매우 흔히 나타남. 이는 기존의 등재본을 새로 작성하기보다 이미 간행된 책을 해체한 후 판목 위에 붙여 번각하는 방식이 시간과 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번각본은 지방 관서나 사찰에서 필요에 따라 제작된 사례가 많으며, 이는 당대의 인쇄 문화와 지식 보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2) 원본의 후쇄본과 보각본

(1) 후쇄본의 특징

- 원본 판목에서 초기에 인출한 서적은 글자의 모양이 정교하고 먹색이 균일하지만, 동일한 판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쇄할수록 글자가 닳아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후쇄본은 인출면이 초기보다 흐릿하거나 글자의 획이 마모된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보각본의 특징

- 원본 판목의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각한 판목을 사용한 경우, 먹색과 글자 모양에서 원본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보각본은 손상된 글자를 다시 새기는 과정에서 새김의 균형이나 글자 획의 모양이 다소 달라지며, 정교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보각된 글자는 원래 글자와 비교했을 때 획의 끝이 뭉툭하거나 크기가 다소 어긋난 경우가 자주 발견됨.

학습하기 3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1) 글자 모양

- 목활자본 : 같은 글자라도 꼭 같은 모양이 나타나지 않음. 이는 목활자의 제작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글자마다 새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금속활자본 : 동일한 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글자 모양이 일정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남.

2) 글자 획

- 목활자본 : 글자 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음. 이는 목활자의 재료 특성과 수작업의 한계에서 비롯됨.
- 금속활자본 : 글자 획의 굵기가 균일하며, 기계적인 정교함이 돋보임.

3) 칼자국과 너덜이 자국

- 목활자본 : 글자 획에 칼자국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섬세한 새김에서 너덜이 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있음.
- 금속활자본 : 칼자국이 없고 글자의 끝부분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남. 이는 금속 주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임.

4) 글자의 위치

-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모두 특정 글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거나 거꾸로 식자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남. 이는 조판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현상임.

5) 마멸

- 목활자본 : 목판본과 유사하게 오래 사용할 경우 활자가 마모되어 글자의 획이 손상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금속활자본 : 오래 사용할수록 글자 획이 가늘어지거나 약간 일그러질 수 있으나, 획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음.

6) 광곽 (글자의 테두리)

- 대부분의 경우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모두 글자 모서리가 떨어져 있음.
- 다만, 계미자본이나 경자자본과 같은 초기 금속활자본은 고착식 인판을 사용하여 네 모서리가 붙어 있는 예외가 있음.

7) 판심

-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모두 판심의 계선과 어미, 변란 부분, 흑구가 떨어져 있음.

8) 계선

- 두 유형 모두 계선이 대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꿰김 없이 연결되어 있음.

9) 계선과 글자 사이

- 일반적으로 계선과 글자 사이에 여백이 있으나, 간혹 글자가 계선에 닿아 있는 경우도 있음.

10) 먹색

- 목활자본 : 목판본과 유사하게 먹색이 진하고 농담의 차이가 적음.
- 금속활자본 : 먹색이 목활자본보다 덜 진하며, 농담의 차이가 다소 뚜렷하게 나타남.

11) 반점과 목리 (나뭇결)

- 목활자본 : 육안으로도 나뭇결(목리)이 확인 가능하며, 오래 사용할 경우 글자 획이 닳아 손상되는 부분이 있음.
- 금속활자본 : 확대해서 보면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오래 사용해도 글자 획은 마모되지 않고 유지됨.

12) 번짐

- 목활자본 : 목판본처럼 먹물이 글자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음.
- 금속활자본 : 먹물이 번지지 않고 글자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됨.

학습정리

1. 목판본과 활자본

- 목판본은 목판에 글자를 새겨 인쇄하는 방식으로, 글자 모양과 획이 일정하지 않으며, 예리한 칼자국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활자본은 동일한 활자를 반복 사용해 글자 모양이 일정하고, 금속활자에서는 칼자국이 없으며 글자의 끝이 둥글둥글함
- 활자본은 조판 과정에서 글자가 비스듬하거나 거꾸로 식자될 수 있고, 초기 금속활자본에서는 글자 획과 배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목판본은 글자의 가로·세로 줄이 고르고 먹색이 균일하지만, 활자본은 농담의 차이가 나타나며 글자 위치가 치우칠 수 있음

2. 목판본의 인출시기

- 원본은 처음 새긴 목판으로 제작된 인본이며, 글자가 정교하고 먹색이 균일함
- 번각본은 원본을 본떠 새로 제작한 목판으로, 글자 획의 세밀함과 균형이 부족할 수 있음
- 후쇄본은 원본 판목으로 반복 인쇄하여 글자 획이 마모된 인본이며, 보각본은 손상된 글자를 보완하여 제작된 것으로 새김이 원본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번각본은 지방 관서나 사찰에서 제작된 경우가 많아 인쇄 문화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3.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 목활자본은 목판본처럼 글자 모양과 획이 일정하지 않으며, 칼자국과 나뭇결이 나타남
- 금속활자본은 글자 모양과 획이 정교하고 균일하며, 반점이 나타나고 번짐이 없는 특징이 있음
-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 모두 초기에는 글자 배열이 비뚤어질 수 있으나, 금속활자는 내구성이 뛰어나 마모가 적음
- 금속활자본의 먹색은 목활자본보다 덜 진하며, 농담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12주차 2차시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학습목표

1. 다양한 서지요소(간기, 서문, 발문, 판식, 장서인, 내사기, 책지, 먹, 기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서지요소를 통해 판본을 감정하고 위조 여부 판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1) - 간기, 서문, 발문, 판식, 장서인, 내사기
2.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2) - 책지, 먹, 기타

핵심 keyword

- 간기
- 서문
- 발문
- 판식
- 장서인
- 내사기
- 책지
- 먹

학습하기 1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1) - 간기, 서문, 발문, 판식, 장서인, 내사기

1. 간기, 서문, 발문

1) 간기

(1) 간기가 표현된 경우

- 중국 연호로 표현된 경우 : 예를 들어 성화(成化), 홍치(弘治), 정덕(正德), 가정(嘉靖), 숭정(崇禎)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연호
- 갑자, 고갑자 : 60년 주기로 반복됨.
- 단군기원 : 서기에 2333년을 가산.
- 불기 : 서기에 1027년을 가산.
- 개국기원 : 서기에 1391년을 가산.
- 황제기원 : 서기에 2696년을 가산.
- 공자기원 : 서기에 551년을 가산.
- 천도교기원 : 서기에 1857년을 가산.

(2) 간기가 표현되었지만 간행연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간기가 갑자년으로만 표시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당 갑자년이 60년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저자, 서문, 발문을 작성한 사람의 생몰년을 확인해야 함.
- 해당 인물의 활동 시기를 확인하여 간행 가능성을 추정함.
- 이를 위해 인명사전, 사마방목, 실록, 족보 등의 자료를 참고해야 함.

2) 서문과 발문

- 간기가 없는 고서는 서문과 발문을 분석하여 간행 시기를 추정함.
- 서문과 발문에 기록된 연대는 간행 연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
- 서문과 발문의 연대가 다를 경우, 발문에 나타난 연대를 우선 간기로 삼음.
- 번각본의 경우 : 간기, 서문, 발문 등이 원본과 동일하게 새겨져 있더라도 번각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함.
- 중간본이나 번각본에서 : 간기, 서문, 발문 등의 연대를 삭제하거나 변조하여 초간본인 것처럼 위조하는 경우가 있음. 초간본 서문, 발문 뒤에 중간본 서문, 발문을 첨가하여 간행한 사례도 있음. 초간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간기와 서문, 발문이 삭제된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서명의 다른 책을 참고해 고증해야 함.
- 책의 상태 : 각 권의 끝부분 탈락 여부와 결손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

2. 판식

1) 판식은 시대마다 유행하는 양식이 존재함. 예를 들어, 판심, 흑구, 어미의 형태 등은 특정 시대의 특징을 나타냄.

2) 어미와 흑구의 변천 : 흑어미는 중국 남송 말~명나라 초까지 유행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려~조선 초 판식에 반영됨.

3) 흑구의 먹농도 : 흑구는 다른 부분과 먹의 농도가 다르며, 시대적 특징을 보임.

4) 화문어미 덧칠 : 덧칠된 경우, 화문의 흔적과 먹의 농도가 주변과 다른 특징을 나타냄.

3. 장서인

1) 장서인은 책의 소장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간행 시기 추정에도 기여함.

2) 위조 여부 식별

- 장서인의 인주 색이나 날인 위치를 확인하여 위조 여부를 판단함.
- 진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주의 색이 퇴색하거나 변화하는 특징을 보임.

3) 날인 위치

- 첫 소장자가 장서인을 날인할 때, 보통 책머리 첫 행의 제목 하단 또는 권말 제목 끝부분에 찍음.

4. 내사기

1) 내사기는 책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임.

2) 내사인의 종류

- 선사지기(宣賜之寶), 규장지보(奎章之寶), 동문지보(同文之寶), 흥문지보(欽文之寶) 등.

3) 내사인의 위치

- 판본의 앞표지 면지에 기록되며, 반드시 본문 첫 페이지 상단에 찍음.
- 이는 왕을 상징하는 인장으로, 반드시 책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치에 찍혀야 함.

4) 개인 장서인은 본문 첫 페이지 하단에 찍히는 경우가 많음.

학습하기 2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2) - 책지, 먹, 기타

1. 책지와 먹

1) 책지

(1) 전통적인 책지 종류

- 저지와 마지로 구분됨.
- 저지 : 닥나무로 만든 고급 종이.
- 마지 : 마섬유를 사용해 만든 종이.

(2) 책지의 시대성과 지역성

- 책지는 지질과 종류에 따라 시대와 지역적 특색이 나타남.
- 닥나무 이외의 원료로 만든 종이는 품질이 저하됨.

(3) 감정 요소

- 책지의 발무늬, 사용 원료, 두께, 크기를 종합적으로 분석.
- 예 : 발무늬가 가늘고 간격이 좁으며 정연한 경우 사회 안정기와 경제 번영기를 반영.

(4) 시대별 특징

- 고려 말~조선 초기 : 가로 발무늬 : 10mm당 4~5개. 책지가 비교적 두꺼움.
- 세종 연간 : 발무늬 : 10mm당 7~9개. 책지 두께 : 가장 얇고 품질이 우수.
- 연산군 이후 : 책지가 다시 두꺼워지고 발무늬의 정연도가 떨어짐.

(5) 복사본 위조

- 원본처럼 보이도록 책지의 색깔 변조나 좀 구멍 추가 등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

2) 먹

(1) 먹의 종류

- 송연묵 : 목판과 목활자 인쇄에 적합. 색깔이 진하고 광택이 적음.
- 유연묵 : 금속활자 인쇄와 필사에 적합. 광택이 나지만 색이 진하지 않고 까맣지 않음.

(2) 묵흔 감별

- 송연묵 : 진하고 불규칙한 농담 차이가 적음.
- 유연묵 : 광택이 도드라지며, 농담 차이가 명확히 나타남.

2. 기타 서지적 감정 요소

(1) 목판본

- 목판본의 제작은 여러 명의 각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글자체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음.

(2) 권책수 조사

- 권수와 책수는 고서의 완전성 확인에 중요.
- 표지에 기록된 책수를 확인하여 기준 삼음.
- 목차와 본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

(3) 조작 및 변조 여부

- 목차와 본문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조작 흔적을 분석.
- 목차까지 위조된 경우, 내용의 흐름과 연결성을 면밀히 검토.

(4) 분책 및 유일본 확인

- 한 권의 원본이 여러 책으로 분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분책된 유일본은 책표지의 문양, 색상, 제본 실 등을 통해 확인.
- 권1과 나머지 권의 일치성을 비교하여 차이점 식별.
- 표지가 모두 교체된 경우, 문양, 색상, 실의 재질과 상태를 통해 원본 여부를 감정.

학습정리

1.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1) - 간기, 서문, 발문, 판식, 장서인, 내사기

- 간기는 연호, 갑자 표기 등을 통해 간행 시기를 추정하며, 서문과 발문은 간기가 없는 경우 간행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됨
- 판식은 시대별로 유행하는 양식에 따라 특정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며, 흑구, 어미 등의 형태와 먹농도를 통해 분석됨
- 장서인은 책의 소장 이력을 파악하는 단서로, 인주 색이나 날인 위치를 통해 위조 여부를 식별함
- 내사기는 관판본 및 개인 소장의 권위를 나타내며, 위치와 형태를 통해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음

2. 서지요소에 의한 감정 (2) - 책지, 먹, 기타

- 책지는 원료와 발무늬, 두께를 통해 시대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며, 세종 연간의 책지는 얇고 품질이 가장 우수함
- 먹은 송연묵과 유연묵으로 구분되며, 송연묵은 진한 색과 농담 차이가 적은 특징이 있고, 유연묵은 광택이 나며 농담 차이가 큼
- 기타 요소로 목판본의 각수별 글자체 다양성, 권책수 확인, 조작 여부, 분책 여부 등이 있음
- 유일본은 표지 문양, 색상, 제본 실 상태 등을 통해 원본 여부를 판단함

13주차 1차시



책의 판식

학습목표

1. 판식의 명칭(광곽, 계선, 행자수, 어미, 흑구, 제명, 서미, 서각, 미비, 두주, 각주, 백광, 묵등, 묵개자, 묵위, 백권, 묵권)을 열거하고 각 명칭별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판식의 각 명칭별 형태사항을 파악하여 서지학적 가치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판식의 명칭과 형태
2. 판식의 가치

핵심 keyword

- 광곽
- 계선
- 행자수
- 어미
- 흑구
- 제명
- 서미
- 서각
- 미비
- 두주
- 각주
- 백광
- 묵등
- 묵개자
- 묵위
- 백권
- 묵권

학습하기 1

판식의 명칭과 형태

1. 광곽, 계선, 행자수

1) 광곽(匡郭)

(1) 개념

- 광곽(匡郭)은 고서의 판식에서 책장을 감싸고 있는 네 둘레의 검은 선을 지칭하며, 인쇄면의 가장자리 경계선을 형성함.
- 이를 판광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변란(邊欄)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 활자본에서는 인쇄를 위한 인판의 틀(우리)에 해당하며, 이는 판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함.
- 광곽은 호접장(蝴蝶裝), 포배장(包背裝), 선장(線裝)과 같은 제본 방식에서 나타나며, 고서 감정과 판본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목판본과 활자본을 식별하거나 동일한 서적의 이판(異版)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함.

(2) 종류

- 사주단변(四周單邊) : 책장의 네 둘레를 하나의 검은 선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 간단하고 소박한 양식으로, 주로 간행 초기에 사용된 판식에서 나타남.
- 사주쌍변(四周雙邊) : 책장의 네 둘레를 두 개의 검은 선이 감싸고 있음. 일반적으로 바깥쪽 선이 굵고, 안쪽 선은 얇아 선의 두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 비교적 정교한 판본에서 나타나는 판식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함.
- 상하단변 좌우쌍변(上下單邊 左右雙邊) : 책장의 네 둘레 중 위아래 둘레는 단선, 좌우 둘레는 쌍선으로 구성된 형태. 조선 후기의 일부 간행물에서 나타나며, 광곽의 변형적 형태로 간주됨.

2) 계선(界線)

(1) 개념

- 계선(界線)은 책의 본문에서 각 줄을 구분하기 위해 그어진 선을 지칭함.
- 이는 간인본에서 과선(野線) 또는 계격(界格)으로 불림.
- 계선의 유무에 따라 유계본(有界)과 무계본(無界)으로 구분되며, 이 요소는 서적의 판본을 구분하고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됨.

(2) 사본의 계선

- 사본에서는 계선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고급 사본에서는 계선이 나타나기도 함.
- 특히 투식판에서 검은색, 붉은색, 남색 등의 계선을 박아낸 용지에 필사한 서적에서 계선이 뚜렷하게 드러남.
- 오사란초본(烏絲欄) : 검은 선으로 계선을 표시.
- 주사란초본(朱絲欄) : 붉은 선으로 계선을 표시.
- 홍사란초본(紅絲欄), 남사란초본(藍絲欄) 등.
- 이러한 사본의 계선은 고려본과 조선본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나, 고려본을 조선시대에 번각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3) 행자수(行字數)

(1) 개념

- 행자수(行字數)는 책장에서 한 면에 수록된 본문의 행 수(行數)와 한 행에 수록된 글자 수(字數)를 의미하며, 이를 행격(行格)이라고도 부름.

- 행자수는 특정 서적의 판식 특징을 규정하며, 동일 서적의 이판을 구분하거나 시대적 출처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됨.

(2) 측정 방법

- 권축장(卷軸裝) : 판심이 없는 경우, 책장에서 한 장 전체에 수록된 총 행수와 글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예) "한 장 20행, 각 행 30자."

- 호접장, 포배장, 선장 : 책장을 접었을 때 한 면, 즉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행자수 산정.

예) 반엽 10행 20자.

(3) 세부 표기 방식

- 본문의 글자 크기와 양식에 따라 행자수 및 자수가 다를 경우 각각 나누어 기록.

예) 반엽 대자 5행 12자, 중자 10행 20자, 주쌍행.

- 주석이 본문 아래 추가된 경우 : 본문 행자수 + 주석 행자수 형태로 기록.

예) 반엽 10행 20자 주쌍행.

-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 '자수부정(字數不定)'으로 표기.

2. 어미, 흑구

1) 어미

(1) 개념

- 어미(魚尾)는 판구(版口)의 위아래 또는 위에 물고기 꼬리 모양과 같은 문양을 나타내는 용어로, 고서의 판식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남.
- 책장을 반으로 접었을 때 나타나는 문양의 개수를 기준으로 판별하며, 시대적 특징과 판본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특히 초간본이나 초인본과 같은 간행 초기의 판본을 식별하는 데 유용함.

(2) 종류

- 바탕색에 따른 구분

- 백어미(白魚尾) : 흰색 바탕의 어미.
- 흑어미(黑魚尾) : 검은색 바탕의 어미.

- 문양 개수에 따른 구분

- 단어미(單魚尾) : 어미가 하나인 형태.
- 쌍어미(雙魚尾) : 어미가 두 개인 형태.

- 위치에 따른 구분

- 상어미(上魚尾) : 어미가 위쪽에 위치.
- 하어미(下魚尾) : 어미가 아래쪽에 위치.
- 상하하향어미(上下下向魚尾) : 위와 아래의 어미가 각각 아래로 향한 형태.
- 상하내향어미(上下內向魚尾) : 위와 아래의 어미가 안쪽을 향한 형태.

- 꽃잎 문양에 따른 구분

- 2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 : 꽃잎 모양이 두 개로 구성된 어미.
- 3엽화문어미(三葉花紋魚尾) : 꽃잎 모양이 세 개로 구성된 어미.

- 혼엽화문어미(混葉花紋魚尾) : 다양한 꽃잎 모양이 혼합된 형태의 어미.

2) 흑구

(1) 개념

- 흑구(黑口)는 책장이 반으로 접힌 중간 부분인 판구(版口) 또는 판심에 나타나는 검은 선을 뜻함.
- 흑구가 없는 경우는 백구(白口)로 구분하며, 특정 시대의 판식과 판본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임.

(2) 종류

- 선의 굵기에 따른 구분
 - 대흑구(大黑口) : 굵은 검은 선.
 - 소흑구(小黒口) : 가는 검은 선.
- 문자가 있는 경우 :
 - 화구(花口) : 검은 선 대신 문자가 나타나는 경우.

(3) 활용

- 흑구와 화구는 판본을 구분하거나 특정 서적의 간행 시기와 제작지를 추정하는 단서가 됨.

3. 제명

(1) 개념

- 제명(題名)은 책에 붙인 이름 또는 명칭으로, 흔히 서명(書名)이라고도 함.
- 고서의 목록 작성과 서지적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2) 종류

- 권수제(卷首題) : 책의 본문 첫머리에 기록된 제목으로, 목록 기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
- 권미제(卷尾題) : 책의 본문 끝부분에 표시된 제목.
- 판심제(版心題) : 판심(책장의 접힌 부분)에 표시된 제목.
- 표제(表題) : 책의 겉장 위에 표시된 제목.
- 이제(裏題) : 겉장 안쪽 속지에 표시된 제목.
- 서근제(書根題) : 서근(책의 등)에 표시된 제목.
- 난외제(欄外題) : 광곽 밖 좌우 하단에 기록된 제목.

4. 서미와 서각

1) 서미(書眉)와 서각(書脚)

- 서미 : 광곽의 위쪽 여백으로, 서정(書頂) 또는 천두(天頭)로 불림.
- 서각 : 광곽의 아래쪽 여백으로, 서족(書足) 또는 지각(地脚)이라 함.

2) 권축장과 절첩장

- 위쪽 여백은 천(天)으로, 아래쪽 여백은 지(地)로 구분.

5. 미비, 두주, 각주

- 미비(眉批) : 서미에 기록된 비평어.
- 두주(頭註) : 서미에 위치한 주석.

- 각주(脚註) : 서각에 위치한 주석.

6. 백광, 묵등, 묵개자, 묵위, 백권, 묵권

1) 백광(白匡) 또는 백위(白圍)

(1) 개념

- 본문 중 결문(缺文) 발생 시, 공백으로 남겨둔 사각형 모양을 뜻함.
- 고대의 사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서에서 문장 결손(逸文)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됨.

(2) 특징

- 결문이 발생했을 때 본문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이후 보각(補刻)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형태.
- 고전 본문에서 발견된 결문을 그대로 간행한 간인본에서 흔히 볼 수 있음.
- 백광은 본문을 복원할 때 활용되는 공간으로, 초기 인쇄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

2) 묵등(墨燈) 또는 묵정(墨丁)

(1) 개념

- 본문 중 결문이 생겼을 때, 검은 네모난 덩어리(블록)로 남겨둔 부분을 말함.
- 백광 대신 검정 잉크로 채워져 있어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짐.

(2) 특징

- 백광과 마찬가지로 결문이 발생했을 때, 본문 보각이 가능하도록 남겨둔 공간.
- 이후 고증에 의해 본문 내용이 밝혀지면, 이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둔 것임.
- 일반적으로 검은 덩어리로 표현되며, 독자가 결문을 인지하기 쉽도록 배치됨.

3) 묵개자(墨介字)

(1) 개념

- 묵등에 문자를 음각으로 표시한 형태를 뜻함.

(2) 특징

- 결문 발생 시 검은 블록 위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간략한 문구 또는 표시를 음각하여 새김.
- 단순히 비워두거나 검게 칠하는 대신, 본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
- 묵등보다 정보 전달력이 높아, 해당 문장 복원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

4) 묵위(墨圍) 또는 묵광(墨匡)

(1) 개념

- 본문 중 검은 배경의 사각형에 주석(註疏), 소제목(小題), 또는 편제(扁題) 등을 새긴 것을 말함.
- 문자는 음각으로 표현되며, 본문과는 시각적 구분이 뚜렷함.

(2) 특징

- 본문 내용과 주석 또는 소제목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방법.
- 주로 고서의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학문적 참고서적에서 흔히 나타남.
- 묵위는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조직화하고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5) 백권(白圈) 또는 백원(白圓)

(1) 개념

- 문장의 새로운 시작 또는 주석의 시작 부분에, 흰 배경의 원형 권점을 표시한 것을 뜻함.
- 주로 본문이나 주석의 첫머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됨.

(2) 특징

- 권점(圈點)의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 본문 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나타냄.
- 우리나라 고서에서 많이 발견되며, 문장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백권은 특히 본문이 길게 이어질 때, 독자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짐.

6) 묵권(墨圈) 또는 묵원(墨圓)

(1) 개념

- 문장의 새로운 시작 또는 주석의 첫머리에, 검은 배경의 원형 권점을 표시한 것을 뜻함.
- 백권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나, 검은 바탕이라는 점이 차별점.

(2) 특징

- 묵권은 문장 내 강조점을 더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됨.
- 고서에서 백권과 함께 활용되며, 두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문장의 중요도와 위치를 파악 가능.
- 고서의 판식 연구 및 판본 감정에서 중요한 단서로 여겨짐.

학습정리

1. 광곽, 계선, 행자수

- 광곽은 책장을 감싸는 선으로, 사주단변, 사주쌍변 등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판본 감정에 중요한 요소임
- 계선은 본문 줄을 구분하는 선으로, 유계본과 무계본으로 나뉘며 시대와 판본 구별에 활용됨
- 행자수는 한 면의 행 수와 글자 수를 나타내며, 서적의 판식 특징을 이해하고 판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됨

2. 어미, 흑구

- 어미는 판구 위아래에 나타나는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문양과 개수에 따라 초간본 등 판본 구별에 유용함
- 흑구는 판심에 나타나는 검은 선으로, 선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 판본 감정 및 간행 시기 추정에 도움을 줌
- 화구(花口)는 흑구 대신 문자가 나타나는 형태로, 특정 판본의 특징을 보여줌

3. 제명

- 제명은 책의 이름으로 권수제, 권미제, 표제, 판심제 등 다양한 위치에 표시됨
- 제명은 책의 판본과 고서를 감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다른 서지 요소와 결합해 판본의 진위를 확인함
- 위치에 따라 본문의 첫머리(권수제)나 끝부분(권미제), 책 표지(표제) 등에 나타남

4. 서미와 서각

- 서미는 광곽 위쪽의 여백으로, 서정(書頂) 또는 천두(天頭)라고도 불리며 서적의 상단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서각은 광곽 아래쪽의 여백으로, 서족(書足) 또는 지각(地脚)이라 하며 판식 구조에서 하단 여백을 확인하는 요소임
- 천(天)과 지(地)의 구분은 권축장, 절첩장과 같은 제본 방식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5. 미비, 두주, 각주

- 미비는 서미에 기록된 비평으로, 서적의 내용을 간략히 평가하거나 주석을 제공함
- 두주는 서미에 위치한 주석으로, 본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판식 구조를 보완함
- 각주는 서각에 위치한 주석으로, 본문 하단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임

6. 백광, 묵등, 묵개자, 묵위, 백권, 묵권

- 백광은 결문 발생 시 공백으로 남겨둔 사각형이며, 본문 복원 시 활용됨
- 묵등은 결문 시 검은 블록으로 표시해 복원을 준비하며, 묵개자는 블록에 문자나 표시를 음각으로 새긴 형태임
- 백권과 묵권은 문장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 또는 검은색 원형 권점을 표시하며, 구조를 시각적으로 강조함

13주차 2차시

■ 서지 용어

학습목표

1. 다양한 서지 용어(목기, 간인기, 사기, 간기, 개행, 극행, 피휘, 결획, 대자, 반사, 내사, 보인, 수결, 낙관, 자체)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서지 용어의 형태별 특징을 서술할 수 있다.
3. 서지 용어의 종류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서지 용어의 의미와 특징
2. 서지 용어의 종류

핵심 keyword

- 목기
- 간인기
- 사기
- 간기
- 개행
- 극행
- 피휘
- 결획
- 대자
- 반사
- 내사
- 보인
- 수결
- 낙관
- 자체

학습하기 1

서지 용어의 의미와 특징

1. 목기, 간인기, 사기, 간기

1) 목기

(1) 정의

- 목판본의 간행 사항을 표시한 기록으로, 도기(圖記)와 패기(牌記)가 포함됨.

(2) 도기

- 기물 모양으로 구성된 기록.
- 주로 종, 술, 술잔 등과 같은 물건 형태의 도형 안에 간행 정보를 기재.
- 기록 내용에는 간인자의 이름, 호, 자, 간인지(간행한 시기), 간인처(간행한 장소), 간인년(간행 연도) 등이 포함됨.

(3) 패기

- 장방형, 아형(牙形), 타원형 등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기록.
- 도기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며,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 용도는 같음.
- 패기의 간결한 형식은 서적의 판본 연구와 간행 연대 추정에 도움을 줌.

2) 간인기(刊印記)

(1) 정의

- 간기와 인기를 포함한 용어로, 목판본과 활자본의 간행 및 인출 사항을 기록한 것.

(2) 간기

- 목판본의 간행 정보를 표시.
- 간행 연도, 간행 장소, 참여 인물(교정자, 판서자, 각수, 목수 등)이 기록됨.
- 관판본의 경우 관리들의 직함과 이름이 열거되며, 사찰본은 간행 과정에서 참여한 화주, 권연자, 공양주, 시주자 등의 정보도 포함됨.

(3) 인기

- 활자본 또는 인출본의 정보를 기록.
- 활자본에서는 인출 연도와 인출 장소가 간결히 표시되며, 목판본에서 인출된 경우도 포함됨.
- 관판본 : 주로 인출 연도와 장소만 간단히 기재.
- 사찰본 : 인출 연도, 인출처, 시주자, 연화자 등 세부 정보가 추가로 기록됨.

3) 사기(寫記)

(1) 정의

- 서사(필사)한 기록으로, 서사 연도, 서사자, 서사 장소 등이 포함됨.
- 사경(寫經)과 관련된 경우, 사성기(寫成記)라는 별칭으로 불림.

(2) 사성기

- 사경의 제작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불경이나 문서를 필사한 배경, 시주자, 필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을 기록하여 사본의 제작 맥락을 명

확히 함.

4) 간기(刊記)

(1) 정의

- 서적의 간행 정보를 기재한 기록.

(2) 관판본의 간기

- 간행 연도와 간행 장소를 간결하게 표시하거나, 간행에 참여한 관료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
- 교정자, 판서자, 각수, 목수, 도색자 등 간행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됨.
- 관판본 간기는 주로 중앙 및 지방 관서에서 간행된 책에서 발견됨.

(3) 사찰본의 간기

- 간행 연도, 간행 장소와 함께 화주, 권연자, 공양주, 시주질, 연판자, 각수 등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됨.
- 사찰의 종교적 목적과 간행 맥락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됨.

2. 개행, 극행, 피휘

1) 개행(改行)

(1) 정의

- 진전문(進箋文), 봉교서(奉敎書), 외교문서 등 공식 문서에서 황제, 임금, 부처 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글줄을 바꿔 쓰는 것을 말함.
- 이는 문장 안에서 글자의 배치를 조정하여 존귀함을 표현하는 서체적 관습임.

(2) 일본과의 비교

- 일본에서는 이를 '대두(擡頭)'라고 부르며, 동일한 서체 관습을 유지하고 있음.

(3) 구성 요소

- 수자(首字) : 개행 시 기준이 되는 글자의 위치를 의미함.
- 간자(間字) : 문장에서 한 글자를 공백으로 남긴 자리를 말하며, 이를 '공격(空格)'이라고도 함.
- 평행 : 개행으로 인해 글줄이 바뀌어도 수자의 위치가 동일하게 정렬되는 경우.
- 평대 : 일본에서 평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

(4) 한국 문서에서의 특징

- 국내의 윤음(綸音), 원정문(元正文), 소지문(所志文) 등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한 자씩 올리는 방식이 보편적.
- 이를 '상일자(上一字)'라고 하며, 일본식 용어로는 '단대(單臺)'라 함.

2) 극행(極行)

(1) 정의

- 글자 또는 단어를 특정 위치까지 올려 쓰는 방식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글자 자리를 뜻함.
- 주로 황제나 고위 권력자를 언급할 때, 그 지위에 대한 존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됨.

(2) 위치에 따른 명칭

- 1자 올림 : 가장 높은 자리인 1행이 극행에 해당함.
- 2자 올림 : 두 번째로 높은 자리가 1행이 되며 극행이 됨. 첫 번째 자리(1행)가 극행이고, 두 번째 자리는 '상이

자(上二字)'라 불림. 일본에서는 이를 '쌍대(雙臺)'라 함.

- 3자 올림 : 1~3자까지 올리는 방식. 최고 자리가 '상삼자(上三字)'이며, 일본식 용어로는 '삼대(三臺)'라 함.

(3) 중국과 한국의 차이

- 중국 황제의 경우, 세 자를 올려 쓰는 상삼자 방식을 주로 사용.
- 한국에서는 보통 한 자 또는 두 자 올림 방식이 주를 이룸.

3) 피휘(避諱)

(1) 정의

- 문장 중 임금의 이름(휘, 御諱)이 포함될 경우, 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특별히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표현하는 방식.
- 피휘는 임금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존경과 경의의 표현임.

3. 결획과 대자

(1) 정의

- 피휘 방식의 세부적 유형으로, 결획은 획을 생략하고, 대자는 글자를 대체함.
- 이는 특히 고려본과 조선 번각본을 감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됨.
- 고려본을 번각한 조사본의 경우 결획과 대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형태적 특징을 감안하여 감정하여야 함
- 고려의 판본을 조사할 때 자주 나타남

(2) 피휘결획(避諱缺劃)

-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여 임금의 이름을 회피하는 방식.
- 예시
 - 태조(建)의 휘 → '建'에서 한 획을 생략
 - 혜종(武)의 휘 → '武'에서 한 획을 생략
 - 선종(運)의 휘 → '運'에서 한 획을 생략

(3) 피휘대자(避諱代字)

- 임금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를 다른 뜻의 글자로 대체하는 방식.
- 예시
 - 태조의 휘 '建' → '峻'
 - 세조의 휘 '隆' → '豐'
 - 명나라 연호 '洪武' → '洪虎' (혜종의 휘 '武'와 중복을 피하기 위함).

4. 반사, 내사, 보인

1) 반사(내사)

(1) 정의

- 반사(頒賜)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녹봉이나 물건, 책 등을 하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 특히, 책을 하사한 경우 '내사본(內賜本)'이라 부르며, 이러한 기록은 고서의 판본과 간행 시기를 고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

(2) 내사기의 역할

- 반사된 책에는 보통 앞면지에 하사와 관련된 기록인 내사기가 적혀 있음.

- 내사기는 책의 유래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하사한 연도와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됨.

(3) 의의

- 내사 기록은 단순히 책의 소장 내력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판본이 어느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간행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됨.

2) 보인(寶印)

(1) 정의

- 보인(寶印)은 책이나 문서에 찍힌 임금의 도장(내사인)과 반사인을 총칭하는 용어임.
- 보인은 왕권과 관권의 상징적 표현으로, 책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보인의 종류와 특징

- 선사지기(宣賜之記) : 임금이 승정원을 통해 명을 내려 문서를 작성하고 하사할 때 찍는 도장. 주로 공식적인 문서나 책에 사용됨.
- 규장지보(奎章之寶) : 정조 이후 규장각 각신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찍은 보인. 정조 시대에 규장각의 학문적, 문화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됨.
- 유서지보(諭書之寶) : 1741년(영조 17) 임금의 명령을 담은 『어제대훈(御製大訓)』 같은 문서에 사용된 도장. 하사된 문서의 권위를 보증함.
- 동문지보(同文之寶) : 1781년(정조 5) 홍문관에 하사한 『친임이문원강의(親臨摛文院講義)』에 사용된 보인. 문헌의 중요성과 문학적 전통을 상징함.
- 흥문지보(興文之寶) : 1898년(광무 2) 민영익에게 하사된 『황명조령(皇明詔令)』 같은 문서에 찍힌 도장. 대한제국 시기 고위 관리에게 하사된 문서의 가치를 나타냄.

(3) 의의

- 보인은 하사된 문서나 책의 출처, 시기,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단서로, 문서나 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각 보인은 당시의 정치적, 학문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

5. 수결(手決), 낙관(落款)

1) 수결

- 수결은 서명 또는 사인을 의미하며, 고문서에서는 화압(畫押), 압자(押字)라고도 불림.
- 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문서의 진위와 신뢰성을 보증함.

2) 낙관

- 낙관(落款)은 주로 서화류에 찍힌 서명을 뜻함.
- 작가의 이름이나 별호, 서명, 연호 등을 기록하여 작품의 출처와 정통성을 보증함.
- 낙관은 서화의 제작 시기 및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6. 자체(字體)

1) 정의

- 자체(字體)는 글씨의 형태와 서법을 의미하며, 사용된 글자의 서체를 통해 문서나 책의 제작 시기, 목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연구할 수 있음.

2) 주요 서체의 종류와 특징

- 사경체 :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데 사용된 글씨체로, 정연하고 해정한 특징을 가짐.
- 전서체 : 금석문의 글자체로, 대전체와 소전체가 있음. 고대의 엄숙함과 권위를 나타냄.
- 예서체 : 전서의 복잡한 형태를 간단히 변형한 서체로, 금석문이나 법첩에서 자주 보임.
- 초서체 : 빠르게 흘려 쓴 글자체로, 시간 절약과 필사의 편리성을 위해 사용됨. 고서에서 자주 발견됨.
- 해서체 : 정연하고 해정하게 쓴 글자체로, 서체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장 잘 나타냄. 서예가들의 서법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있음.
- 행서체 : 해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로, 해서의 획을 약간 흘려 씀. 서체의 유려함과 간결함이 특징.
- 인서체 : 모나고 바르게 그린 글자체로, 획이 가늘고 굵기가 일정함. 인쇄 서체로 주로 사용됨.
- 이체자 : 표준적인 글자체와 다르게 변형된 글자체.
- 간자체 : 중국에서 획수를 줄여 간략하게 쓴 글자체.
- 한글궁체 : 궁중에서 비빈과 궁녀들이 사용한 독특한 한글 서체로, 곡선미가 뛰어남.
- 한글해서체 : 한글을 정연하게 쓴 서체로, 주로 공식 문서에 사용됨.
- 한글흘림체 : 빠르게 흘려 쓴 한글 서체로, 자유로운 필체가 특징.
- 한글인서체 : 훈민정음 창제 당시 고딕체와 유사하게 강직한 결구를 가진 서체.

학습정리

1. 목기, 간인기, 사기, 간기

- 목기는 목판본의 간행 정보를 나타내는 기록으로 도기(기물 형태)와 패기(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됨
- 간인기는 간기(간행 정보)와 인기(인출 정보)를 포함하며, 판본본과 사찰본의 세부 정보를 기록함
- 사기는 필사본의 제작 기록으로, 사성기(불경 제작 목적 및 참여자 기록)를 통해 제작 맥락을 알 수 있음

2. 개행, 극행, 피휘

- 개행은 황제나 고위 인물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문장을 새로운 줄에 쓰는 방식이며, 수자와 간자 등을 포함
- 극행은 글자나 단어를 특정 위치로 올려 쓰는 방식으로, 황제나 임금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
- 피휘는 임금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획을 생략(결획)하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대자)하는 방식

3. 결획과 대자

- 결획은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해 임금의 이름을 피휘하는 방식
- 대자는 임금의 이름을 다른 글자로 바꿔 쓰며, 이는 판본 감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됨
- 고려본 번각 시 결획과 대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 판별 기준이 됨

4. 반사, 내사, 보인

- 반사는 임금이 책을 하사한 기록으로, 내사본의 경우 내사기에 관련 정보가 적혀 있음
- 보인은 문서나 책에 찍힌 도장으로, 왕권과 문서의 권위를 나타냄
- 보인의 종류(선사지기, 규장지보 등)는 판본 감정과 정치·문화적 맥락 연구에 유용함

5. 수결(手決), 낙관(落款)

- 수결은 문서 작성자의 서명 또는 사인으로, 문서의 진위를 보증함
- 낙관은 서화류에서 작가의 이름, 서명 등을 나타내며 작품의 출처와 정통성을 확인함
- 수결과 낙관은 문서와 서화의 제작 시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6. 자체(字體)

- 자체는 글씨의 형태와 서법으로, 제작 시기와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됨
- 주요 서체에는 전서체(고대 금석문체), 해서체(정연한 기본 서체), 한글궁체(곡선미가 돋보이는 궁중 서체) 등이 있음
- 서체는 판본의 진위와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14주차 1차시



문헌의 관리

학습목표

1.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문헌이 배포된 역사적 배경을 기술할 수 있다.
2. 문헌이 판매 및 대여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할 수 있다.
3. 수집의 경우(국가적 차원의 수집 경우, 국내 서적 수집 경우, 국외 서적 수집 경우)에 따른 문헌의 수집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4. 시대별 문헌의 관리기구를 알고 문헌의 구체적 관리 과정을 서술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문헌의 배포와 수집
2. 문헌의 관리

핵심 keyword

- 반포
- 국내수집
- 국외수집

학습하기 1

문헌의 배포와 수집

1. 문헌의 배포

1) 반포

- 서사 이전의 문헌들은 반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 관판본은 주로 중앙 관서에서 배포되었으나, 사찰본, 서원본, 사가본과 같은 서적은 기증 형식으로 배포됨.
- 서적의 반포는 단순히 문헌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당시 국가와 사회에서 학문과 사상을 전파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1) 고려시대

- 고려 초기의 관판본 유통 정책은 중앙 관서인 비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비서성은 지방 관서에 책판 제작을 명하거나 이를 권장하여, 문헌의 지방 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지방 관서에서 새긴 책판은 중앙 비각에 입고되어 보관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책판에서 서적을 인출하여 각 관서와 문신, 교육기관 등으로 배포함.
- 이 과정은 단순히 문헌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학자들과 관료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2) 조선시대

- 조선 시대에는 서적 반포가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음. 교서관, 내각, 주자소와 같은 중앙 관서에서 활자본을 직접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함.
- 대량 인쇄가 필요한 경우 목판 인쇄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서적을 보급함. 이는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유통이 필요한 서적이나 학문적 가치가 높은 책의 경우에 효과적이었음.
- 특수 관서들은 특정 주제의 서적을 정교하게 제작하여 유통시켰음. 예를 들어, 간경도감에서는 불경과 같은 종교 서적을 주로 제작하였고, 지방 관서에서는 중앙에서 제작된 활자본을 번각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간행 활동을 이어감.
- 서적 반포의 주체와 역할도 점차 변화함. 세종 때부터는 승정원의 승지가 서적 배포를 담당했으며, 규장각 설립 이후에는 규장각 각신이 이 역할을 맡아 더 체계적인 서적 반포가 이루어졌음.

2) 금지

- 문헌의 금지는 국가나 종교상의 최고 권력자가 특정 서적의 출판과 판매를 금하는 것을 의미함.
- 주로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판단된 서적이 금서로 지정됨.
- 고려 인종 시기에는 노자와 장자와 같은 도가 관련 서적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당시 불교 중심의 질서와 상충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조선 태종 시기에는 음양사상과 도참사상을 다룬 서적들, 이른바 참위술서가 금지되었으며, 이를 불태우는 정책이 시행됨.
- 이후 선조 때에는 과거 시험에서 노자와 장자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양명학, 불교, 노장사상 관련 서적은 체제 유지에 위협적이라 여겨져 금서로 지정됨.
- 18세기에는 천주교 서적이 금서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고, 이는 국가 종교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음.
- 19세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국가 기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간행이 중지됨. 이는 당시 지도 제작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3) 판매 및 대여

- 서적의 판매는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졌음. 태종 10년(1410년)에 주자소에서 인출된 서적을 판매한 기록이 있으며, 이는 서적의 상업적 유통의 초기 사례로 볼 수 있음.
- 중종 14년(1519년)에는 서사를 설치하여 서적을 판매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교서관의 인출 능력이 이를 지원하기에 부족해 실현되지 못했음.
- 조선 후기에는 방각본의 대두와 함께 서적 판매가 활발해짐. 방각본은 주로 의학서, 오락용 소설, 역사서, 교육용 경전 등이 주류를 이루었음.
- 방각본은 대량 인쇄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으나, 인쇄 상태와 질은 관판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음.

2. 문헌의 수집

1) 국가적 차원에서 서적을 수집하는 경우

- 국가 차원에서 서적을 수집하는 것은 여러 목적을 가짐. 고문(顧問)에 대비하거나, 긴요한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 또한, 완질본이 아닌 산일된 서적을 보완하거나, 금서정책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사례도 있음.

2) 국내 수집

(1) 구입할 서적이 사전에 선정되는 경우

- 태종은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에서 『춘추국량전』과 『주역회통』을 구입했으며, 세종은 교정사업을 위해 『두시제가주』를 구입함.

(2) 수집 가치가 있는 서적의 입수

- 세종은 각 도에 문신을 파견하여 서적을 수집하였으며, 세조는 전국적으로 서적을 수집하며 서적 소장자에게 포백과 관작을 시상하여 동기를 부여함.

(3) 기증

- 지방 관리는 개인적으로 간행한 서적과 함께 수집한 서적을 기증함. 중종 때 예조는 서적 헌납에 대한 포상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는 치교(治敎)에 관련된 책이나 권질이 많아 구하기 어려운 책 등이 대상이 되었음.
- 포상은 당상관에게는 특별 하사품을, 당하관 이하는 한 계급씩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백성에게는 면포와 같은 실질적 보상을 지급함.

3) 국외 수집

- 국외 서적, 특히 중국 서적의 수집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음.

(1) 신간서 우선 수집

- 중국에서 새롭게 편찬된 서적을 최우선으로 구입하며, 이는 후대에 보완된 개정판도 포함됨.

(2)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서적

-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서적들을 수집하여 국가적 자료로 활용함.

(3) 낙질 서적 보완

- 홍문관이나 예문관에 소장된 서적 중 낙질이 있는 경우 이를 완질로 갖추기 위해 구입함.

(4) 긴급 서적 및 복본 수집

- 긴급한 서적이나 국내에서 복본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여 보완함.

(5) 소량 간행 어려운 서적

- 소량 간행이 불가능한 희귀 서적이나 참고 문헌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학문적,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음.

학습하기 2

문헌의 관리

1. 문헌의 관리

1) 관리 기구

(1) 고려 시대

- 고려 시대에는 서적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당시 학문과 기록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음.
- 주요 서적 관리 기관으로는 내서성, 수서원, 문덕전, 비서각, 임천각, 청연각, 보문각, 서적소, 연영전, 중광전 등이 있었음.
- 이들 기관은 서적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신들이 학문을 연구하거나 국가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
- 특히 비서각은 중요 서적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학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려 시대 서적 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음.
- 또한, 서적의 소유와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서인(藏書印)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의 출처를 확인하고 관리함.

(2) 조선 시대

-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서적 출판과 관리를 국정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겼음.
- 조선 초기에는 서적 출판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서관(校書監)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이후 교서관(校書館)으로 개칭되어 서적 관리와 간행의 중심이 되었음.
- 서적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전담 기관으로는 집현전,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바탕으로 학문 진흥과 서적 관리에 기여함.
- 세종은 서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장 서적에 '경연(經筵)'이라는 장서인을 찍어 서적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정립함.
- 조선 중기 이후 실록은 국가의 중요한 역사 기록물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사고에 분산 보관하였음.
- 임진왜란 이후에는 실록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오대산, 태백산, 강화도, 묘향산, 적상산 등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

2) 관리 방법

(1) 도난 및 화재에 대한 대책

- 서적의 도난과 화재는 고문헌 관리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
- 예를 들어, 군사 기밀 문서와 같은 민감한 서적은 금속으로 책등을 묶어 견고하게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존성을 높임.
- 서적을 훔친 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도난을 방지하였고, 각 사고(史庫)는 민가와 같은 화재 위험 지역에서 철저히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서적의 안전성을 높였음.

(2) 포쇄(曝曬)

- 포쇄는 서적을 말리거나 보존하기 위해 진행된 전통적 관리 방식으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됨.
- 서적은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배치되어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나 충해로부터 보호함.

- 포쇄 작업은 서적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 작업을 병행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졌음.

(3) 해유(解由)

- 해유는 관리자의 교대 시 이루어지는 서적의 인수인계 절차로, 새로운 관리자가 서적을 정확히 인계받아 책임을 이어받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를 통해 서적 관리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유지되었으며, 각 관리자는 자신의 임기 동안 맡은 책물을 다뤘음을 증명함.

(4) 장서 점검

- 장서 점검은 소장 서적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유실 여부와 상태를 점검하는 관리 활동임.
- 특히 관리 요원이 교체될 때마다 반드시 장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리자가 소- 관 서적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
- 천재지변으로 서적이 유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유실 규모와 복구 가능성을 평가함.

(5) 이용 규정

- 서적의 무분별한 열람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예를 들어, 집현전의 대출 규정에 따르면, 환관은 왕명을 증명하는 오매목(烏梅木) 표신을 소지해야만 서적을 대출할 수 있었음.
- 또한, 일반 관리들은 서적 열람을 위해 직접 집현전에 방문해야 했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왕의 윤허를 받아야 함.

(6) 복본의 분장

- 서적의 효과적 보존을 위해 복본을 여러 장소에 분산 보관하는 전략이 채택됨.
- 세종은 중국에서 서적을 구매할 때 반드시 2부 이상의 복본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세조는 한국에서 제작된 서적은 복구가 어렵다며 복본 제작과 분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복본 분장은 단순한 보관 이상의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이나 재해로 인해 서적이 유실될 경우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비책이었음.

학습정리

1. 문헌의 배포와 수집

- 고려와 조선 시대에 문헌은 중앙과 지방에서 체계적으로 반포되었음
- 조선은 교서관, 규장각 등을 통해 학문 보급과 서적 유통을 활성화했음
- 금서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서적이 지정되었으며, 천주교 서적, 대동여지도 등이 대표적 금서 사례
- 국가와 개인의 학문적 목적, 서적 보완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서적이 수집되었음
- 중국 서적은 신간서, 희귀서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서적은 국가 자료로 활용되었음

2. 문헌의 관리

- 관리 기구: 고려는 비서각, 조선은 교서관, 집현전, 규장각 등을 통해 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특히 실록은 사고에 분산 보관해 안전을 강화했음
- 관리 방법: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고, 포쇄, 해유, 장서 점검 등으로 서적의 보존 상태를 점검했고 복본 분장을 통해 서적 유실에 대비했으며, 이용 규정을 통해 서적 열람과 대출을 통제했음

14주차 2차시



문헌의 보존

학습목표

1. 문헌의 손상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문헌의 외적 손상요인을 구체적 요인(자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관리상의 요인, 재해의 요인)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2. 문헌을 보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알고 실제 적용할 수 있다.
3. 보존처리의 원칙을 통해 실제 문헌의 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4. 보존처리의 내용을 대량처리 방법, 개별처리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문헌의 손상요인
2. 문헌의 보존 방안

핵심 keyword

- 자연적 요인
- 환경적 요인
- 생물학적 요인
- 관리상의 요인
- 재해의 요인

학습하기 1

문헌의 손상요인

1. 문헌의 손상 요인

- 문헌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상태, 특성, 제작방식, 보존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손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문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잘못된 보관과 취급으로 인해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이러한 손상은 문헌의 원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달해야 할 지식과 정보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보존의 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습도, 온도, 빛 등 물리적 환경 조건을 조절해 문헌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 또한, 손상된 문헌은 보수 및 복원 작업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회복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문헌의 이용 가능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려는 노력이 필수적

1) 내적 요인

- 문헌의 손상은 종종 문헌 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재료에서 비롯됨. 특히 문헌의 핵심 재료인 종이와 먹, 그리고 제본에 사용된 풀 등 유기물 소재의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1) 종이의 열화와 산화

- 종이는 유기물이므로 자연 상태에서 서서히 열화와 산화가 진행됨. 이는 문헌의 물리적 강도를 저하시켜 장기적인 보존에 장애를 초래함.
- 열화된 종이는 섬유소가 파괴되면서 강도가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종이는 더욱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함.
- 반면, 전통적인 한지는 닥나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중성지로, 보존성이 매우 뛰어남. 이는 한지가 일반 펄프 종이에 비해 섬유 속에 열화를 일으키는 리그닌의 함량이 적기 때문임.
- 닥나무의 섬유는 빛을 덜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열화 요인이 적음. 한지는 외발 뜨기 제지 방식으로 제작되어 섬유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이로 인해 강도가 뛰어나며 도침 가공으로 인해 밀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짐.

(2) 먹의 안정성과 취약성

- 먹은 탄소 입자가 종이 섬유 사이에 고정되어 발색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보존성을 가짐.
- 그러나 먹의 아교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착력과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음. 특히 외적 요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색도가 떨어지거나 탈색 또는 변색될 가능성이 있음.

(3) 한지의 보존성과 한계

- 한지는 열화와 산화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외적 손상 요인(예 : 빛, 습도, 오염물질 등)이 결합될 경우 열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음.
- 이는 한지가 천연 섬유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존 환경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

2) 외적 요인

- 문헌의 외적 손상 요인은 자연적, 환경적, 생물학적, 관리상의 문제와 재해로 구분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문헌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1) 자연적 요인

① 빛은 자외선(UV), 적외선(IR), 가시광선으로 구분되며, 이 중 특히 자외선은 문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자외선 : 종이를 황변시키고 종이 섬유소를 파괴하여 강도를 약화시킴.
- 적외선 : 복사열을 발생시켜 종이의 지질과 강도를 약화시키며, 문헌의 물리적 손상을 가속화함.

② 보존 방법

- 문헌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빛의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함.
-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보존 환경은 온도 $20\pm1^{\circ}\text{C}$, 상대습도 $50\pm5\%$ 임.
- 상대습도가 높을 경우 곰팡이와 해충의 번식이 급격히 증가하며, 반대로 낮을 경우 종이의 건조와 균열, 박리 현상이 발생함.

(2) 환경적 요인

- 문헌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음.
- 공기 중 오염물질 : 유황산화물(SO_2), 질소산화물(NO_x), 수소산화물(H_2O_2), 오존(O_3), 기타 광물성 먼지 등이 문헌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함.
- 문헌 자체 방출 가스 : 문헌을 구성하는 유기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스를 방출하며, 이는 밀폐된 서고에서 서고 내 먼지와 반응하여 곰팡이와 해충 번식의 환경을 조성함.

(3) 생물학적 요인

- 서고의 환경이 청결하지 못할 경우, 각종 세균, 곰팡이, 해충, 설치류 등이 문헌에 물리적 손상을 가함.
- 해충 피해 : 바퀴벌레, 좀벌레, 흰개미, 권연벌레 등은 종이를 갉아먹고 구멍을 뚫으며, 배설물로 문헌에 오염을 유발함.
- 곰팡이 : 종이 섬유소와 책 제작 시 사용된 풀 등의 유기물질을 영양분으로 삼아 번식함. 특히 온도 25°C 이상, 상대습도 65% 이상에서 곰팡이의 번식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

(4) 관리상의 요인

- 문헌은 부주의한 취급이나 불철저한 관리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음.
- 부적절한 취급 : 문헌을 거칠게 다루거나 과도하게 복사할 경우 물리적 약화가 발생함.
- 고의적 손상 : 절도, 절단, 훼손 등은 문헌의 보존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킴.
- 보안 관리 부족 : 문헌의 도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체계가 필요함.

(5) 재해

- 홍수, 지진, 폭풍, 화재 등 자연 재해는 문헌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함.
-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함.

학습하기 2

문헌의 보존 방안

1. 문헌 보존 방안

- 문헌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산으로, 보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이를 위해 문헌의 보존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환경적·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보존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재해 발생 시 문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 대응책도 포함되어야 함.
- 보존계획의 절차는 자관의 보존 현황 조사,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보존계획 수립, 보존 프로그램 실행과 평가의 순으로 실시함

1) 예방적 조치

- 문헌 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 손상을 방지하는 것임. 이는 서고 환경의 관리, 문헌의 보호 및 이용 규정 마련, 재해 대비책 등으로 구성됨.

(1) 서고의 환경 관리

- 서고 환경은 문헌의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함.
- 자연광 통제 : 창문을 통한 자연광은 문헌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여 자연광을 완전히 차단해야 함.
- 인공조명 사용 : 백열등이 형광등보다 자외선을 덜 방출하므로 안전함. 서고 내 조명은 자외선 방출을 최소화하는 LED 조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온도와 습도 유지 : 서고의 이상적인 온도는 20℃, 상대습도는 50%로 유지해야 함. 이는 곰팡이와 해충 번식을 억제하고, 종이의 건조와 균열을 방지함.
- 공기 정화 시설 설치 : 서고 내 먼지, 오염물질,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 정화기를 설치함. 공기 정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해야 함.
- 청결 유지 :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서고 내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며, 청소 시 문헌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함.
- 해충 및 설치류 방지 : 건물의 벽면, 입구, 창문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충 방지제를 사용하여 서고를 안전하게 보호함.

(2) 문헌의 보호

- 문헌 보호는 포갑, 보관 상자, 방충제 사용 등을 포함함.
- 포갑 사용 : 포갑은 공기 중의 먼지와 오염물질로부터 문헌을 보호하며, 외부 온도 및 습도의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함.
- 포갑 제작 시 화학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통기성이 좋지 않을 경우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함.
- 보관 상자 사용 : 문헌은 방충 및 습기 조절 효과가 있는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임.

(3) 문헌 이용 규정

- 문헌 이용은 손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폐가제 운영 : 고서실은 폐가제로 운영하며, 문헌 이용은 담당 사서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함.
- 복제 및 복사 제한 : 원본 문헌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복사본, 영인본, 디지털 자료, 마이크로 자료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부득이한 경우 복사는 도서관 직원이 직접 수행함.
- 도난 방지 장치 : 문헌 이용 중 CCTV와 침입 경보기를 설치하여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함.

(4) 재해 대비책

- 재해는 문헌의 보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
- 비상 대응 계획 : 서고의 위치, 직원 연락처, 외부 기관 연락망 등을 포함한 재난 대응 계획을 문서화함.
- 화재 및 수해 방지 : 서고에는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하고, 벽과 설비는 불과 물에 강한 자재로 제작함.
- 정기 점검 : 서고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

2) 보존처리의 원칙

- 보존처리는 이미 손상된 문헌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임.

(1) 원칙

- 가역성 : 보존 처리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보존 처리된 내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함.
- 최선의 처리 방법 선택 : 문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함.
- 처리 기록 : 수리 복원은 손상되기 이전과 같이 복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리 복원된 이력을 보여줘야 함. 보존 처리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관리 및 복원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함.

(2) 처리 내용

- 대량 처리 방법 : 같은 문제를 가진 문헌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훈증, 냉동법, 탈산처리 등이 있음.
- 개별 처리 방법 : 물리적 손상을 입은 문헌에 대해 종이 강화법, 배접, 결실 보강 등을 시행함.
 - 배접 : 손상된 문헌을 보강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킴.
 - 강화법 : 약화된 종이의 강도를 높이는 조치로, 문헌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함.
 - 짜깁기와 충전 : 결실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기술로, 원본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복원함.

학습정리

1. 문헌의 손상요인

- 문헌은 내부적 요인(재료 열화, 산화)과 외부적 요인(환경, 관리 부주의, 재해)으로 손상될 수 있음
- 내적 요인: 종이의 황변, 섬유소 파괴, 먹의 아교질 약화 등이 포함되며, 특히 한지는 보존성이 뛰어나지만 환경 요인에 민감함
- 외적 요인: 자외선, 온·습도 변화, 곰팡이, 해충, 오염물질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곰팡이는 25℃ 이상, 습도 65% 이상에서 급속히 번식하며, 해충은 종이를 갉아 물리적 손상을 초래함
- 재해(홍수, 화재 등)와 관리 소홀(부적절한 취급, 도난)은 문헌 보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
- 손상 방지를 위해 보존 환경의 세심한 관리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

2. 문헌의 보존 방안

- 문헌 보존은 예방적 조치와 보존처리로 구분되며, 보존 계획은 체계적이어야 함
- 예방적 조치: 서고 환경(온도 20℃, 습도 50%)을 유지하고, 빛과 오염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며, 재해 대비책을 마련함
- 문헌 보호: 포갑과 방충 상자를 사용하고, 문헌 이용 규정을 통해 열람과 복사를 제한함
- 보존처리 원칙: 가역성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개입으로 처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함
- 처리 방법: 대량 처리(훈증, 탈산처리)와 개별 처리(배접, 결실 보강)를 통해 문헌의 상태를 회복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헌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음